

저자 楊士瀛
국역 이정현
해제 이정현

국역
仁齋直指小兒方論
【二】



ISBN 978-89-5970-600-6(PDF)
ISBN 978-89-5970-612-9(세트)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신간 인재직지소아 부유방론 권2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二

만경풍 慢驚	1.1.1 1.1
급비풍·만비풍 急慢脾風	1.1.2
객오 客忤	1.1.3
경풍의 여러 가지 치료법 驚風雜治	1.1.4
중풍 中風	1.1.4.1
중풍에 대한 설명 中風方論	1.1.5
오장의 수혈 五臟俞穴	1.1.6
중풍의 증상과 치료법 中風證治	1.1.7
【부방】【附方】	1.1.8
경치 痙瘓	1.1.9
간질의 발작 發癇	1.1.10

신간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 권3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三

감질 疳	1.2.1 1.2
------	-----------

각종 감질에 대한 설명 諸疳方論	1.2.1.1
-------------------	---------

각종 감질의 증상과 치료법 諸疳證治	1.2.1.2
---------------------	---------

감창에 대한 설명 疳瘡方論	1.2.1.3
----------------	---------

감창의 증상과 치료법 疳瘡證治	1.2.1.4
------------------	---------

적취 積	1.2.2
------	-------

적취에 대한 설명 積滯方論	1.2.2.1
----------------	---------

적취의 증상과 치료법 積滯證治	1.2.2.2
------------------	---------

비결의 증상과 치료법 痞結證治	1.2.2.3
------------------	---------

벽적의 증상과 치료법 癖氣證治	1.2.2.4
------------------	---------

부방 附方	1.2.2.5
-------	---------

열 熱	1.2.3
-----	-------

각종 열에 대한 설명 諸熱方論	1.2.3.1
------------------	---------

각종 열의 증상과 치료법 諸熱證治	1.2.3.2
--------------------	---------

부방 附方	1.2.3.3
-------	---------

해제·출판

해제	2.1
----	-----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二

신간 인재직지소아 부유방론 권2



慢驚

만경풍

方傳慢驚證治

만경풍 초기 증상의 치료법

- 【太一保生丹】
- 태일보생단

治慢驚尙有陽證.

아직 양증이 남아 있는 만경풍을 치료한다.

全蝎 青首拾肆箇, 白附子(生)、直僵蚕、牛膽南星、蟬殼、琥珀 各二錢, 麝半錢, 防風、朱砂 各七錢.

전갈(대가리가 푸른 빛인 것) 14개, 백부자(생것)、곶은 강잠、우담남성、선각、호박 각 2돈, 사향 0.5돈, 방풍、주사 각 7돈.

右爲末, 粟米糊圓如桐子, 金箔衣, 每服乙圓, 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만 하게 환을 빚고 금박을 입힌다. 한 번 복용할 때 1환씩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聚寶丹方】

- 취보단

傳慢驚可用.

급경풍이 만경풍으로 악화되었을 때 쓴다.

人參、伏神、琥珀、天麻、直僵蚕(炒)、防風、南星(炮)、白附(生)、蝎(炙)
、烏蛇肉(酒漫¹, 焙) 各一錢, 朱砂 半錢, 麝 少許.

인삼、복신、호박、천마、곶은 강잠(볶는다)、방풍、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백부자(생것)、전갈(굽는다)、오사육(술에 담갔다가 결불에
말린다) 각 1돈, 주사 0.5돈, 사향 약간.

右爲末, 煉蜜圓, 桐子大, 每服壹圓, 昌蒲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
씩 창포탕에 타서 넘긴다.

- 【蟬蝎散】
- 선갈산

治方傳慢驚.

급경풍에서 악화되어 만경풍이 된 초기 증상을 치료한다.

全蝎 七箇(去尾尖), 蟬殼 二十乙箇, 甘草 二錢半(炙), 大天南星 一箇(炮香).

전갈 7개(꼬리의 침을 제거한다), 선각 21개, 감초 2.5돈(굽는다), 큰 천남성 1개(습지에 싸서 향이 나도록 굽는다).

右爲末, 每服半錢, 薑棗煎一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생강과 대조와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 【神保既齊丹】
- 신보기제단

分陰陽, 平冷熱, 定吐瀉, 豁痰涎.

음증과 양증을 뒤섞이지 않게 하고, 냉증과 열증을 조절하며, 구토와 설사를 진정시키고, 담연을 뚫어준다.

硫黃、硃砂、五靈脂、青皮、陳皮、半夏麴(炒) 等分.

유황、염초、오령지、청피、진피、반하국(볶는다) 각각 같은 양.

右硫硃夾研, 用磁器鎔汁, 傾出, 候冷再研細, 旋入諸藥末拌和, 粟米糊圓, 麻子大, 每服三圓, 食前米飲下.

유황과 염초를 함께 갈아 자기에 넣고 액체가 되도록 녹인 후 위에 뜬 것을 기울여 따라 낸다. 식은 후에 한 번 더 곱게 간 다음 나머지 약재 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이것을 좁쌀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환씩 식전에 미음으로 넘긴다.

- 【夾復丹】
- 협복단

升降陰陽, 疎風利痰. [方見血氣類]

음양의 기운을 잘 오르내리게 만들고, 풍사와 담연을 순환시켜 빼낸다.

[처방은 혈기류(血氣類)에 나온다]

- 【王氏惺惺散】
- 왕씨성성산

治吐瀉, 脾困內虛.

구토와 설사로 비기(脾氣)가 허약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伏苓、木香(焙)、天麻、白扁豆(製)、陳米(炒)、全蝎(焙).

인삼、복령、목향(겉불에 말린다)、천마、백편두(법제한다)、진미(볶는다)、전갈(겉불에 말린다).

右等分爲末, 每服半錢, 薑棗畧煎服.

이상 각각 같은 분량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생강과 대조와 함께 살짝 달여 복용한다.

- 【醒脾散】
- 성비산

治吐瀉, 脾困不食.

구토와 설사로 비기(脾氣)가 허약해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全蝎(焙) 半錢, 白附子(炮)、天麻(焙)、甘草(炙)、人參、白茯苓、石菖蒲(細節者)、木香、石蓮肉、白朮 各乙錢.

전갈(겉불에 말린다) 0.5돈,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겉불에 말린다)、자감초、인삼、백복령、석창포(마디가 짧은 것)、목향、석련육、백출 각 1돈.

右爲末, 每服參字, 薑棗煎服, 有熱者去【木香】.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열이 나면 목향을 뺀다.

- 【太醒脾散】
- 태성비산

南星、白茯苓、橘紅 各乙分, 全蝎(焙)、甘草(炒)、白附子(炮)、石蓮子、人參、木香 各半分, 陳倉米 二百粒.

남성、백복령、귤홍 각 1푼, 전갈(겉불에 말린다)、감초(볶는다)、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석연자、인삼、목향 각 0.5푼, 진창미 200알.

右爲末, 每服參字, 薑棗煎服. ㉑㉒²醒脾兩, 兩方通用, 亦可釀乳. 小兒胃虛不消乳食, 尤須節細.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성성산과 성비산과 태성비산은 통용할 수 있고, 모두 젖을 잘 돌게 만든다. 위기가 허약한 아이가 젖이나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마디가 짧은 약재를 써야 한다.

- 【溫白圓】

- 온백원

驅風豁痰.

풍사를 쫓아내고 담연을 뚫는다.

人參、防風、白附子(生)、直僵蚕、全蝎 各焙並乙錢, 南星(盪七次, 焙乾)、天麻 各二錢.

인삼、방풍、백부자(생것)、곶은 강잠、전갈(각각 곶불에 말린다) 각 1돈, 남성(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기를 7차례하고 곶불에 말린다)、천마 각 2돈.

右爲末, 飛白麵糊圓, 桐子大, 每服一圓, 薑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아주 곱고 흰 밀가루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已傳慢驚證治

급경풍에서 만경풍으로 완전히 넘어간 증상의 치료법

- 【星香全蝎散】
- 성향전갈산

治慢驚風, 昏迷痰搐.

만경풍으로 정신이 혼미하면서 담연을 흘리며 경련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南星(濕紙煨) 二錢, 木香、人參、橘紅 各一錢, 全蝎(炙) 三箇, 甘草(炙) 半錢.

남성(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2돈, 목향、인삼、귤홍 각 1돈, 전갈(굽는다) 3개, 자감초 0.5돈.

右剉細, 每服一錢, 入紫蘇薑棗濃煎, 旋以匙送下, 有熱加【防風】.

이상을 잘게 썬다. 한 번에 1돈씩 자소와 생강과 대조를 넣고 진하게 달여 급히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열이 나면 방풍을 추가한다.

- 【定命飲】
- 정명음

治慢驚, 吐瀉困重, 欲傳慢脾通用.

만경풍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여 몸이 허약하고 까라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만비풍으로 악화되려고 할 때도 통용한다.

圓白半夏(生)、伏苓、木香、老生薑(切片, 乾) 各一分, 白朮、甘草(炙) 各半分.

등글고 흰 반하(생것)、복령、목향、오래 묵은 생강(절편으로 썰어 말린 다) 각 1푼, 백출、자감초 각 0.5푼.

右爲末, 每服半錢, 薑棗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생강과 대조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四聖散】
- 사성산

治慢驚, 痰滯虛熱, 若有竄視、搐搦證狀, 以少許, 用管吹入鼻中.

만경풍으로 담연이 막히고 허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축닉 증상이 있으면 이 약을 대롱에 조금 넣고 콧속에 넣어 넣는다.

全蝎 七箇, 直僵蚕 拾四箇, 大南星 七錢半, 眞川烏 三錢三字(並生用).

전갈 7개, 곧은 강잠 14개, 큰 남성 7.5돈, 진품 천오 3.75돈(이상은 모두 생것을 쓴다).

右將【南星】爲末, 水調作餅, 裹【蚕】、【蝎】、【川烏】, 外用濕紙重包, 放火灰中

煨令赤色, 頓地上一伏時, 爲末. 每服一字, 煎金銀湯, 點好茶清少許調下.

남성을 가루 낸 후 물에 개어 떡처럼 뭉친다. 여기에 강잠, 전갈, 천오를 놓고 싼 다음 습지로 겹을 몇 겹 싼다. 잿불에 묻어 붉어질 때까지 구운 후 땅에 1복시(伏時) 동안 펼쳐 놓았다가 가루 내어 쓴다. 한 번에 1자씩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달인 다음 좋은 찻물을 약간 타서 넘긴다.

- 【烏蝎四君子湯】
- 오갈사군자탕

【四君子湯】加【川烏】生, 【全蝎】焙, 爲末, 各半錢, 薑棗煎服, 如再服即去【川烏】.

가열하지 않은 천오와 곁불에 말린 전갈을 가루 낸 것 각 0.5돈을 사군자탕 약재에 더한 후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2번째 복용할 때는 천오를 빼고 복용한다.

- 【南星散】
- 남성산

驅風豁痰.

풍사를 몰아내고 담연을 뚫는다.

南星(重八九錢以上者用一箇, 就地上作小坑, 深七八寸, 用火炭五斤, 燒通紅, 以好米醋半盞, 酒入坑中, 卽納南星於內, 次以火炭條密蓋之, 又用盆蓋其上, 一伏時取出, 洗淨切焙).

남성(8~9돈 이상인 1개를 쓴다. 땅에 7~8치 깊이의 작은 구덩이를 파고 숯 5근을 전체가 빨강게 달궈서 준비한다. 품질 좋은 쌀식초 0.5잔을 구덩이에 넣고 곧바로 남성을 넣는다. 그리고 나서 숯덩이로 그 위를 빈틈없이 덮고 숯덩이 위에 동이로 한 번 더 덮는다. 1복시 후에 꺼내서 깨끗이 씻은 다음 절편으로 썰어 겉불에 말린다).

右爲末, 入【琥珀】、【全蝎】末各壹錢, 每服半錢, 煎生姜、防風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호박·전갈(가루) 각 1돈을 넣는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생강·방풍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烏沉湯】
- 오침탕

慢驚驅風助胃.

만경풍을 앓을 때 풍사를 몰아내고 위기(胃氣)를 돕는다.

天麻 二錢, 人參、眞川烏(生)、全蝎(焙)、南星(炮)、木香、沉香 各乙錢, 甘草(焙) 半錢.

천마 2돈, 인삼, 진품 천오(생것), 전갈(겉불에 말린다),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목향, 침향 각 1돈, 감초(겉불에 말린다) 0.5돈.

右剉散, 每服參字, 姜三片, 慢火煎, 取其半與之.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생강 3조각과 함께 물에 넣고 약
한 불에 달이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먹인다.

- 【沉香散】

- 침향산

生胃氣, 止吐瀉.

위기(胃氣)를 살아나게 하여 토사를 멎게 한다.

伏苓 二錢, 沉香、丁香、木香、藿香、川厚朴(製)、甘草(炙) 乙錢.

복령 2돈, 침향, 정향, 목향, 곽향, 천후박(법제한다), 자감초 1돈.

右爲末, 每服一字, 米飲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1자씩 복용하되 미음에 타서 넘긴다.

慢驚下痰証治

만경풍으로 끈적한 설사를 하는 증상의 치료법

- 【天南星丸】

- 천남성환

治慢驚痰壅, 惟身熱者可服.

만경풍으로 담연이 왕성한 증상이 있을 때 몸통에 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용하여야 한다.

南星 一斤(每重一兩上下者, 用溫湯浸洗, 刮去穢外浮皮并虛軟處令淨, 用法酒浸一宿, 用桑七蒸, 不住添熱湯, 令釜滿, 甑內氣猛, 更不住酒, 常令藥潤, 七伏時滿, 取出. 用銅刀子切開一箇大者, 嚼少許, 不麻舌爲熟, 未卽再炊, 候熟, 用銅刀切細, 焙乾), 麝香(研)·丁香 各乙兩, 龍腦(研) 一兩半, 辰砂(別研, 水飛) 貳兩(用一半爲衣).

남성 1근(매번 무게가 1냥 내외인 것을 따뜻한 물에 담근 채로 씻은 후 속과 겉껍질과 물렁물렁한 부분을 깨끗이 도려낸다. 법제 방법에 따라 술에 하룻밤 재운 후 뽕나무 장작으로 7번 찌되 쉬지 않고 뜨거운 물을 솥이 가득 차도록 부어서 시루 안에 수증기가 세차게 뿜어져야 한다. 또한 술을 쉬지 않고 넣으면서 약재가 항상 윤기 나게 만들다가 7복시 후에 꺼낸다. 구리칼로 하나의 큰 덩어리 중 약간을 잘라 씹어보았을 때 혀가 아리지 않아야 익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찌서 익혀야 한다. 이것을 구리칼로 잘게 썰고 겉불에 말려서 사용한다), 사향(간다)·정향 각 1냥, 용뇌(간다) 1.5냥, 진사(수비한 후 따로 갈아 둔다) 2냥(절반은 겉에 입힌다).

右爲細末, 入研藥勻, 煉蜜并酒圓, 朱砂爲衣, 每服一豆許, 生姜煎湯調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갈아 놓은 약재를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연밀과 술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에 콩 1알만큼 복용하되 생강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蘇合香丸】一倍 [方見血氣類] 【白丸子】二倍 [方見痰飲類] 夾和, 每服半錢, 姜湯調下.

소합향원 [처방은 혈기류(血氣類)에 나온다] 과 백환자 [처방은 담음류에 나온다] 를 1:2 비율로 잘 섞는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神保既濟丹】
- 신보기제단

治慢驚痰盛. [見方傳慢驚門]

만경풍으로 담연이 왕성한 증상을 치료한다. [처방은 전만경문(傳慢驚門)에 나온다]

- 【礞石散】
- 몽석산

最能利痰, 急慢脾風通用.

담연을 가장 잘 배출시키는 약이다. 급비풍 · 만비풍에 통용한다.

靑礞石(揚碎) 一兩, 焰硝 半兩(同礞石入甘窩內, 用炭火煨令通紅, 候冷).

청몽석(두들겨 부순다) 1냥, 염초 0.5냥(청몽석과 함께 솥에 넣고 숯불로 전체가 빨강도록 달궜다가 식힌 것을 사용한다).

右爲末, 雪粳薄糊圓, 綠豆大. 每服二丸, 急風【薄荷】、【荊芥】泡湯調下, 慢風、慢脾風用【南木香】煎湯調下, 【礞石】、【焰硝】、【古文錢】輩, 雖能利痰, 然其性非胃家所好, 須以【木香】佐之.

이상을 가루 낸 후 흰 멥쌀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2환을 복용하되 급경풍에는 뜨거운 물에 박하·형개를 우려서 타 넘기고, 만경풍이나 만비풍에는 남목향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청몽석·염초·고문전 같은 약재는 담연을 빼내긴 하지만 소화가 잘되지 않으니 꼭 목향을 좌약으로 사용해야 한다.

- 【靈脂丸】
- 영지환

治慢驚痰盛搐搦.

만경풍으로 담연이 왕성해지면서 축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五靈脂(香潤者)、白附子(晞炮)、木香、直僵蚕(炒) 各一分, 全蝎(焙) 半分, 朱砂 一錢, 大南星(濕紙炮) 半兩.

오령지(향이 나고 윤기 나는 것)、백부자(습지에 싸서 살짝 굽는다)、목향、곶은 강잠(볶는다) 각 1푼, 전갈(겉불에 말린다) 0.5푼, 주사 1돈, 대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0.5냥.

右爲末, 米醋煮生半夏糊爲圓, 麻子大, 每服三丸, 姜湯送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생반하를 넣고 끓인 쌀식초물에 개어 마자대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환씩 생강탕으로 넘긴다.

- 【七珍丸】
- 칠진환

治諸風, 頑痰壅盛, 大小通用.

각종 풍증으로 끈적한 담연이 왕성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성인과 아이 모두 사용한다.

細辛、川靈脂、直僵蚕(炒) 各一錢半, 白附子 一錢, 朱砂 半錢, 全蝎 四箇(焙).

세신、천영지、곶은 강잠(볶는다) 각 1.5돈, 백부자 1돈, 주사 0.5돈, 전갈 4개(겉불에 말린다).

右爲末, 用大南星生爲末煮糊丸, 麻子大, 每服五丸, 姜湯送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큰 남성(생것을 가루 낸다)을 끓여서 만든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5환씩 생강탕으로 넘긴
다.

慢脾風生胃回陽治法

만비풍을 앓을 때 위기(胃氣)와 양기를 회생하게 하는 치료법

- 【黑附湯】
- 흑부탕

治慢脾風盛, 四肢厥冷.

만비풍으로 풍증이 왕성하고 사지 끝이 차가운 증상을 치료한다.

附子(炮, 去皮) 三錢, 木香 乙錢半, 白附子 乙錢, 甘草(炙) 半錢.

부자(습지에 써서 구운 후 껍질을 제거한다) 3돈, 목향 1.5돈, 백부자 1돈,
자감초 0.5돈.

右剉散, 每服三字, 姜伍片, 煎取其半, 以匙送下, 若手足煖而蘇省, 卽止後劑.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복용하되 생강 5조각과 함께 달
여 절반으로 졸아들면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정신
을 차리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아래의 약을 쓴다.

- 【川烏散】

- 천오산

驅風回陽.

풍사를 몰아내고 양기를 회복시킨다.

眞川烏(生) 乙分, 全蝎、木香 各半分.

진품 천오(생것) 1푼, 전갈、목향 각 0.5푼.

右爲末, 每服三字, 薑四片, 煎取其半, 旋滴入口中, 嘔吐者加【丁香】.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복용하되 생강 4조각과 함께 달여 절반으로 졸아들면 곧바로 입속에 떨어뜨린다. 구토하는 경우에는 정향을 추가한다.

- 【金液丹】[方見血氣類]、【白丸子】等分
- 금액단 [처방은 혈기류(血氣類)에 나온다]、백환자 각각 같은 양을 합한 것

祛風回陽.

풍사를 제거하고 양기를 회복시킨다.

二藥爲末, 每服半錢, 陳米飲調下.

2가지 약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진창미로 쏜 미음에 타서 넘긴다.

- 【生附四君子湯】
- 생부사군자탕

助胃回陽.

위기(胃氣)와 양기를 회복시킨다.

【四君子湯】加【生附子】末四分之一, 厥逆者對加. 每服半錢, 姜五片, 慢火熟煎, 以匙送下.

사군자탕에 부자(생것을 가루 낸다)를 1/4 분량만큼 추가한다. 사지에 결역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따라 더 추가한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생강 5조각과 함께 넣고 약한 불에 푹 달인 후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 【蝎附散】
- 갈부산

回陽氣, 豁風痰.

양기를 회복시키고 풍담(風痰)을 뚫는다.

全蝎 七箇, 附子(炮) 二錢, 南星(炮) · 白附子(炮) · 木香 各乙錢.

전갈 7개,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2돈,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 목향 각 1돈.

右爲末, 每服半錢, 姜四片, 慢火熟煎, 旋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생강 4조각과 함께 물에 넣고 약한 불에 푹 달여 바로 복용한다.

- 【陰癇散】
- 음간산

祛風豁痰, 回陽正胃.

풍사와 담연을 제거하고 양기와 위기(胃氣)를 회복시킨다.

白附子、黑附子、南星、半夏(並生) 各一分半.

백부자、흑부자、남성、반하(이상은 모두 생것) 각 1.5푼.

右爲末, 井水浸七日, 逐日換水, 浸訖控乾, 次入【全蝎末】二錢, 每服一字, 生姜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우물물에 7일 동안 담가놓되 매일 물을 교체한다. 담가 놓는 날짜를 채우면 건져서 말린다. 그리고 나서 전갈(가루 낸다) 2돈을 넣는다. 한 번에 1자씩 복용하되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靈砂】
- 【영사】

正胃回陽, 能止嘔吐, 溫利痰涎.

양기와 위기(胃氣)를 회복시키고, 구토를 멎게 하며, 뱃속을 따뜻하게 하여 담연을 배출시킨다.

但瀉者勿用爲細末, 以少許, 米飲調下, 或用糕糊丸, 如粟米, 大兒兩三丸, 米飲灌下.

단, 설사하는 경우에는 곱게 가루 내어 사용하지 말고, 약간씩 미음에 타서 넘긴다. 혹은 설기떡으로 썬 풀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은 후 몸집이 큰 아이 기준으로 2 - 3환을 미음과 함께 흘려 넣어 삼키게 한다.

- 【震靈丹】 [方見血氣類]
- 진령단 [처방은 혈기류(血氣類)에 나온다]

治慢脾風, 吐瀉不止.

만비풍으로 토사가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每服一丸, 研細【人參】、【南木香】煎湯, 乘熱調下. ○已上諸藥溫熱, 並乳食前服.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곱게 간 인삼·남목향을 물에 달여 따뜻할 때 타서 넘긴다. ○이상의 약들은 따뜻한 성질의 약이니 모두 젖이나 밥을 먹기 전에 복용한다.

【附方】

【부방】

- 【壽星錠】

- 수성정

治嬰孩小兒急慢驚風.

갓난아이의 급경풍이나 만경풍을 치료한다.

防風(去芦叉) 五錢, 人參(去芦)、白朮(麩麩炒)、遠志(去心, 酒浸炒)、茯苓(去皮)、茯神(去皮木)、川芎、殭蠶(去觜絲, 炒)、白芷、蓮肉(不去心)、甘草(炙) 各二錢半, 藿香葉 一錢, 天麻(煨)、白附(蜜湯者, 去皮)、桔梗(去芦, 炒)、天南星(去臍皮, 姜製)、羌活(去芦)、琥珀 各一錢半, 釣藤 五錢, 全蝎(去毒, 炒) 十個, 辰砂(水飛) 二錢, 蟬蛻(去頭足) 二十四個, 麝香 一角, 金箔 二十片, 山藥(炒) 三錢.

방풍(노두와 곁뿌리를 제거한다) 5돈, 인삼(노두를 제거한다)、백출(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원지(심을 제거하고 술에 담갔다가 볶는다)、복령(겉질을 제거한다)、복신(겉질과 목질부를 제거한다)、천궁、백강잠(주둥이와 실 같은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백지、연육(심을 제거하지 않는다)、자감초 각 2.5돈, 곽향엽 1돈, 천마(잿불에 굽는다)、백부자(따뜻한 꿀물에 넣어 겉질을 제거한다)、길경(노두를 제거하고 볶는다)、천남성(배꼽 부분과 겉질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법제한다)、강활(노두를 제거한다)、호박 각 1.5돈, 조구등 5돈, 전갈(독성을 제거하고 볶아서 쓴다) 10개, 진사(수비한다) 2돈, 선태(대가리와 다리를 제거한다) 24개, 사향 1각(角), 금박 20조각, 산약(볶는다) 3돈.

右爲極細末, 煉白蜜印錠, 用薄荷煎湯研化, 不拘時候服之.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내고 졸인 백밀에 개어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박하 달인 물에 잘 개어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鎮心餅】

• 진심병

治嬰孩小兒急慢驚風.

갓난아이의 급경풍이나 만경풍을 치료한다.

人參(去芦)、赤茯苓(去皮)、甘草(炙)、山藥 各五錢, 辰砂(水飛)、桔梗(炒) 各二錢半, 乳香 一錢半, 麝香 二分.

인삼(노두를 제거한다)、적복령(겉질을 제거한다)、자감초、산약 각 5돈, 진사(수비한다)、길경(볶는다) 각 2.5돈, 유향 1.5돈, 사향 2푼.

右爲極細末, 煉白蜜爲餅, 用薄荷煎湯研化, 不拘時候服之.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내고 졸인 백밀에 개어 떡처럼 뭉친다. 박하 달인 물에 풀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1. 酒漫 ⇨ 酒浸 ※문맥상 ⇐

2. 惺惺 ⇨ 惺惺 ※문맥상 ⇐



急慢脾風

급비풍、만비풍

慢脾風下痰証治

만비풍을 앓을 때 담연을 배출시켜야 하는 증상의 치료법

- 【神保既濟丹】[見方傳慢驚門]
- 신보기제단 [처방은 방전만경문(方傳慢驚門)에 나온다]
- 【白僵蚕丸】
- 백강잠환

方傳慢脾, 陽氣未甚脫者可用, 亦能截風.

이제 막 만비풍으로 악화되었지만 양기가 심하게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다. 풍증을 없애기도 한다.

牛膽釀南星 二錢, 直僵蚕(炒)、錢子、地龍(乾)、五靈脂、全蝎(焙) 各一錢.

우담남성 2돈, 곧은 강잠(볶는다)、마전자、지룡(말린다)、오령지、전갈(겉불에 말린다) 각 1돈.

右爲末, 水煮生半夏糊丸, 麻子大, 每服伍丸, 姜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생반하를 달여 쏜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5환씩 생강탕으로 넘긴다.

- 【辰砂膏】
- 진사고

治慢脾冷痰壅滯, 手足冷而微搐.

만비풍으로 냉담(冷痰)이 꼭 막히고 손발이 차면서 축늑이 살짝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黑附子(一枚八錢重者, 去皮, 臍頂上刻一孔, 入【辰砂末】一錢重, 用【附子末】塞之, 以炭火三七燒, 存性爲渡), 南星(炮) 半兩, 白附子(炮)、川五靈脂、蝎梢 各一分.

흑부자(8돈짜리 1개. 껍질을 제거하고 배꼽 끝에 구멍을 하나 뚫은 후 진사 가루 1돈을 넣고 부자 가루로 막는다. 숯불에 3번씩 7차례 굽되 약성이 남도록 해야 한다),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0.5냥,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오령지、갈초 각 1푼.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丸, 生姜汁泡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생강즙을 넣은 따뜻한 물에 타서 넘긴다.

- 【七宝妙砂丹】

- 칠보묘사단

利痰奇效, 慢驚慢脾通用, 須以【木香】佐之, 【開元通寶錢】背後上下有兩月片者, 其色淡黑頗小, 諸錢以一箇, 放鉄匙頭, 於炭火內燒, 少傾, 四圍上下各出黃白珠子, 將出候冷, 傾入蓋中, 只作一服, 【南木香】煎湯送下, 【人參】煎湯亦得.

담연을 배출시키는 데 탁월하며 만경풍과 만비풍에 통용한다. 반드시 목향을 좌약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원통보전(뒷면의 위와 아래에 초승달 모양이 있으며 색깔은 옅은 검은 색으로 꽤나 작다)이나 각종 동전 1개를 쇠손가락 끝에 놓고 숯불에 넣어 달군다. 조금 있으면 동전의 테두리에서 누렇거나 흰 구슬 같은 것이 나오면 불에서 빼서 식기를 기다린다. 그 구슬 같은 것을 잔 속에 넣고 딱 1번 복용하되 남목향 달인 물로 넘긴다. 인삼 달인 물로 넘겨도 좋다.

急慢脾風証治

급비풍과 만비풍 증상의 치료법

- 【星蘇散】
- 성소산

治諸風, 口噤不語.

각종 풍증으로 입을 악다물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天南星略炮, 剉散, 每服三字, 姜四片, 紫蘇伍葉, 煎取其半, 却入【雄豬膽】汁少許, 溫和服. 凡不語者, 大小便須要調導, 治慢風不語, 只用【南星】, 更以【人參】、【石昌蒲】爲佐.

천남성을 습지에 싸서 살짝 익힌 다음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복용하되 생강 4조각과 자소 5잎을 물에 달이다가 절반으로 졸아들면 응저담즙을 약간 넣고 따뜻할 때 타서 복용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소변을 빼내야 하는 법이다. 만경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할 때는 단지 남성만 사용하되 인삼과 석창포를 좌약으로 써야 한다.

• 【木通湯】

• 목통탕

治諸風失音.

각종 풍증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木通、石昌蒲、防風、北梗、桑螵蛸、全蝎(焙)、直僵蚕、甘草(各炒) 並用一分, 南星(晷炮) 半兩.

목통、석창포、방풍、북길경、상표초、전갈(겉불에 말린다)、곧은 강잠、감초(각각 볶아서 쓴다) 각 1푼, 남성(습지에 싸서 살짝 굽는다) 0.5냥.

右剉散, 每服三字, 紫蘇三葉, 姜三片, 煎熟與之, 大便不通, 更加【枳殼】、【杏仁】.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복용하되 자소 3잎과 생강 3조각을 꼭 달여 복용한다. 대변을 누지 못하면 지각과 행인을 추가한다.

• 【神聖丸】

• 신성환

治驚風, 痰盛搐搦, 口眼牽引.

경풍으로 담연이 왕성하면서 축낙이 있고 입이나 눈이 한쪽으로 삐뚤어진 증상을 치료한다.

烏蛇肉(米醋浸, 炙)、直僵蚕(炒)、防風、天麻、南星(牛膽製) 各半兩, 五靈脂、代赭石(煨, 醋淬) 各二錢半, 全蝎(焙)、朱砂 各一錢.

오사육(쌀식초에 담갔다가 굽는다)、곶은 강잠(볶는다)、방풍、천마、남성(우담에 볶제한다) 각 0.5냥, 오령지、대자석(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한다) 각 2.5돈, 전갈(겉불에 말린다)、주사 각 1돈.

右爲末, 粟米糊丸, 桐子大, 每服一丸, 急驚【荊芥】湯調下, 慢驚用生姜湯.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급경풍에는 형개탕에 타서 넘기고, 만경풍에는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虎蝎丸】
- 호갈환

治急驚, 上視搐搦, 胎風涎潮.

급경풍으로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축낙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뱃속에서 풍사에 감촉되어 담연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생긴다.

虎睛 一對(酒炙), 全蝎(炒)、天麻、防風、南星(煨)、直僵蚕(炒)、烏蛇肉(酒浸焙) 各一分, 麝香 一錢.

호정 1쌍(술에 축였다가 굽는다), 전갈(볶는다), 천마、방풍、남성(젓불에 굽는다)、곧은 강잠(볶는다)、오사육(술에 담갔다가 곁불에 말린다) 각 1푼, 사향 1돈.

右爲末, 麪糊圓, 桐子大, 每服一圓, 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南星醒神散】
- 남성성신산

治驚風痰熱.

경풍으로 생긴 담열(痰熱)을 치료한다.

天南星(不去皮, 切片)、生薑(切片).

천남성(껍질을 그대로 둔 채 절편으로 썬다)、생강(절편으로 썬다).

右用竹串一條, 以【南星】並【姜】相間插定, 次用【輕粉】些子, 摻於【南星】、【生姜】片間, 風乾爲末, 每服一字, 薄荷、紫蘇泡湯調下. 大人服半錢, 或吐或汗或下, 卽病氣出也.

대나무 꼬치 1개에 남성과 생강 절편을 교대로 꽂은 다음 경분을 남성과 생강 절편 사이마다 살짝 뿌리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 가루 낸다. 한 번에 1자씩 복용하되 박하와 자소 데친 물에 타서 넘긴다. 성인은 0.5돈을 복용한다. 토하든지 땀이 나든지 설사를 하든지 간에 즉시 병 기운이 배출될 것이다.

- 【鎮心丸】
- 진심환

急驚化痰鎮心.

급경풍을 앓을 때 담연을 녹이고 가슴을 진정시킨다.

朱砂、龍齒、牛黃 各一錢, 鐵粉、琥珀、人參、伏神、防風 各二錢, 全蝎 七個(焙).

주사、용치、우황 각 1돈, 철분、호박、인삼、복신、방풍 각 2돈, 전갈 7개(겉불에 말린다).

右爲末, 煉蜜丸, 桐子大, 每服一丸, 薄荷湯調下, 如無【牛黃】, 以【牛膽南星】代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우황을 구하지 못하면 우담남성을 쓴다.

- 【木香湯】
- 목향탕

治慢風慢脾得效.

만경풍이나 만비풍을 치료할 때 효과가 좋다.

南星(濕紙煨)、白附子(焙)、天麻、木香、橘皮、白茯苓、石蓮肉 各一分, 黃耆、白朮、石菖蒲、甘草(炙) 各半分.

남성(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백부자(겉불에 말린다)、천마、목향、굴피、백복령、석련육 각 1푼, 황기、백출、석창포、자감초 각 0.5푼.

右爲龜末, 每服半錢, 姜棗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생강과 대조를 넣고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乳麝丸】

- 유사환

治驚風掣癇反折.

경풍으로 경련이 생기면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赤蜈蚣 全者一條(去觜足, 酒浸焙), 花蛇肉(酒浸, 炙)・直僵蚕(生) 各二錢, 南星(炮) 三錢, 朱砂・蝎梢 各一錢, 乳香 半錢, 麝 一字.

붉은 오공 1개(형태가 온전한 것의 부리와 다리를 제거하고 술에 담갔다가 결불에 말린다), 화사육(술에 담갔다가 굽는다)・곧은 강잠(생것) 각 2돈,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3돈, 주사・갈초 각 1돈, 유향 0.5돈, 사향 1자.

右爲末, 飛白麪糊圓, 桐子大, 每一丸, 金銀煎湯, 泡薄荷調下. ○莆陽趙公施此, 多所全活.

이상을 가루 낸 후 아주 곱고 흰 밀가루로 쏜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금이나 은 그릇에 박아 데친 물에 타서 넘긴다.

○부양(莆陽) 조 공(公)께서 이 처방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다.

- 【太一萬金丹】

- 태일만금단

治驚風痰熱.

경풍으로 생긴 담열(痰熱)을 치료한다.

代赭石(煨, 醋淬)、全蝎(焙)、朱砂、琥珀 各一錢, 南星(濕紙煨)、白附子(生)
、防風、烏蛇肉(酒浸, 炙)、天麻 各一錢, 麝 一字.

대자석(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한다)、전갈(겉불에 말린다)、주사
、호박 각 1돈, 남성(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백부자(생것)、
방풍、오사육(술에 담갔다가 굽는다)、천마 각 1돈, 사향 1자.

右爲末, 粟米糊圓, 桐子大, 每服壹圓, 急驚薄荷湯調下, 初傳慢驚尙有陽證, 用
【人參】湯.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
환씩 복용하되 급경풍에는 박하탕에 타서 넘기고, 만경풍으로 변한 초기
라 양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삼탕에 타서 넘긴다.

• 【香餅子】

• 향병자

治慢驚初傳, 涎潮昏搐.

만경풍 초기에 담연을 주기적으로 토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축낙이
생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全蝎 拾四个(薑汁浸), 麻黃(纏匝, 慢火炙乾, 又蘸薑汁又炙, 凡參次)、花蛇肉
、烏蛇肉(並酒浸焙)、直僵蚕(炒) 各壹分, 白附子(焙)、人參、天麻、防風 各
壹錢, 乳香 半錢, 麝 一字.

전갈 14개(생강즙에 담근다), 마황(천으로 감싼 채 약한 불에 구워 말린다. 그리고 나서 생강즙을 축이고 다시 약한 불에 구워 말린다. 이렇게 3차례 반복한다), 화사육, 오사육(이상은 모두 술에 담갔다가 겉불에 말린다), 곧은 강잠(볶는다) 각 1푼, 백부자(겉불에 말린다), 인삼, 천마, 방풍 각 1돈, 유향 0.5돈, 사향 1자.

右爲末, 用【南星末】煮糊圓, 桐子大, 捏作餅, 日乾, 每服壹餅, 薄薑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남성 가루로 쏜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은 다음 눌러서 전병처럼 만들고 벌레에 말린다. 한 번 복용할 때 1개씩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至聖保命丹】

● 지성보명단

治驚風搐掣, 胎驚夜啼.

경풍으로 생긴 축닉이나 경련 및 태경으로 생긴 야제를 치료한다.

青色全蝎 拾肆个, 防風、天麻、白附子、蟬殼、直僵蚕(炒) 各貳錢, 南星(炮) 參錢, 麝 半錢.

청색 전갈 14개, 방풍, 천마, 백부자, 선각, 곧은 강잠(볶는다) 각 2돈,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3돈, 사향 0.5돈.

右爲末, 粳米飯圓, 桐子大, 朱砂衣, 每壹圓, 薄荷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쌀밥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1환씩 박하탕에 타서 넘긴다.

- 【蟾蜍散】
- 섬갈산

治慢驚身熱痰滯.

만경풍으로 몸통이 뜨거우면서 담연이 목을 막은 증상을 치료한다.

大乾蟾 壹个(酥塗炙黃), 直僵蚕、蟬殼、蝎尾(各焙)、白附子(微炮)、五靈脂、蘆薈、琥珀 各壹分, 朱砂 壹錢, 麝 半錢.

건섬 큰 것 1개(연유를 발라 누렇게 굽는다), 곤은 강잠、선각、갈미(각각 곁불에 말린다)、백부자(습지에 싸서 살짝 굽는다)、오령지、노회、호박 각 1푼, 주사 1돈, 사향 0.5돈.

右爲末, 每服半錢, 【防風】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방풍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快脾湯】
- 쾌비탕

治慢驚, 脾困不食, 和胃祛風.

만경풍으로 비기(脾氣)가 허약해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비기를 회복시키고 풍사를 제거하는 약이다.

大南星 壹兩(剉如碁子塊, 用【生薑】壹兩切, 【川厚朴】壹兩剉碎, 水參升同煮, 令【南星】透, 去【薑朴】, 只用【南星】, 切, 焙), 白茯苓 半兩, 木香、人參、天麻 各貳錢半, 全蝎 柒个(焙).

대남성 1냥(바둑알처럼 썬다. 생강 1냥(절편으로 썬다)과 천후박 1냥(썰어서 뺀다)과 함께 물 3되에 넣고 삶는다. 남성에 생강과 천후박이 스며들면 생강과 천후박을 건져 내고 남성만 사용한다. 절편으로 썰고 곁불에 말린다), 백복령 0.5냥, 목향、인삼、천마 각 2.5돈, 전갈 7개(곁불에 말린다).

右爲末, 每服半錢, 甘草生薑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감초와 생강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助胃膏】
- 조위고

治慢風吐瀉, 不進乳食.

만경풍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白朮、石蓮肉 各貳錢, 丁香、檀香、舶上茴香(炒)、白豆蔻、木香、甘草(炙) 各壹錢.

인삼, 백출, 석련육 각 2돈, 정향, 단향, 수입산 회향(볶는다), 백두구, 목향, 자감초 각 1돈.

右爲末, 粟米糊圓, 桐子大, 每壹圓, 陳米飲調下, 脾困不醒, 用【冬瓜子仁】煎湯.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대거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환씩 진창미로 쏜 미음에 타서 넘긴다.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동과자인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沉附湯】
- 침부탕

治慢脾風, 厥冷吐瀉.

만비풍으로 사지 끝이 차가우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沉香、丁香、木香、黑附子(炮)、白附子(焙)、全蝎(焙)、藿香、天麻 各等分.

침향, 정향, 목향, 흑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백부자(겉불에 말린다), 전갈(겉불에 말린다), 곽향, 천마 각각 같은 양.

右爲末, 每半錢, 炙甘草、生薑煎湯調下. 身溫則表【附子】.

이상을 가루 낸다. 0.5돈씩 자감초와 생강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몸이 따뜻해지면 부자를 빼고 사용한다.

- 【鎮痰圓】
- 진담원

治諸風頑痰, 喉風纏痺.

각종 풍증으로 찢든한 담연이 생긴 증상이나 전후풍을 치료한다.

北礬(火煨枯, 水飛過)·直僵蚕(米醋浸焙) 各一分, 大南星(切片, 濃皂角水浸一宿, 焙) 二分.

북백반(불에 달구어 수분을 날린 후 수비하여 쓴다)·곶은 강잠(쌀식초에 담갔다가 곶불에 말린다) 각 1푼, 대남성(절편으로 썰고 조각을 진하게 우린 물에 하룻밤 담가 놓은 다음 곶불에 말린다) 2푼.

右爲末, 稀糕糊圓, 麻子大, 每服五圓, 姜湯送下, 喉風用【皂角】水研開灌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설기떡으로 묽게 쏜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환씩 복용하되 생강탕으로 넘긴다. 전후풍에는 조각 우린 물에 갈아서 입을 벌리고 흘려 넣는다.

- 【利痰丸】
- 이담환

治諸風諸癰痰熱.

각종 풍증이나 간질로 담열(痰熱)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圓白半夏(生).

등글고 흰 반하(생것).

右爲末, 旋入薑汁略拌鬆, 次以香潤【五靈脂】研細, 【全蝎】焙爲末, 各壹錢, 【牛黃涼膈丸】二錢夾和, 研揉得所圓, 如麻子大, 每服四五圓, 薄荷、生薑泡湯送下. 隨大小增減用.

이상을 가루 낸 후 곧바로 생강즙을 넣고 대충 섞는다. 그다음 향과 윤기가 있는 오령지(곱게 간다)와 전갈(겉불에 말려 가루 낸다) 각 1돈과 우황양격환 2돈을 잘 섞는다. 이것을 손가락으로 비벼서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4 - 5환씩 박하와 생강 데친 물로 넘긴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분량을 가감하여 쓴다.

慢驚慢脾, 危惡證候, 藥力不到者, 但看兩脚面中間陷處, 有太衝脉, 卽灸【百會穴】. 其穴直取前後髮除折中, 橫取兩耳尖折中, 在頭之中心端正旋毛處是也. 如有雙旋, 及旋毛不正者非, 所捏艾炷約如小麥許, 但三五壯而止, 灸後仍與醒脾之劑.

만경풍과 만비풍은 위험한 병이다. 약효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쪽 발등 중앙의 움푹한 곳을 살피 태충맥을 살피본 다음 즉시 백회혈에 뜸을 떼야 한다. 이 혈은 전후발제 중간 지점을 세로로 이은 선과 양쪽 귀 끝의 중간 지점을 가로로 이은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머리 정중앙에 가마가 있

는 곳이다. 쌍가마거나 가마가 치우친 경우에는 가마가 백회혈은 아니다.
쑥싹지를 꼬아서 소맥(小麥) 크기로 만든 다음 5장씩 3번 뜸 뜨고 중지한
다. 뜸을 뜬 후에는 비위의 기운을 깨어나게 하는 약을 먹인다.

附方

부방

- 加味大醒脾散
- 가미대성비산

治小兒慢脾風, 內虛昏迷不醒.

소아가 만비풍으로 기혈이 허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去芦)、白附子(炮)、天麻(煨)、甘草(炙)、全蝎(去毒, 炒)、石蓮肉(去
心)、茯苓(去皮)、木香、白朮(去蘆)、石菖蒲(細節)、橘紅(去白)、山藥(炒)
、天南星(去臍, 炮)、肉荳蔻(麪裹煨, 去油) 各一錢, 縮砂(去殼) 二錢半, 丁香
一錢半.

인삼(노두를 제거한다)、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젓불에 굽
는다)、자감초、전갈(독성을 제거하고 볶아서 쓴다)、석련육(심을 제거
한다)、복령(겉질을 제거한다)、목향、백출(노두를 제거한다)、석창포
(마디가 짧은 것)、굴홍(흰 부분을 제거한다)、산약(볶는다)、천남성(배

꼭 부분을 제거하고 습지에 싸서 굽는다)·육두구(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잣불에 익힌 후 기름을 제거한다) 각 1돈, 축사(껍질을 제거한다) 2.5돈,
정향 1.5돈.

右咬咀, 用生姜三片, 棗一箇, 去核同煎, 食前服. 回陽加附子, 去臍皮尖, 炮白
朮.

이상을 거칠게 잘라 생강 3조각과 대조 1개(씨를 제거한다)를 넣고 함께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양기를 회복시키려면 부자(배꼽 부분과 껍질과 꼭
지를 제거한다) 백강(습지에 싸서 굽는다)을 추가한다.

客忤

객오(客忤)

客忤方論

객오에 대한 설명

客忤者, 小兒神氣嫩弱, 外邪客氣, 獸畜異物, 暴觸而忤之. 其候, 口吐青黃白沫, 水穀鮮雜, 面色變易, 喘息腹痛, 反側痙瘓, 狀似驚癇, 但眼不上竄耳. 脉來弦急而數, 視其口中, 懸癰左右, 若有小小腫核, 卽以竹針刺潰之, 或以爪摘之. 治法, 辟邪正氣散, 驚定心, 延久則難爲力也. [大凡客忤中惡, 急作醋炭, 仍以【降眞香】·【皂角】熏之.]

객오(客忤)란 소아의 기운이 허약하여 외부의 사기나 동물이나 괴이한 것에 갑자기 노출되어 거부하는 증상이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입으로 푸르거나 누렇거나 흰 거품을 토하거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거나, 낮빛이 안 좋게 바뀌거나, 숨을 헐떡거리며 배를 아파하거나, 데굴데굴 구르며 경련한다. 경간(驚癇)과 상태가 비슷하지만 눈을 위로 치켜뜨지는 않는다. 맥이 시작될 때는 현급(弦急)하면서 삭(數)하다. 입속을 보아 목젖 좌우에 아주 작은 종기가 보인다면 즉시 대나무침으로 터뜨리거나 손톱으로 긁어내야 한다. 치료법은 벽사정기산을 써서 놀란 마

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시일을 끌면 손을 쓰기 어렵게 된다. [대체로 객오와 중악(中惡)에는 신속히 초탄(醋炭)을 마련한 다음에 곧바로 강진향과 조각으로 훈증해야 한다.]

客忤證治

객오의 증상과 치료법

- 【雄射散】
- 응사산

治客忤腹痛危急.

객오로 배를 아파하면서 위급한 증상을 치료한다.

雄黃 一錢, 乳香 半錢, 麝 一字.

웅황 1돈, 유향 0.5돈, 사향 1자.

右爲細末, 每一字, 刺雞冠血調灌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1자씩 계관혈(雞冠血)에 타서 입에 흘려 넣는다.

- 【蘇合香丸】 [方見咳嗽門]
- 소합향원 [처방은 해수문에 나온다]

用薑湯調灌, 次用【鼓】三合, 水濕擣爲圓, 如雞子大, 以摩兒顙上及足心各五六遍, 次摩臍心及上下, 良久劈開, 自有毛即擲之.

생강탕에 타서 입에 흘려 넣는다. 그다음 물에 불린 두서 3홉을 찢어 계자(雞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이것으로 아이의 솟구멍과 족심(足心)을 각각 5 - 6번씩 문지른 다음 배꼽과 그 주위에 문지른다. 얼마 후에 환을 찢개보면 당연히 톨이 있을 것이니 즉시 뽑아버린다.

- 【射香飲】
- 사향음

麝香少許, 研細, 乳汁調, 塗口中, 仍以母衣覆其身, 即愈.

사향 약간을 곱게 갈고 젖에 개어 입속에 바른 다음 어머니의 옷을 몸에 덮고 있으면 금세 좋아진다.

- 【犀角散】
- 서각산

治客忤驚啼壯熱.

객오로 놀란 채 울면서 열이 심한 경우를 치료한다.

天麻、犀角、麥門冬、釣藤、朱砂 各一錢, 鐵粉、雄黃 半錢, 麝 少許.

천마、서각、맥문동、조구등、주사 각 1돈, 철분、웅황 0.5돈, 사향 약간.

右爲末, 每服半錢, 以金銀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그릇에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安神丸】

- 안신환

生犀末、人參、茯苓、菖蒲、朱砂、雄黃 等分.

생서각(가루)、인삼、복령、창포、주사、웅황 각각 같은 양.

右爲末, 研桃仁膏爲圓, 如麻子大, 每三圓, 紫蘇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고약처럼 간 도인(桃仁)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
다. 한 번에 3환씩 자소탕으로 넘긴다.

- 【伏龍肝方】

- 복룡간 처방

竈中黃土和醋, 搗圓, 黍子大, 摩兒頭及五心.

아궁이 속의 황토에 식초를 섞어 으갠 후 구자(黍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이것을 아이의 머리와 오심(五心) 부위에 문지른다.

- 【千金龍膽湯】 [方見胎驚風門]

- 천금용담탕 [처방은 태경풍문에 나온다]

- 【馬尾方】
- 마미방

治中馬汗氣臭忤, 或馬鳴驚忤.

말의 땀 냄새에 놀라거나 말 울음소리에 놀란 경우를 치료한다.

馬尾燒煙熏兒面, 頻熏以瘥爲度.

말꼬리 태운 연기로 아이의 얼굴을 훈증한다. 여러 번 훈증하면서 나을 때까지 반복한다.

驚風雜治

경풍의 여러 가지 치료법

驚積方論

경적에 대한 설명

驚積者, 受驚日久而積成之. 其狀, 額上有汗, 喘息, 煩渴, 潮熱往來, 肚皮有熱, 睡中覺腹內有物跳動, 瀉下如白脂、豆沙是也. 治法, 量輕重而疎導之, 仍與調氣和胃取愈. 大凡小兒腹肚, 或熱或脹或硬, 皆爲內實, 法當疏利.

경적이란 놀란 후 여러 날이 지나서 놀람이 쌓인 것이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마에 땀이 나거나, 숨을 헐떡이거나, 번갈아 생기거나, 조열이 오르내리거나, 뱃가죽이 뜨겁거나, 잘 때 뱃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거나, 흰 기름기나 팔 앙금 같은 설사를 한다. 치료법은 아이의 몸집에 따라 대변으로 빼내는 하법을 쓴 다음 기운을 조리하고 위기(胃氣)를 평화롭게 만드는 약을 써서 좋아지게 해야 한다. 대체로 아이의 배가 뜨겁거나 똥똥해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은 모두 뱃속에 실증이 있기 때문이니 당연히 대변으로 빼내는 방법을 써야 한다.

驚積證治

경적의 증상과 치료법

- 【辰砂膏】
- 진사고

疎利驚積. [方見風禁門]

경적을 대변으로 빼낸다. [처방은 풍금문에 나온다]

- 【靑龍圓】
- 청룡원

治驚積有熱.

경적으로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靑黛、伏神、蘆薈、南星(炮) 各一錢, 麝 少許, 輕粉、巴霜 一字, 全蝎 三个 (焙).

청대、복신、노회、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사향 약간, 경분、
파두상 1자, 전갈 3개(겉불에 말린다).

右先將巴豆研如泥, 次入諸藥研, 令極細圓如粟米大, 【朱砂】衣, 每服一圓, 薄荷湯送下.

이상에서 우선 파두를 질게 갈고, 그다음 나머지 약을 넣고 간다. 이것을 속미 크기처럼 아주 작게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탕에 넘긴다.

- 【朱銀圓】

- 주은원

治驚積. [方見胎驚風門]

경적을 치료한다. [처방은 태경풍문에 나온다]

天癇方論

천조경풍에 대한 설명

天癇, 壯熱驚悸, 眼目翻騰, 手足抽掣, 或啼或笑, 喜怒不常, 甚者爪甲皆青, 如祟之狀. 盖由乳母酒肉過度, 煩毒之氣入乳, 遄復乳兒, 遂使心肺生熱, 痰鬱氣滯, 加之外挾風邪, 致有此耳. 治法, 解利風熱取愈.

천조경풍은 고열이 나면서 경계(驚悸) 증상이 있거나, 눈알이 뒤집히거나, 손발이 경직되거나,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감정이 일정하지 않으며, 심하면 손발톱이 모두 파래지면서 귀신 들린 듯한 형상이 된다. 아마도 유모가 술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먹어서 독기가 젖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곧바로 아이에게 젖을 먹인 일 때문인 듯하다. 그렇게 되면 심장과 폐장

에 열이 생기고 담연이 뭉치면서 기운의 흐름이 막히게 만드는데 그 상태에서 외부의 풍사까지 침범하면 이 병에 걸리는 것이다. 치료법으로는 풍열을 풀어주고 배출시키면 좋아지게 된다.

天癇證治

천조경풍의 증상과 치료법

- 【釣藤飲】
- 조등음

釣藤、白伏苓 各半兩, 大黃(濕紙裹煨) 二錢半, 防風、朱砂、蟬殼、羌活、獨活、青皮、甘草(炙) 各二錢半.

조구등、백복령 각 0.5냥, 대황(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2.5돈, 방풍、주사、선각、강활、독활、청피、자감초 각 2.5돈.

右爲龜末, 每服一錢, 姜棗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복용하되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保命丹】
- 보명단

全蝎(焙)、蟬殼、直僵蚕(微炒)、天麻、犀角、天漿子(有子者)、白附子、南星(炮)、青黛、朱砂、川姜黃 各等分, 麝 少許.

전갈(겉불에 말린다)、선각、곶은 강잠(살짝 볶는다)、천마、서각、천장자(새끼가 들어있는 것)、백부자、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청대、주사、천강황 각각 같은 양, 사향 약간.

右爲末, 雄猪膽汁爲圓, 菉豆大, 先將井水調開一圓, 入鼻令嚏, 次以【釣藤】煎湯調服.

이상을 가루 낸 후 웅저담즙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우선 우물물을 타서 1환을 풀고 그것을 콧속에 넣어 재채기하게 한다. 그다음 조구 등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驚風內癰方論 [附盤腸氣虫痛]

경풍으로 생긴 내조에 대한 설명 [반장통과 충통 포함]

驚風內癰, 腹痛多啼, 唇黑囊腫, 偃僂反張, 眼內有紅筋班血者, 是盖寒氣壅結, 兼驚風而得之. 又盤腸氣與虫證, 亦令腹痛多啼, 偃僂相若, 但盤腸氣痛, 則腰曲乾啼, 額上有汗, 是小腸爲冷氣所搏然爾, 虫痛則嘔吐清沫, 痛有去來, 是疳化爲蛔, 臟腑留滯然爾. 內癰用調氣疎風鎮驚之劑, 盤腸氣用溫和調氣之劑, 虫證用殺虫之劑, 條列于後, 請詳審之.

경풍으로 생긴 내조는 복통으로 계속 울면서 입술이 까맣게 되고 낭종이 생기거나 등이 굽거나 뒤로 젖혀지거나 눈에 붉은 핏줄이 생기면서 충혈 되는 증상이다. 아마도 한기가 몸속에서 뭉쳤을 때 경풍까지 걸려 생긴 듯하다. 이와 별개로 반장통과 충통이란 것도 복통으로 계속 울면서 등이 굽는 증상이 경풍으로 생긴 내조와 비슷하다. 다만 반장통은 허리를 굽힌 채 눈물 없이 울면서 이마에 땀이 맺히는데 이는 소장이 냉기에 맞아서 생긴 것이다. 충통은 투명한 거품을 토하고 통증이 간헐적인데 이는 감질(痙疾)이 회충으로 변하여 특정 오장육부에 정체되어 생긴 것이다. 내조에는 기운을 조리고 풍사를 흠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을 써야 하고, 반장통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조리하는 약을 써야 하며, 충통에는 충을 없애는 약을 써야 한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에 붙이니 부디 자세히 살피시길 바란다.

驚風內癰證治

경풍으로 생긴 내조의 증상과 치료법

- 【乳香圓】
- 유향원

治驚風內癰, 腹痛驚啼.

경풍으로 생긴 내조로 배가 아프면서 놀란 듯이 우는 경우를 치료한다.

乳香 半錢, 沒藥、沉香 各一錢, 蝎梢 十四个, 雞心檳榔 一錢半.

유향 0.5돈, 몰약·침향 각 1돈, 갈초 14개, 계심빈랑 1.5돈.

右爲末, 煉蜜圓, 桐子大, 每服二圓, 【菖蒲】、【釣藤】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환씩 복용하되 창포와 조구등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木香圓】

- 목향원

治驚風內癰, 肚痛驚啼.

경풍으로 생긴 내조로 배가 아프면서 놀란 듯이 우는 경우를 치료한다.

沒藥、木香、舶上茴香(炒)、釣藤 等分, 全蝎、乳香 各半.

몰약·목향·수입산 회향(볶는다)·조구등 각각 같은 양, 전갈·유향 각 절반의 양.

右先將【乳香】、【沒藥】別研, 次入諸藥末和畢, 取【大蒜】少許研細, 和圓桐子大, 日乾, 每二圓, 【釣藤】湯下.

이상에서 우선 유향과 몰약을 따로 갈아 둔다. 그다음 나머지 약재 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잘게 간 마늘을 약간 넣고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어 벌에 말린다. 한 번에 2환씩 조구등 달인 물로 넘긴다.

- 【白豆蔻散】
- 백두구산

治盤腸氣痛.

반장통을 치료한다.

白豆蔻仁、縮砂仁、青皮、陳皮、甘草(炙)、香附子、蓬莪朮 各等分.

백두구인、축사인、청피、진피、자감초、향부자、봉아출 각각 같은 양.

右爲末, 每服一錢, 紫蘇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복용하되 자소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蘿菔子散】
- 나복자산

治盤腸氣痛.

반장통을 치료한다.

蘿菔子炒黃, 不拘多少.

나복자를 누렇게 볶아 분량에 상관없이 쓴다.

右爲末, 每服半錢, 【辣桂】煎湯調下, 或只入【蘇合香圓】, 則用薑湯調下.

나복자를 가루 낸 후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날계(辣桂)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혹은 소합향원에 나복자를 추가하여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化虫圓】
- 화충원

治虫痛.

충통을 치료한다.

蕪荑、川鶴虱、雞心檳榔、乾蝦蟇(炙焦) 各一分, 蘆薈 半分.

무이、천학슬、계심빈랑、건하마(까맣게 굽는다) 각 1푼, 노회 0.5푼.

右爲末, 【雄猪膽汁】爲圓, 麻子大, 每服五圓, 陳米飲下, 或【史君子】煎湯送下.

凡虫月首則頭向上, 凌晨可服藥.

이상을 가루 낸 후 웅저담즙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환씩 복용하되 진창미로 쏜 미음으로 넘기거나 사군자 달인 물로 넘긴다. 모든 충은 초하루에 머리를 위로 향하는 법이니 초하루 이른 새벽에 복용해야 한다.

- 【安息香圓】
- 안식향원

治內癰、盤腸氣癰、虫痛通用.

내조、반장통、충통을 두루 치료한다.

安息香、桃仁(去皮尖, 炒)、蓬莪朮(炮)、史君子肉 各半兩, 阿魏 一錢, 茴香(炒)、全蝎 各一分.

안식향、도인(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봉아출(습지에 싸서 굽는다)、사군자(과육) 각 0.5냥, 아귀 1돈, 회향(볶는다)、전갈 각 1푼.

右【阿魏】并【安息香】, 以酒少許, 就湯瓶口上, 以蓋盛, 蒸溶去沙, 旋入【桃仁】同研, 次入諸藥末, 煉蜜圓, 桐子大, 每一圓, 生薑湯調下.

이상에서 아귀와 안식향은 술 약간과 함께 찻주전자에 넣고 잔에 가득 따라 약재를 녹이면서 모래를 제거한다. 곧바로 도인을 넣고 한꺼번에 갈고, 그다음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茴香散】
- 회향산

治小兒臍下氣塊癰痛.

배꼽 아래가 뭉치면서 내조로 통증이 있는 소아를 치료한다.

芸臺子(炒)、蓬莪朮、茴香(炒)、青皮、甘草 各一分, 辣桂、木香 各半分.

운대자(볶는다)、봉아출、회향(볶는다)、청피、감초 각 1푼, 날계、목향 각 0.5푼.

右爲末, 每服半錢, 塩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염탕에 타서 넘긴다.

- 【芎歸散】
- 궁귀산

治內癰胎寒, 腹痛軀啼.

내조나 태경으로 배가 아프면서 구부린 채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官桂、當歸、川芎、香附 各一分, 川白朮、木香、甘草(炒) 各半分.

관계、당귀、천궁、향부자 각 1푼, 천백강、목향、감초(볶는다) 각 0.5푼.

右爲末, 每半錢, 白水煎, 乳食前服.

이상을 가루 낸 후 0.5돈씩 끓인 물에 달여 젖이나 음식을 먹기 전에 복용한다.

- 【養臟湯】
- 양장탕

治內癰軀啼, 挾冷作痛. 內癰一名癰腸.

내조로 몸을 굽히고 울거나 냉기로 배 아파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내조는 조장(癰腸)이라고도 한다.

當歸、沉香、木香、桂、川芎 各半兩, 丁香 二錢.

당귀、침향、목향、계、천궁 각 0.5냥, 정향 2돈.

右爲末, 每一錢, 用薑煎, 食前服.

이상을 가루 낸 후 1돈씩 생강 달인 물로 식전에 복용한다.

附方

부방

- 【釣藤飲】
- 조등음

釣藤、人參(去芦)、犀角 各二錢半, 甘草(炙) 二錢半, 全蝎(去毒, 焙) 半錢, 天麻(煨) 一分.

조구등、인삼(노두를 제거한다)、서각 각 2.5돈, 자감초 2.5돈, 전갈(독성을 제거하고 곁불에 말려 쓴다) 0.5돈, 천마(잣불에 굽는다) 1푼.

右咬咀, 水煎, 不拘時服.

이상을 거칠게 잘라 물에 달이고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中風

중풍



中風方論

중풍에 대한 설명

小兒中風者, 以其血氣未定, 寒溫失調, 內則盛熱蘊蓄, 外則腠理虛開, 故風邪乘其外虛而暴中之. 其狀昏不知人, 壯熱狂燥, 搐掣氣麤, 口噤涎潮是也. 心中風, 則僵臥不能傾側, 發熱失音, 其舌焦赤, 若汗流唇赤者, 可治, 灸【心俞】, 或唇間白黑青黃, 乃心壞爲水, 或面目亭亭, 時時悚動者並不治. 肝中風, 則踞坐不得低頭, 左脇疼痛, 諸筋攣急, 頭目瞤動, 上視多怒, 其目青, 若遠兩目, 連額微青, 唇青面黃者, 可治, 灸【肝俞】, 或大段青黑, 其目一黃一白者, 不治. 腎中風, 則踞坐面浮, 腰脊痛引小腹, 其耳黑, 若兩脇左右未有黃色起者, 可治, 灸【腎俞】, 或脇間如黃土, 鬢髮直而齒黃赤者, 不治. 肺中風, 則僵臥胃滿, 喘息咳嗽, 燥悶汗出, 其鼻白, 若目下至鼻四圍及口間白色者, 可治, 灸【肺俞】, 或色帶黃, 乃肺壞爲血, 併手尋衣縫者, 不治. 脾中風, 則踞坐腹滿, 皮肉瞤動, 四肢不收, 其唇黃, 若一身通黃, 嘔吐鹹汁者, 可治, 灸【脾俞】, 或手足青而厥冷者, 不治. 凡人爲風邪所中, 皆從背上五臟俞入之, 風入於頤頰之筋, 則口喎而牙噤, 風塞於咽喉聲音之門, 則語不出而失音, 風與氣搏, 氣以痰隔, 則喉間如鼾鼕之響. 是風也, 始入於腠膚, 次達於經絡而搏於筋脉, 筋得寒則拘急攣痛, 得熱則緩弛不隨, 風挾寒邪, 卽攣急也, 風挾熱氣, 卽緩弛也, 挾寒而拘攣, 脉必浮緊, 挾熱而緩弛, 脉必浮洪. 寒者, 與【小續命湯】, 熱者, 與【追風毒剉散】之類. 大抵脉浮者, 病在表, 脉實者, 病在裏, 脉促者, 病在上. 在表則發散之, 在裏則疏導

之, 促於上而胃膈澎湃者, 湧吐之. 若虛寒證候, 則【附子】、【川烏】, 又不可闕. 古人治法, 雖以灼艾爲本, 亦須消息權度而投劑焉. 此法, 自大人方論演觸而得之, 若遇大人中風, 卽以此推也. 雖然風寒暑濕皆能中人, 况又有因氣而中者? 人之驟病, 莫若中風, 一時倉卒, 若未能精審, 且先與下氣豁痰, 盖諸中皆因痰鬱氣滯而作, 通關以還, 急以【南星】〔南星治卒中, 下氣豁痰〕、【生薑】、【木香】煎湯, 和【蘇合香圓】灌下. 牙緊者, 【南星】、【細辛】末之, 入【麝】、【烏梅肉】點擦, 自開. 進藥之後, 痰消氣下, 病勢稍蘇, 卽仔細辨認五臟外證而調理之. 至若口開手散, 虛氣龐大, 喉間鼾鼾, 瞪眼合眼, 瀉血遺尿, 或面色如緋, 或面色黧慘, 或汗出如珠如油, 皆惡候也.

又一證, 小兒多因傷風咳嗽, 不能發散, 遂成肺風, 其候喘促涎潮, 面色青黃, 目能認人, 口不能言, 如此者, 當以【桑白皮】、【紫蘇】、【麻黃】、【阿膠】主之, 仍灸【肺俞】取愈.

○大人小兒, 凡病頭面冷如按瓜, 或鼻冷不回, 或汗出髮潤, 其身如洗, 皆不可救.

소아의 중풍은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거나 온도가 적절하지 못하여 몸 안으로는 왕성해진 열기가 쌓이고 몸 밖으로는 주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풍사가 주리의 빈틈을 타고 갑자기 침범하여 생기는 것이다. 증상으로는 정신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고열로 미친 듯이 날뛰거나 축낙이나 경련이 생기면서 숨이 거칠어지거나 입을 악다물면서 담연을 주기로 토하는 것이 있다. 심장이 풍사에 맞으면 쓰러진 채 돌아눕지

못하고 열이 나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혀가 검붉게 변한다. 땀을 흘리면서 입술이 붉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으니 심수에 땀을 떠야 한다. 흑어나 입술이 희거나 검거나 푸르거나 누렇거나(이는 심기心氣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눈이 튀어나오거나 때때로 덜덜 떠는 경우는 모두 치료할 수 없다. 간장이 풍사에 맞으면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숙이지 못하고 왼쪽 옆구리가 아프며 온갖 힘줄이 당기고 머리와 눈이 떨리며 눈을 치켜뜨면서 계속 성내고 눈 주위가 퍼렇다. 양쪽 눈 주위부터 이마까지 살짝 퍼렇고 입술도 퍼렇고 낮빛이 누런 경우는 치료할 수 있으니 간수에 땀을 떠야 한다. 흑어나 몸의 대부분이 청흑색이거나 눈이 한쪽은 누렇고 한쪽은 창백한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신장이 풍사에 맞으면 쪼그려 앉으려 하고 얼굴이 푸석하며 허리와 등줄기가 아프면서 아랫배까지 당기고 귀가 까맣다. 양쪽 옆구리 부근이 누렇게 되지 않은 경우는 치료할 수 있으니 신수에 땀을 떠야 한다. 흑어나 옆구리 부근이 황토색 같거나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이빨이 누렇거나 붉은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폐장이 풍사에 맞으면 쓰러진 채 가슴이 뻥뻥해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콜록이며 몹시 답답해 하면서 땀을 흘리고 코가 창백하다. 눈 아래부터 코 주위까지와 입 부근이 창백한 경우는 치료할 수 있으니 폐수에 땀을 떠야 한다. 흑어나 낮빛이 누렇거나(이는 폐기肺氣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손으로 옷고름을 문지르는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비장이 풍사에 맞으면 쪼그려 앉으려 하고 배가 뻥뻥해지며 살이 떨리고 사지를 가누지 못하여 입술이 누렇다. 몸 전체가 누렇고 짠 물을 토하는 경우는 치료할 수 있으

니 비수에 뜰을 떠야 한다. 혹여나 손발이 퍼렇고 손발 끝이 찬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사람이 풍사에 맞으면 모두 등의 오장수로 들어간다. 풍사가 뺨의 힘줄로 들어가면 구안와사나 구금(口禁)이 되고, 풍사가 목구멍의 소리 나는 곳을 막으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풍사가 오장의 기와 부딪혀서 담연이 목구멍을 막으면 목에서 그르렁 소리가 난다. 이런 풍사는 애초에 피부로 들어간 다음 경락을 타고 근맥을 침범한다. 근맥은 한사에 감촉되면 경직이나 경련으로 통증이 생기고, 열사에 감촉되면 몸에 힘이 빠지거나 사지를 가누지 못하게 된다. 풍사가 한사와 만나면 힘줄이 당기면서 경련이 나고, 풍사와 열사가 만나면 힘이 빠지고 늘어진다. 한사와 만나서 당기면서 경련이 나는 경우에는 맥이 필시 부긴(浮緊)할 것이고, 열사와 만나서 힘이 빠지고 늘어지는 경우에는 맥이 필시 부홍(浮洪)할 것이다. 중풍에 한사가 겹친 경우에는 소속명탕을 복용시키고, 열사가 겹친 경우에는 추풍독좌산 같은 약을 복용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맥이 부(浮)한 경우는 병사가 표부에 있고, 맥이 실(實)한 경우는 병사가 이부에 있고, 맥이 축(促)한 경우는 병사가 상부에 있다. 병사가 표부에 있으면 땀으로 발산시켜야 하고, 이부에 있으면 대소변으로 빼내야 하고, 상부에 있으면서 가슴이 똥똥한 경우에는 토하게 해야 한다. 허한(虛寒)한 증상에는 부자와 천오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옛 현인들의 치료법이 뜰을 근본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반드시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면서 약도 써야 한다. 이 방법은 성인의 병증 설명을 연구하여 깨우친 것이니 성인의 중풍을 마주하면 이 내용으로 미루어 치료해

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한서습(風寒暑濕)의 사기가 모두 사람을 침범할 수 있으나 기 때문에 중풍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급병에는 중풍이 가장 심하니 한 순간에 너무 급박하여 자세히 살피지 못 하더라도 먼저 기운을 내리고 담연을 뚫는 약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풍、중한、중서、중습 모두 담연이 뭉치고 기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막힌 곳을 뚫어서 돌려 놓고 급히 남성(남성은 졸증을 치료하여 기운을 내리고 담연을 뚫는다)과 생강과 목향 달인 물에 소합향원을 녹여서 입에 흘려 넣어야 한다. 아관긴급에는 남성과 세신을 가루 낸 것에 사향을 넣고 오매육으로 찌어 환부에 바르면 자연히 입을 연다. 약을 먹인 후에는 담연이 사그라들고 숨이 차분해지면서 병세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곧 이어 오장에 따른 증상을 자세히 살피면서 조리하면 된다. 입을 벌리면서 손이늘어지거나 헛기침을 크게 하거나 목구멍에서 그르렁 소리가 나거나 눈을 부릅뜨거나 감거나 혈변을 보거나 오줌을 지리는 경우, 혹은 낮빛이 붉은 비단 같거나 참혹하게 어둡거나, 혹은 땀이 구슬이나 기름처럼 나오는 경우는 모두 나쁜 징후이다.

이와 별개의 증상이 있다. 소아는 대부분 상풍(傷風)으로 기침을 하다가 기침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면 폐풍(肺風)이 된다. 숨을 헐떡이면서 담연을 주기적으로 토하거나 낮빛이 푸르거나 누렇거나 눈을 뜨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상백피、자소、마황、아교로 치료한 다음 이어서 폐수에 뜸을 뜨면 병세가 좋아진다.

◦성인이든 소아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머리카락이나 얼굴이 차가워 오이를 만지는 듯하거나 콧가 차가운 채 다시 따뜻해지지 않거나 땀이 나면서 머리카락이 축축하여 온몸을 씻은 듯한 경우는 모두 치료하지 못한다.



五臟俞穴

오장의 수혈

【心俞】二穴, 在背上第五椎骨下兩傍各一寸半.

【肝俞】二穴, 在背上第九椎骨下兩傍各一寸半.

【腎俞】二穴, 在背上第十四椎骨下兩傍各一寸半.

【肺俞】二穴, 在背上第三椎骨下兩傍各一寸半.

【脾俞】二穴, 在背上第十一椎骨下兩傍各一寸半.

심수 2혈 : 등의 제5추 아래 양쪽으로 각 1.5치이다.

간수 2혈 : 등의 제9추 아래 양쪽으로 각 1.5치이다.

신수 2혈 : 등의 제14추 아래 양쪽으로 각 1.5치이다.

폐수 2혈 : 등의 제3추 아래 양쪽으로 각 1.5치이다. 비수 2혈 : 등의 제11추 아래 양쪽으로 각 1.5치이다.

小兒艾炷, 如小麥許, 但三五壯而止. 取分寸法, 大人小兒, 男取左手, 女取右手, 比量中指第一節爲一寸. 見千金翼方, 第一節者, 指根是也.

소아에게 뜸 뜸 쑥심지는 소맥(小麥)만 하게 만들어서 5장씩 3번만 뜨고 중지해야 한다.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인이든 소아든 남자는 왼손에서 여자는 오른손에서 중지의 첫 번째 마디를 1치로 삼아

야 한다. 《천금익방》을 보니 '첫 번째 마디'와 '손가락의 뿌리 쪽(손바닥 쪽)'이라는 말이 이 뜻이다.



中風證治

중풍의 증상과 치료법

- 【排風湯】
- 배풍탕

治中風昏潰, 或狂語, 或失音.

중풍으로 정신이 혼미하면서 가끔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鮮皮、白朮、芍藥、官桂(去麤皮)、川芎、當歸、杏仁(麪微炒)、防風、甘草(炙) 各半兩, 麻黃(去節)、川獨活、白茯苓 各七錢半.

백선평피, 백출, 작약, 관계(겉껍질을 제거한다), 천궁, 당귀, 행인(밀가루와 함께 살짝 볶는다), 방풍, 자감초 각 0.5냥,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천독활, 백복령 각 7.5돈.

右細剉, 每服一錢, 薑二片煎.

이상을 잘게 썰어 한 번에 1돈씩 생강 2조각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 【小續命湯】
- 소속명탕

治中風不省人事, 涎鳴, 反張, 失音, 厥冷.

중풍으로 인사불성되거나 담연에 막혀 목에서 그르렁 소리가 나거나 혀리가 뒤로 젖혀지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사지 끝이 찬 증상을 치료한다.

麻黃(去節)、人參、黃芩、川芎、芍藥、甘草(炒)、杏仁(去皮尖, 炒)、防己、官桂(去麤皮) 各半兩, 防風 七錢半, 附子(炮, 去皮臍) 二錢半.

마황(마디를 제거한다)、인삼、황금、천궁、작약、감초(볶는다)、행인(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방기、관계(겉껍질을 제거한다) 각 0.5냥, 방풍 7.5돈, 부자(습지에 싸서 굽고 껍질과 배꼽 부분을 제거한다) 2.5돈.

右除【附子】、【杏仁】外, 並搗爲麤末, 次入二味夾和, 每一錢, 薑三片煎, 食前服.

이상에서 부자와 행인을 제외하고 모두 뺀다. 그다음 부자와 행인을 넣고 잘 섞는다. 한 번에 1돈씩 생강 3조각과 함께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交濟湯】
- 교제탕

治中風肢體緩弱, 筋筋疼痛.

중풍으로 사지와 몸통이 늘어지거나 경련이 나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排風湯】、【續命湯】二藥夾和, 入【雞心檳榔】, 用【生薑】煎服, 次以【烏藥順氣散】, 加【全蝎】繼之.

배풍탕과 속명탕을 잘 섞고 계심빈랑을 넣은 후 생강 달인 물로 복용한다. 그리고 나서 오약순기산에 전갈을 가미하여 연달아 쓴다.

- 【攝生飲】
- 섭생음

治中風.

중풍을 치료한다.

南星 大者(濕紙畧炮, 用二錢), 半夏(圓白者, 湯七次)、南木香 各一錢, 細辛、石菖蒲、蒼朮(畧炒)、甘草(炒) 各半錢.

큰 남성(습지에 싸서 살짝 굽는다) 2돈, 반하(희고 둥근 것을 뜨거운 물에 7차례 데친다)、남목향 각 1돈, 세신、석창포、창출(살짝 볶는다)、감초(볶는다) 각 0.5돈.

右剉散, 每服一錢, 薑三片, 慢火煎取其半, 調【蘇合香圓】二粒灌下. 痰盛者, 又加【全蝎】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복용하되 생강 3조각과 함께 약한 불로 달이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소합향원 2알을 개어 입에 흘려 넣는다. 담연이 왕성한 경우에는 전갈을 가미한다.

- 【星香飲】

- 성향음

治中風.

중풍을 치료한다.

南星(晞炮) 二錢, 木香、橘皮 各一錢, 全蝎 二个(焙), 甘草(炒) 半錢.

남성(습지에 써서 살짝 굽는다) 2돈, 목향、귤피 각 1돈, 전갈 2개(겉불에 말린다), 감초(볶는다) 0.5돈.

右剉細, 每服一錢, 薑三片, 慢火煎熟與之. 虛冷者, 加【熟附子】、【川烏】少許, 添【薑錢】.

이상을 잘게 썬다. 한 번에 1돈씩 복용하되 생강 3조각과 함께 약한 불에 푹 달여서 먹인다. 몸이 허랭한 경우에는 숙부자와 천오를 약간 가미하고 생강도 더 넣어서 달인다.

- 【附子散】

- 부자산

治中風厥冷.

중풍으로 사지 끝이 찬 증상을 치료한다.

生附子 一分, 木香 半分.

부자(생것) 1푼, 목향 0.5푼.

右剉細, 每服半錢, 薑四片煎服.

이상을 잘게 썰어 한 번에 0.5돈씩 생강 4조각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 【阿膠散】
- 아교산

專治小兒肺風, 喘促涎潮, 竄眼斜視.

소아가 폐풍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담연을 주기적으로 내뿜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시가 된 증상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透明阿膠剉細, 炒如珠.

투명한 아교를 잘게 썬 후 볶아서 구슬처럼 만든다.

右用紫蘇、烏梅肉焙乾, 末之爲衣, 煎【人參】湯送下, 或以【阿膠】炒爲末, 和【人參】、【紫蘇】、【烏梅】同煎, 亦得. 【阿膠】育神, 凡驚風後, 眼中瞳人不正, 可以【阿膠】一倍, 【人參】半倍煎與之.

자소와 오매육을 곁불에 말려 가루 낸 후 아교 곁에 입히고 인삼 달인 물로 넘긴다. 아니면 아교를 볶아서 가루 내고 인삼과 자소와 오매육을 한꺼번에 달여 먹어도 좋다. 아교는 정신을 길러주니 각종 경풍을 앓은 후에 눈동자가 똑바르지 않을 때는 아교를 2배로 넣고 인삼을 0.5배 넣어 달여 먹이면 좋다.

- 【追風毒剉散】
- 추풍독좌산

治中風內外皆熱.

중풍으로 몸속과 피부가 모두 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黃 一分, 檳榔、桑白皮 各半兩(炒), 羌活 一兩, 防風 半兩, 郁李仁 一分(炒).

대황 1푼, 빈랑·상백피 각 0.5냥(볶는다), 강활 1냥, 방풍 0.5냥, 옥리인 1푼(볶는다).

右剉散, 每服一錢, 黑豆三十粒同煎, 乳食後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흑두 30알과 함께 달여 젓이나 밥을 먹은 후에 복용한다.

- 【肥兒丸】
- 비아환

治風後瘡不能言.

중풍을 앓은 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蕪荑、神麴、麥蘖(各炒)、黃連 等分.

무이、신곡、맥얼(각각 볶아서 쓴다)、황련 각각 같은 양.

右爲末,【猪膽汁】丸, 麻子大, 每服五圓, 用【陳皮】、【木香】、【史君子】、炙【甘草】煎湯送下. 盖【黃連】能去心竅惡血故爾.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환씩 진피、목향、사군자、자감초 달인 물에 넘긴다. 일반적으로 황련은 심규(心竅)의 악혈을 제거하기 때문에 넣는다.

- 【星蘇散】、【木通湯】
- 성소산、목통탕

治中風不語. [方見急慢脾風諸方門]

중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처방은 급만비풍제방문(急慢脾風諸方門)에 나온다]

- 【通關散】 [方見急驚門]
- 통관산 [처방은 급경문에 나온다]

【附方】

【부방】

- 【驅風散】

- 구풍산

治嬰孩小兒, 卒暴中風, 全不能言, 口眼喎斜, 驚癰搐掣, 痰實煩悶, 神昏有熱, 睡臥不穩.

갓난아이가 갑자기 풍에 맞아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구안와사가 생기거나 반신이 마비되면서 경직되거나 담연이 왕성해지면서 몹시 답답해하거나 정신이 혼미하면서 열이 나거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防風(去芦叉) 一兩半, 天南星(生, 去皮臍)、甘草(生)、半夏(姜制, 去臍)、黃芩(炒) 各一兩.

방풍(노두와 곁뿌리를 제거한다) 1.5냥, 천남성(생것을 쓰되 껍질과 배꼽 부분을 제거한다)、감초(생것)、반하(생강즙에 법제하고 배꼽 부분을 제거한다)、황금(볶는다) 각 1냥.

右咬咀, 用【生姜】三片同煎, 不拘時候服.

이상을 거칠게 잘라 생강 3조각과 함께 달인 후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 【疏風散】
- 소풍산

治嬰孩小兒, 五臟中風, 身軀不能自收, 冒悶不知疼痛, 口不能言, 筋脉拘急, 手足抽掣.

갓난아이가 오장을 풍에 맞아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몹시 답답해 하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힘줄이 당기거나 손발이 경직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防風(去芦叉)、犀角、麻黃(去節)、當歸(去尾芦)、川芎、羌活(去芦)、人參(去芦)、遠志(去心)、茯神(去皮木)、甘草(炙) 各五分.

방풍(노두와 곁뿌리를 제거한다)、서각、마황(마디를 제거한다)、당귀(끝 부분과 노두를 제거한다)、천궁、강활(노두를 제거한다)、인삼(노두를 제거한다)、원지(심을 제거한다)、복신(껍질과 목질부를 제거한다)、자감초 각 5푼.

右咬咀, 用水煎, 食前服, 永除根本, 不成癇疾.

이상을 거칠게 자르고 물에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간질이 생기지 않는다.

- 【白圓子】
- 백원자

治嬰孩小兒, 驚風中風痰盛.

갓난아이가 경풍이나 중풍으로 담연이 왕성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白附子(炮)、天南星(去臍, 炮)、半夏(生, 去臍) 各五錢, 天麻(煨)、全蝎(去毒, 炒)、殭蠶(去髯絲, 炒)、川烏(去皮尖, 煨) 各二錢半.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남성(배꼽 부분을 제거하고 습지에 싸서 굽는다)、반하(배꼽 부분을 제거하고 생것을 썬다) 각 5돈, 천마(젓불에 굽는다)、전갈(독성을 제거하고 볶아서 썬다)、백강잠(주둥이와 실 같은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천오(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젓불에 묻어 굽는다) 각 2.5돈.

右爲極細末, 生【姜汁】煮麪糊圓, 如【黍米】大, 用【生姜】煎湯, 不拘時候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어 썬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생강 달인 물로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痙瘓

경치

痙瘓方論 [【痙】音景,【瘓】音翅,字異義同.]

경치에 대한 설명 [경(痙)은 독음이 경이고, 치(瘓)는 독음이 치이다. 두 글자는 의미가 같다.]

痙瘓證候, 先傷於風, 又感寒濕致之, 此虛極生熱, 熱極生風之甚者也. 傷風發熱, 頭痛汗出, 又自嘔逆, 汗之必發瘓, 濕家發汗稍多亦發瘓. 婦人新產血虛, 汗出傷風, 發瘓無疑矣. 項背強直, 腰身反張, 搖頭掣瘓, 噤口不語, 發熱腹痛, 鎮日不醒, 其狀可畏, 病在足太陽經. 剛瘓無汗, 柔瘓有汗, 其面紅眼赤, 牙緊手張, 痰涎壅盛, 昏潰煩渴, 小便赤澀, 先識語而發者, 此剛瘓也. 其大便滑泄, 不渴不語, 先手足冷而發者, 此柔瘓也. 剛柔二瘓, 亦如陰隔陽陽隔陰之類, 剛瘓爲之發汗, 柔瘓爲之解肌, 並以【小續命湯】加減, 剛瘓去【附子】, 用【麻黃】, 柔瘓去【麻黃】, 用【生附子】, 大便利而厥逆者, 則以【熟附】佐之. 其間一證, 身軀壯熱, 識語口乾, 手足反微寒, 大便反滑泄, 此爲剛柔不分之瘓, 可用【生附子】、【小續命湯】, 要之得病以來, 無汗則【麻黃】按方, 有汗則【麻黃】謹勿用也. 其若痰塞氣盛, 則【南星】、【半夏】、【伏苓】以消其痰, 【枳實】、【陳皮】、【紫蘇】以順其氣, 痰消則風止, 氣順則神醒. 治療之法, 先與消痰順氣爲上, 嗣是病勢稍止, 然後審其熱之輕重而解利之. 熱輕者與【敗毒散】, 熱盛者與【小柴胡湯】.

壯熱胃滿, 口噤咬齒, 而大便秘結者, 是爲內實, 【大承氣湯】下之. 又法, 剛瘓, 【麻黃葛根湯】, 柔瘓, 【桂枝加葛根湯】, 瘓最難瘓, 十救其一, 過三日不治, 請早圖之. 餘見傷寒類書活人總括.

경치라는 병증은 이미 풍사에 손상된 데다가 다시 한 번 한습에 감촉되어 생긴다. 이는 허함이 지극해져 열이 생기고 열이 지극해져 풍사가 생기는 원리 중에 심한 경우이다. 상풍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면서 땀이 나는 데다가 구역질까지 하면서 땀이 또 나면 경치가 발병하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 땀을 더 내면 대부분 경치가 발병하기도 한다. 부인이 첫 출산으로 혈이 허할 때 땀이 나면서 풍사에 손상되면 분명히 경치가 발병할 것이다. 뒷목과 등이 강직되고, 허리와 몸통이 뒤로 젖혀지며, 머리를 떨면서 경련이 생기고, 입을 악다문 채 말을 하지 못하며, 열이 나면서 배가 아프고, 온종일 깨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증상으로 병사는 족태양경에 있다. 강치(剛瘓)는 땀이 나지 않고, 유치(柔瘓)는 땀이 난다. 얼굴과 눈이 모두 붉고, 입을 악다문 채 손을 피며, 담연으로 콧 막히고, 정신이 혼미한 채 몹시 갈증이 나며, 소변이 붉으면서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증상 전에 헛소리를 하다가 발작하는 건 강치이다. 대변이 줄줄 새고, 갈증은 없으며,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증상 전에 손발이 차다가 발작하는 건 유치이다. 강치와 유치 역시 음이 양을 가두거나[陰隔陽] 양이 음을 가두는[陽隔陰] 것 같은 분류이다. 강치는 발한시켜야 하고, 유치는 해기시켜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소속명탕을 가감하여 쓰되 강치에는 부자를 빼고 마황을 쓰고,

유치에는 마황을 빼고 생부자를 쓰며, 대변을 지리면서 손발 끝이 찬 경우에는 숙부자를 좌약으로 써야 한다. 강치와 유치 사이에 또다른 병증이 있다. 몸 전체에 열이 심하게 나고, 헛소리를 하며 입이 마르고, 손발은 오히려 약간 차가우며, 대변은 오히려 줄줄 새는 증상으로 강치와 유치로 나누어지지 않은 경치이다. 생부자와 소속명탕을 쓸 수 있으니 요점은 병에 걸린 이후로 땀이 없었다면 마황을 처방에 안배하고, 땀이 나면 마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담연이 꼭 막히고 숨을 잘 쉬지 못하면 남성·반하·복령으로 담연을 사그라뜨리면서 지실·진피·자소로 숨을 제대로 쉬게 해야 한다. 담연이 사그라들면 풍증이 멎고, 숨을 제대로 쉬면 정신이 돌아온다. 치료법은 우선 담연을 삭이면서 숨을 잘 쉬게하는 약을 주는 것이 상책이고, 이어서 증상이 약간 호전된 후에는 발열의 경중을 살펴 해기시키고 대변으로 빼내야 한다. 열이 가벼운 경우에는 패독산을 주고, 열이 심한 경우에는 소시호탕을 주며, 열이 심하면서 가슴이 뻥뻥하고 입을 악다문 채 이를 갈며 변비가 심한 경우는 몸속의 실증 때문이니 대승기탕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이외에도 강치에 마황갈근탕을 쓰거나 유치에 계지가갈근탕을 쓰는 치료법도 있다. 경치는 치료하기 매우 어려워 열에 한 사람 정도 살릴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치료하지 못하니 부디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나머지 내용은 《상한유서활인총괄》에 나온다.

痙瘓證治

경치의 증상과 치료법

- 【小續命湯】 [方見中風門]
- 소속명탕 [처방은 중풍문에 나온다]
- 【防風溫痰湯】
- 방풍온담탕

消痰順氣疎風.

담을 삭이고 숨을 제대로 쉬게 하며 풍사를 배출시킨다.

半夏(製)、枳殼(麩炒)、伏苓 各半兩, 橘皮、防風 各二錢半, 甘草(炒) 一錢半.

반하(법제한다)、지각(밀기울과 함께 볶는다)、복령 각 0.5냥, 귤피、방
풍 각 2.5돈, 감초(볶는다) 1.5돈.

右剉散, 每服一錢, 入生姜、紫蘇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생강과 자소를 넣고 달여 복용한
다.

- 【敗毒散】
- 패독산

人參、伏苓、甘草(炒)、芎藭、前胡、羌活、獨活、柴胡、北梗、枳殼.

인삼、복령、감초(볶는다)、궁궁、전호、강활、독활、시호、북길경、지각.

右加【防風】等分, 爲麤末, 每服一錢, 薄荷少許煎服.

이상의 약재에 방풍 같은 분량을 더하여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박하를 약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小柴胡湯】

- 소시호탕

治剛瘧有熱.

강치로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柴胡、黃芩、人參、半夏(製)、生姜 各三錢半, 甘草(炒) 一錢半.

시호、황금、인삼、반하(법제한다)、생강 각 3.5돈, 감초(볶는다) 1.5돈.

右剉散, 每服三字, 入棗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대조를 넣고 달여 복용한다.

• 【大承氣湯】

- 대승기탕

治剛瘧, 胃滿內實, 口噤咬齒.

강치로 가슴이 뵁뵁하면서 몸속에 실증이 있고 입을 악다문 채 이를 가는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芒硝 各半兩, 厚朴 一兩, 枳殼 二枚.

대황·망초 각 0.5냥, 후박 1냥, 지각 2개.

右剉散, 每服三字, 姜三片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생강 3조각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 【麻黃葛根湯】
- 마황갈근탕

治剛瘧無汗.

강치에 땀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去節)、赤芍藥 各一兩半, 乾葛 ①兩, 葱白 三莖, 豉 半合.

마황(마디를 제거한다)·적작약 각 1.5냥, 건갈 ①냥, 총백 3줄기, 두시 0.5홉.

右剉散, 每服三字,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桂枝葛根湯】

- 계지갈근탕

治柔瘓有汗.

유치에 땀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枝、芍藥、甘草(炒) 各六錢三字, 葛根 一兩二錢, 生姜 一兩, 大棗 四枚.

계지、작약、감초(볶는다) 각 6돈3자, 갈근 1.2냥, 생강 1냥, 대조 4개.

右剉散, 每服三字,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理中湯】

- 이중탕

治柔瘓, 厥冷自汗.

유치로 사지 끝이 차면서 자한(自汗)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川白姜(炮)、甘草(炒)、白朮 等分.

인삼、천백강(습지에 싸서 굽는다)、감초(볶는다)、백출 각각 같은 양.

右剉散, 每服三字,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 【三生飲】

- 삼생음

治柔瘓, 自汗, 肢體厥冷.

유치로 자한이 나면서 사지가 찬 경우를 치료한다.

天南星(生) 一兩, 川烏(生) · 附子 各半兩, 木香 一分.

천남성(생것) 1냥, 천오(생것) · 부자 각 0.5냥, 목향 1푼.

右剉散, 每服一錢, 生姜五片, 慢火煎取其半, 通口與之.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생강 5조각과 함께 약한 불에 달
이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입을 통해 먹인다.

【附方】

【부방】

- 【至聖散】
- 지성산

治嬰孩小兒中風瘓病, 昏悶不醒.

갓난아이가 중풍이나 경치로 정신이 혼미한 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全蝎尾(去毒) 二十一箇, 脱蠶蛾、天漿子、白附子(炮) 各五錢, 辰砂(水飛) 一分, 麝香 一分.

전갈 꼬리(독성을 제거한다) 21개, 탈잠아·천장자·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5돈, 진사(수비한다) 1푼, 사향 1푼.

右爲極細末, 用【薄荷】煎湯, 入【酒】二三滴調化, 不拘時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다. 박하 달인 물에 술을 2 - 3방울 넣고 약 가루를 녹인 후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附】痙病强直歌

경병강직가

强直反如弓 神昏似中風

涎流唇口動 痙瘓與癇同

小兒痙瘓病停中 氣滿心胸閉不通

乳食有時開口懶 情俄顚顚少舒容

睡臥多驚如搐搦 目睛半癱似癇風

項飜胃壅剛柔瘓 細辨陰陽始見功

몸이 강직되면서 활처럼 뒤로 젖혀지고 정신이 혼미해 증풍과 비슷하네
담연이 흘러 나오면서 입술이 떨리고 경련이 나는 점은 간질과 같다네
소아의 경치는 병사가 몸속에 머물러 숨이 가슴에 가득해 통하지 않는다

네

젖이나 음식을 먹일 때 입을 벌리지 않으니 마음이 금세 초췌해져 얼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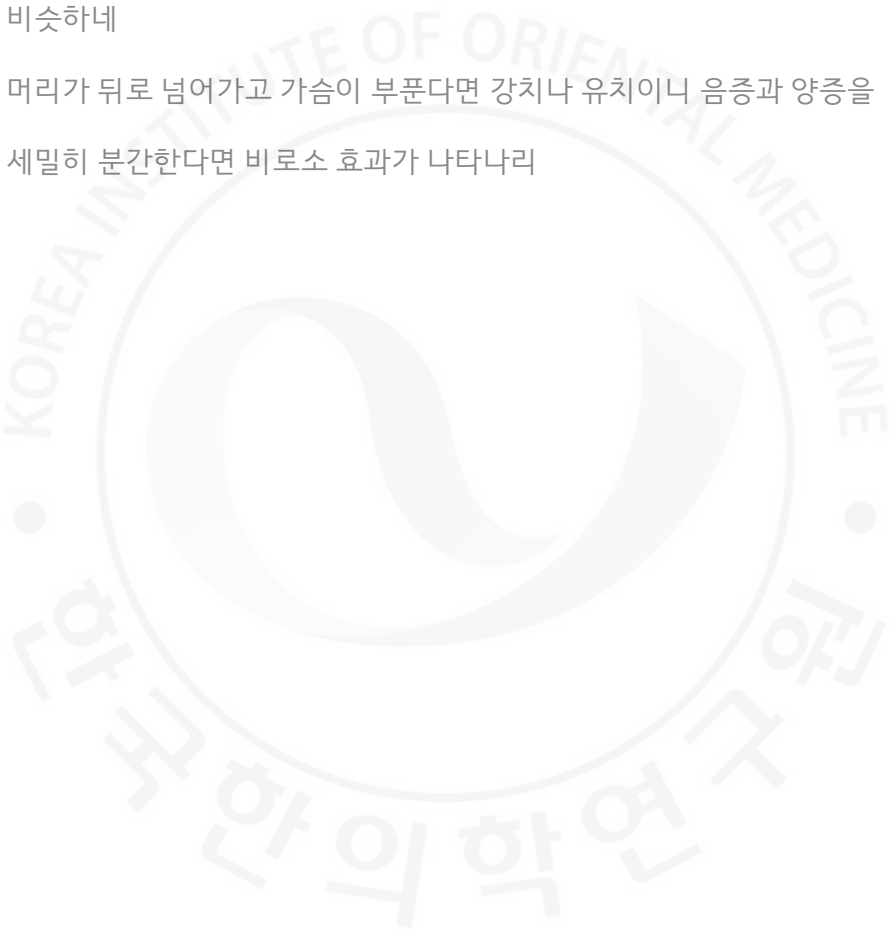
퍼지지 않네

자면서도 계속 놀라면서 축늑이 생기고 눈동자가 반쯤 돌아가니 간질과

비슷하네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가슴이 부푼다면 강치나 유치이니 음증과 양증을

세밀히 분간한다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리



發癇

간질의 발작

發癇方論

간질에 대한 설명

癇者, 小兒之惡病也. 小兒血脉不斂, 氣骨不聚, 爲風邪所傷, 爲驚怪所觸, 爲乳哺失節、停滯結癖而得之. 其候神氣怫鬱, 瞪眼竄視, 面目牽引, 口噤涎流, 腹脰澎緊, 手足搐掣, 似死似生, 或聲或嘿, 或項背反張, 或腰脊強直, 但四肢柔軟, 發而時醒者爲癇, 若一身強硬, 終日不醒則爲痙瘓矣. 癇曰【五癇】, 病關五臟. 面赤目瞪, 吐舌嚙齒, 心下煩燥, 氣短息數者, 曰心癇, 面青唇青, 其眼上竄, 手足卷攣, 抽掣反折者, 曰肝癇, 面黑而晦, 振目視人, 其吐清沫, 不動如尸者, 曰腎癇, 面如枯骨, 目白反視, 驚跳搖動, 亦吐涎沫者, 曰肺癇, 面色痿黃, 眼睛直視, 腹滿自利, 四肢不收者, 曰脾癇, 此五臟之證然也. 調理之法, 惟以【驚】、【風】、【食】三種, 陰陽二證, 別而治之. 【風癇】者, 汗出解脫, 風邪乘虛, 其初屈指如計數, 有熱生痰是也. 【驚癇】者, 震駭懷怖, 打墜積驚, 其初驚叫大啼, 恍惚神魂是也. 【食癇】者, 食時得驚, 停宿結滯, 其初吐乳不哺, 大便酸臭, 或結成乳癖, 先寒後熱是也. 別之以陰陽, 則始者身軀有熱, 抽掣啼叫, 是爲【陽癇】, 陽病脉浮, 面色光澤, 病在六腑肌膚, 此猶易愈. 始者身軀無熱, 手足清冷, 不抽掣, 不啼叫, 是爲【陰癇】, 陰病脉沉, 面色黯晦, 病在五臟骨髓, 此最難痊. 或以仰臥

屬陽, 覆臥屬陰, 亦可參驗, 盖陽證不可用溫, 陰證不可用寒. 【風癇】則先爲之散風, 【驚癇】則先爲之利驚, 【食癇】則先爲之消積, 續以【定癇】等劑主之. 若臟若腑, 一陰一陽, 是固不可無別. 大槩血滯心竅, 邪氣在心, 積驚成癇, 通行心經, 調平心血, 順氣豁痰, 又其要也. 繼入小兒有熱有痰, 不欲乳哺, 眠睡不安, 常常驚悸, 此皆發癇之漸, 卽以【紫霜圓】導之. 時間量與【紫霜圓】, 減其盛氣, 則無驚風癇瘳之患. 癇證方萌, 耳後高骨間必有青紋紛紛如線, 見之急爲爪破, 須令血出啼叫, 尤得氣通, 澣濯兒衣, 不可露天, 恐爲純睢落羽所污染, 觸其間未有不爲癇也. [挾邪怪者而色變易不常, 見人羞怕.] 諸癇瘳不能言者, 盖咽喉爲氣之道路, 風傷其氣, 以掩聲音道路之門, 抑亦血滯於心, 心竅不通所致耳. 【南星】炮爲末, 【雄猪膽汁】調和, 少許, 啖之輒效. 若夫【錢氏五癇圓】并【南星散】, 以【昌蒲】煎湯調下, 【甘遂猪心湯】以和【蘇合香圓】, 皆治癇之要藥也, 故表而出之.

간질은 소아에게 위험한 병이다. 소아는 혈액이 자리잡히지 않고 기골이 영글지 않아서 풍사에 상하거나 놀라서 간질이 되고, 혹은 젖을 적당히 먹이지 않거나 젖에 체하여 간질이 되기도 한다. 간질의 증상은 정신이 멍하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며 얼굴 전체가 당기고 입을 악다문 채 담연을 흘리며 배가 똥똥하고 손발에 강직이 생겨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다.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뒷목부터 등이 뒤로 굽는 경우도 있고 허리부터 등줄기까지만 뻗뻗해지면서 사지는 멀쩡한 경우도 있다. 발작한 후에 가끔씩 정신을 차

리면 간질이고, 몸 전체가 경직되면서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경치이다. 간질에는 5가지가 있으니 증상이 오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얼굴이 붉으며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낼름거리다가 이를 갈며, 명치가 몹시 답답하고, 숨이 짧아져 빨리 쉬는 경우는 심간(心癇)이라고 한다. 얼굴과 입술이 새파랗고 눈을 위로 치켜뜨며 손발이 안쪽으로 경직되고 힘줄이 당기면서 몸통이 뒤로 젖혀지는 경우는 간간(肝癇)이라고 한다. 얼굴이 어둡게 까매지고 눈을 크게 뜬 채 감지 않으며 투명한 거품을 토하고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신간(腎癇)이라고 한다. 얼굴이 앙상하게 마르고 눈알이 희번덕 돌아가며 놀란 듯 요동치고 거품도 토하는 경우는 폐간(肺癇)이라고 한다. 낮빛이 누렇게 뜨고 눈에 초점이 없으며 배가 뽕뽕하면서 변을 지리고 사지를 가누지 못하는 경우는 비간(脾癇)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장과 관련되어 생기는 증상이다. 간질을 치료할 때는 경간, 풍간, 식간 3종의 간질이나 음간, 양간으로 나누어 치료해야 한다. 풍간은 땀이 나서 주리가 느슨해졌을 때 풍사가 그 틈을 타고 침범하여 생기니 초기에는 섴을 하는 듯 손가락을 구부리고 열이 나며 담연이 생긴다. 경간은 천둥 같은 것에 놀라거나 맞거나 떨어진 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생기니 초기에는 놀라고 소리치며 큰 소리로 울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식간은 무언가를 먹을 때 놀라서 체하거나 먹은 게 뭉쳐서 생기니 초기에는 젖을 토하면서 먹지 못하고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며(간혹 소화되지 않은 것이 뭉친 채 대변으로 나오기도 한다) 오한이 생긴 후에 열이 난다. 음간, 양간으로 분간하는 방법은 이렇다. 발작 초기에 몸이 뜨

겉고 강직이 나타나면서 소리치며 우는 경우를 양간이라고 한다. 양간은 양증이라 맥이 부(浮)하고 낮빛은 윤택하며 병사가 육부나 피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발작 초기에 몸에 열이 없고 손발이 차며 강직도 없고 울지도 않는 경우를 음간이라고 한다. 음간은 음증이라 맥이 침(沉)하며 낮빛은 생기 없이 까맣고 병사가 오장이나 골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 혹자는 하늘을 보고 누우면 양증이라고 하고 엎드려 있으면 음증이라고도 하니 참고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양증에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쓰지 말아야 하고, 음증에는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쓰지 말아야 한다. 풍간은 우선 풍사를 흠어야 하고, 경간은 우선 놀람을 배출시켜야 하고, 식간은 우선 적취를 사그라뜨려야 한다. 그다음 이어서 간질을 진정시키는 약재로 치료한다. 병사가 어떤 오장이나 육부에 있는지, 음증만 있는지, 양증만 있는지 이 점을 반드시 구별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혈이 심규(心竅)에 막혀 있다면 병사가 심장에 있다가 놀람이 사라지지 않아 간질이 된 것이니 심장의 경락을 운행시키고 심장의 혈을 안정시키며 숨을 제대로 쉬게 하면서 담연을 뚫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소아에게는 열이 나거나 담연이 왕성해지거나 젖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제대로 잠들지 못하거나 항상 놀라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니 이것들은 모두 간질이 발작하려는 징조이다. 즉시 자상원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중간중간 상태에 따라 자상원을 먹여 왕성해진 병사를 덜어 낸다면 경풍이나 간질로 악화될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간질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는 귀 뒤쪽 꼭대기에 푸른 핏줄이 많이 나타날 것이

다. 발견하면 빨리 손톱으로 찌야 하니 반드시 피를 내서 아이가 울게 하여 숨을 더욱 많이 쉬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의 옷을 땀 후에는 벌레에 널지 말아야 하니 순저(純睢)의 깃털이 떨어져 오염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 깃털이 닿으면 무조건 간질이 된다. [사특한 것에 씹이면 낮빛이 이상하게 변하고 사람을 보면 숨거나 무서워 한다.] 각종 간질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구멍을 통해 숨이 이동할 때 풍사가 숨을 손상시켜 소리의 통로를 막기 때문이다. 또는 혈이 심장에 멎쳐 심규로 혈이 운행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기도 한다.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을 가루 내고 응저담즙에 개어 약간씩 삼키게 하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전씨오간원과 남성산을 창포 달인 물에 타서 넘기거나 감수저심탕에 소합향원을 풀어서 복용하는 것은 모두 간질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지면에 밝혀 둔다.

諸癇不治證候

각종 간질의 불치증

目直無聲, 目睛不轉, 眼生白障, 眼慢唇黑, 瞳人瞬動, 眉間色青黑, 面青指黑, 口中涎沫如白膿, 口噤肚脹不乳, 喉如鋸聲多睡不乳, 身熱下血不食, 身體痿軟不醒, 腹滿虛鳴, 厥逆而痛, 吐利不止, 汗出壯熱不止, 臥久不寐, 癇瘥身體反張, 大人脊下容側手, 小兒脊下容三指, 並不治. 諸癇僵仆搐掣, 但扶持之, 謹勿把捉.

눈에 초점이 없으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눈에 흰 예막이 생기거나, 눈동자가 느리면서 입술이 검거나, 눈동자가 떨리거나, 미간이 청흑색이거나, 낮빛이 파래지면서 손가락이 검거나, 입에서 흰 고름 같은 거품을 흘리거나, 입을 악다물고 배가 뽕뽕하면서 젖을 물지 않거나, 목에서 쉼소리가 나면서 계속 자고 젖을 물지 않거나, 몸통이 뜨겁고 혈변을 누며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몸이 축 늘어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배가 뽕뽕하면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사지 끝이 차면서 아파하거나,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거나, 땀이 나면서 고열이 내리지 않거나, 누워서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거나, 간질이나 경치로 몸이 뒤로 젖혀지거나, 성인의 등줄기 아래에 손의 옆면이 끼지거나, 소아의 등줄기 아래에 손가락 3개가 끼지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치료하지 못한다. 각종 간질로 쓰러져 경직이 나타나면 그저 부축만 해야지 절대 잡아 당기거나 끌지 말아야 한다.

風癇證治

풍간의 증상과 치료법

- 【散風丹】
- 산풍단

治風癇, 先用此.

풍간을 치료할 때는 우선 이 약을 써야 한다.

黃牛膽 貳錢, 羌活、獨活、防風、天麻、人參、荊芥穗、川芎、細辛 各壹錢.

황우담 2돈, 강활、독활、방풍、천마、인삼、형개수、천궁、세신 각 1돈.

右爲末, 煉蜜圓, 桐子大, 每服貳圓, 薄荷、紫蘇泡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환씩 복용하되 박하와 자소 데친 물에 타서 넘긴다.

- 【保安圓】
- 보안원

治諸風癇, 久遠亦驗.

풍간의 각종 증상을 치료한다. 발작한 지 오래 지났어도 효과가 있다.

川烏(生, 去皮尖) 貳錢半, 五靈脂 半兩.

천오(생것을 쓰되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다) 2.5돈, 오령지 0.5냥.

右爲末, 猪心血圓如桐子大, 每壹圓, 薑汁泡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심혈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생강즙을 넣은 뜨거운 물에 타서 넘긴다.

- 【獨活湯】

- 독활탕

治風癇, 解表通裏

풍간을 치료한다. 표부를 풀어주고 이부를 소통시키는 약이다.

獨活、麻黃(去節)、川芎 各一錢, 大黃(焙)、甘草(炒) 各半錢.

독활·마황(마디를 제거한다)·천궁 각 1돈, 대황(겉불에 말린다)·감초(볶는다) 각 0.5돈.

右剉散, 每服三字, 姜二片,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생강 2조각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細辛大黃湯】

- 세신대황탕

治風癇內熱.

풍간으로 몸속에 열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天麻、防風 各半兩, 細辛、大黃(焙)、川芎 各一分, 甘草(炙) 一錢半.

천마·방풍 각 0.5냥, 세신·대황(겉불에 말린다)·천궁 각 1푼, 자감초 1.5돈.

右剉散, 每服三字, 入【犀角】少許, 煎服.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서각을 약간 넣고 달여 복용한다.

- 【牛黃圓】
- 우황원

治風癇迷悶, 抽掣涎潮.

풍간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경직이 생기며 주기적으로 담연을 토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牛膽汁和南星末(風乾)、全蝎(焙)、蟬殼 各二錢半, 防風、白附子(生)、天麻、直僵蚕(炒) 各一錢半, 麝 半錢.

우담즙을 섞은 남성 가루(응달에서 말린다)、전갈(겉불에 말린다)、선각 각 2.5돈, 방풍、백부자(생것)、천마、곶은 강잠(볶는다) 각 1.5돈, 사향 0.5돈.

右爲末, 以煮棗去皮核取肉, 和水銀半錢, 研極細, 次入藥末和圓如菉豆大, 每服一圓, 荊芥、生姜湯下.

이상을 가루 낸다. 대조(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과육만 쓴다)를 삶고 수은 0.5돈을 넣은 후 아주 곱게 간다. 그리고 나서 약재 가루를 넣고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형개와 생강 달인 물로 넘긴다.

驚癇證治

경간의 증상과 치료법

- 【比金膏】
- 비금고

驚癇先用此.

경간에는 우선 이 약을 써야 한다.

人參、琥珀、白茯苓、遠志肉(姜製, 焙)、朱砂、天麻、石菖蒲(細節者)、川芎、南星(姜汁浸) 各二錢, 麝一字, 青黛一錢.

인삼、호박、백복령、원지 과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
주사、천마、석창포(마디가 짧은 것)、천궁、남성(생강즙에 담근다) 각
2돈, 사향 1자, 청대 1돈.

右爲末, 煉蜜圓, 桐子大, 每服一圓, 金銀煎湯泡薄荷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
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그릇에 물을 달인 다음 박하를 데치고 그 물에 환
을 타서 넘긴다.

- 【鎖驚丸】
- 쇠경환

治一切驚癇.

경간의 온갖 증상을 치료한다.

紫石英(燒, 醋淬, 研)、鐵粉、遠志肉(姜製, 焙)、伏神、人參、琥珀、滑石、南星(炮)、蛇黃(煨, 醋淬) 各一分, 龍齒、熊膽 半分, 輕粉 三字.

자석영(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 한 후 갈아서 사용한다)、철분、원지 과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복신、인삼、호박、활석、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사황(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한다) 각 1푼, 용치、웅담 0.5푼, 경분 3자.

右爲細末, 煉蜜圓, 朱砂衣, 桐子大, 每一圓, 金銀湯調下, 或用【猪乳】調, 拭入口中.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에 1환씩 금이나 은 그릇에 달인 물로 타서 넘긴다. 혹은 저유에 갠 다음 입속에 넣어 준다.

- 【虎睛丸】
- 호정환

治驚癇, 邪氣入心.

경간을 앓을 때 사기가 심장으로 들어간 경우를 치료한다.

虎睛(細研)、遠志(姜製, 焙)、犀角、大黃(濕紙煨)、石菖蒲、麥門冬 各一分,
蜣螂(去足翅, 炒) 三枚.

호정(곱게 간다)、원지(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서각、대황
(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석창포、맥문동 각 1푼, 강랑(다리와
날개를 제거하고 볶는다) 3개.

右爲末, 粟米糊圓, 桐子大, 每服一圓, 竹葉煎湯調下, 或金銀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
환씩 복용하되 죽엽 달인 물에 타서 넘기거나 금이나 은 그릇에 끓인 물
에 타서 넘긴다.

- 【七寶鎮心圓】
- 칠보진심원

治驚癇心熱.

경간을 앓을 때 심장에 열사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遠志肉(姜製, 焙)、雄黃、鐵粉、琥珀 各二錢, 朱砂 一錢, 金銀箔 二十片, 麝
少許.

원지 과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웅황、철분、호박 각 2
돈, 주사 1돈, 금박、은박 20조각, 사향 약간.

右爲末, 棗肉圓, 桐子大, 每服一圓, 去心【麥門冬】煎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대조 과육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맥문동(심을 제거한다) 달인 물로 넘긴다.

- 【清神湯】
- 청신탕

治驚癇.

경간을 치료한다.

犀角、遠志肉(薑製, 焙)、白鮮皮、石菖蒲、半夏(製) 各一分, 伏神 半兩, 大黃(焙)、人參、甘草(炒) 各一錢半.

서각、원지 과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백선평、석창포、반하(법제한다) 各 1푼, 복신 0.5냥, 대황(곁불에 말린다)、인삼、감초(볶는다) 各 1.5돈.

右爲末, 每服三字, 去心【麥門冬】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복용하되 맥문동(심을 제거한다)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蜜陀僧飲】
- 밀타승음

治驚癇入心不語, 神效. 諸驚失音, 大人通用.

경간을 앓을 때 병사가 심장을 침범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하

는 데 효과가 좋다. 무언가에 놀라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성인도 통용한다.

蜜陀僧爲細末.

밀타승을 곱게 가루 낸다.

右每服一字, 米醋湯調下, 大人用二錢, 熱酒調下.

이것을 한 번에 1자씩 복용하되 쌀식초를 넣은 뜨거운 물에 타서 넘긴다.

성인은 2돈씩 뜨거운 술에 타서 넘긴다.

食癇證治

식간의 증상과 치료법

- 【紫霜圓】
- 자상원

治食癇, 先用此取積.

식간을 치료하니 우선 이 약을 써서 적취를 잡아야 한다.

代赭石(煨, 醋淬, 研)·赤石脂(末) 各一兩, 巴豆 二十粒(去皮出油, 炒研), 杏仁 五十个(去皮尖, 麩炒, 另研).

대자석(불에 달군 후 식초에 담금질 하고 갈아서 쓴다)·적석지(가루 낸다) 각 1냥, 파두 20알(껍질을 제거하고 기름기가 나오면 볶아서 간다), 행인 50개(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따로 갈아 둔다).

右件合研細, 湯浸蒸飯¹圓麻子大, 每服三圓, 米飲下.

이상을 한꺼번에 곁게 간다. 뜨거운 물에 담갔던 증병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 【妙聖丹】
- 묘성단

食癇通利.

식간일 때 대변으로 배출시킨다.

代赭石(煨, 醋淬)一分, 雄黃、蝎梢、朱砂 各一錢, 輕粉、麝 各一字, 巴豆 三个(去心膜, 出油), 杏仁(去皮尖, 微炒) 二錢.

대자석(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한다) 1푼, 옹황·갈초·주사 각 1돈, 경분·사향 각 1자, 파두 3개(심과 막을 제거한 후 기름기가 나온 것), 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하고 살짝 볶는다) 2돈.

右爲末, 蒸棗肉圓桐子大, 每服一圓, 【木香】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찐 대조의 과육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목향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天麻圓】
- 천마원

治食癇. [方見急驚重下門]

식간을 치료한다. [처방은 급경중하문에 나온다]

定癇治法

간질을 진정시키는 치료법

- 【錢氏五癇圓】
- 전씨오간원

朱砂 半兩, 水銀 一分, 鉛 三兩(鎔開, 次入水銀, 結沙), 雄黃 二兩(熬), 眞珠 一兩(研細).

주사 0.5냥, 수은 1푼, 납 3냥(녹인 다음 수은을 넣어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옹황 2냥(볶는다), 진주 1냥(곱게 간다).

右爲末, 煉蜜圓, 麻子大, 每服二圓, 金銀煎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환씩 복용하되 금과 은 그릇에 달인 물로 넘긴다.

- 【南星散】 [方見已傳慢驚門]
- 남성산 [처방은 이전만경문(已傳慢驚門)에 나온다]

如大便取下惡物, 急與和胃之劑.

대변에 이상한 것이 섞여 나오면 급히 위기(胃氣)를 안정시키는 약을 먹인다.

- 【猪心湯】
- 저심탕

治五癇顛癇, 及心風血迷, 神效.

오간이나 전간(顛癇)이 발작하거나 심장에 침범한 풍사로 혈의 운행이 막혀 정신이 혼미한 경우를 치료하는 데 신효하다.

甘遂(末) 壹錢.

감수(가루) 1돈.

右用帶性猪心壹箇, 取參管頭血參條, 和【甘遂末】, 如血多, 只隨藥末得中和之, 將【猪心】批作兩片, 將所和藥入在內再合, 用線縛定, 外以濕紙包, 慢火內煨熟, 不可過度, 取出, 去紙, 取【甘遂】細研, 次入【朱砂末】半錢和之, 分作肆圓, 每服壹圓, 以所煨猪心煎湯調下, 後別用猪心煎湯. 重者, 只守本方, 輕者, 加【蘇合香圓】壹粒, 准過半日不動, 又進壹服, 如大便已下惡物, 即止後劑, 急與【醒脾散】以助胃氣.

이제 막 잡은 돼지 심장 1개를 구하여 3개 혈관 끝에 있는 피 3덩어리를 모은 후 감수 가루와 섞는다. 피가 너무 많으면 약재 가루 분량에 맞게 적당할 정도만 섞는다. 돼지 심장을 두 쪽으로 가르고 피와 섞은 약재 가루를 넣은 후 다시 합쳐 실로 묶어 고정한다. 습지로 겹을 감싸고 약한 불 밑에 묻어 익히되 너무 익히면 안 된다. 익었으면 꺼내어 습지를 제거하고 감수를 꺼내 잘게 간 다음 주사 가루 0.5돈을 넣고 잘 섞고 4덩이로 나누어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약재를 싸고 있던 돼지 심장을 물에 달여 그 물에 타서 넘긴다. 나중에 돼지 심장 달인 물을 별도로 사용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그대로 지킨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소합향원 1알을 더 먹인 후 반나절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으면 한번 더 복용한다. 대변으로 이상한 것이 나오면 즉시 복약을 중지하고 급히 성비산을 먹여 위기(胃氣)를 복돋아야 한다.

●【本事雄黃圓】

● 본사용황원

治顛癇搖掣, 惡聲嚙舌.

간질로 강직이 생기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혀를 깨무는² 경우를 치료한다.

雄黃、黃丹(微炒) 各半兩, 麝 半錢.

웅황、황단(살짝 볶는다) 각 0.5냥, 사향 0.5돈.

右爲末拌和, 用牛乳汁參合, 熬成膏, 入藥末杵參百下, 圓如麻子大, 每服貳圓, 溫熱水下.

이상을 가루 내어 잘 섞는다. 우유 3홉을 졸여서 고약처럼 만든 후 약 가루를 넣고 절구에 300번 찼은 다음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환씩 복용하되 따뜻한 물로 넘긴다.

- 【蛇黃圓】
- 사황원

治諸癇.

각종 간질을 치료한다.

蛇黃 壹箇(煨, 醋淬柒捌次, 研細), 鬱金、雄黃 各貳錢, 鐵粉(篩淨, 研細) 三錢, 青礞石、朱砂 各一錢.

사황 1개(잿불에 묻어 구운 후 식초에 담금질 하기를 7-8번 하고 곱게 간다), 울금·웅황 각 2돈, 철분(체에 치고 씻은 후 곱게 간다) 3돈, 청몽석·주사 각 1돈.

右末, 粳米飯圓, 桐子大, 每壹圓, 【人參】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쌀밥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인삼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斷癇圓】

- 단간원

治諸癇痰盛.

각종 간질로 담연이 왕성한 증상을 치료한다.

皂角(盈尺者參錠, 去皮槌碎, 水參升, 浸取汁濾過, 煨器內, 熬成膏), 白礬(煨枯, 研細) 壹兩半, 南星(濕紙炮熟) 壹兩, 蝎梢(炒)、直僵蚕(炒)、雄黃(別研)、朱砂、白附子 各半兩, 麝香 壹錢(別研), 烏蛇(酒浸, 取肉焙乾, 炒) 一分, 赤蜈蚣 壹條(去頭足, 酒浸³炙).

조각(1척 남짓한 것 3덩이의 껍질을 제거하고 몽둥이로 부순 후 물 3되에 담갔다가 천에 거른다. 그 물만 그릇에 담은 채 잿불이 묻어 줄이면서 고약처럼 만든다), 백반(불에 달궈 습기를 날리고 곱게 간다) 1.5냥,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1냥, 갈초(볶는다)、곶은 강잠(볶는다)、웅황(따로 갈아 둔다)、주사、백부자 각 0.5냥, 사향 1돈(따로 갈아 둔다), 오사(술에 담갔다가 살만 바르고 겉불에 말린 후 볶는다) 1푼, 붉은 오공 1개(대가리와 발을 제거한 후 술에 담갔다가 굽는다).

右爲末, 用水煮【半夏】糊和, 前項【皂角】膏爲圓, 桐子大, 每服壹圓, 生薑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반하 달인 물로 쏜 풀에 개어 처음에 나온 조각(고약처럼 만든 것)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 【當歸大黃湯】
- 당귀대황탕

治諸癇, 壯熱利下, 心中惡血.

각종 간질일 때 고열이 나면서 대변을 지리는 이유는 심장에 악혈이 있기 때문이니 이런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濕紙畧煨)、甘草(炙)、當歸、赤芍藥 各參錢, 半夏(製)、川芎 各壹錢半.

대황(습지에 싸고 잿불에 묻어 살짝 굽는다)、자감초、당귀、적작약 각 3돈, 반하(법제한다)、천궁 각 1.5돈.

右爲末, 每服參字, 薑棗煎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3자씩 복용하되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 【蝎虎散】
- 갈호산

治驚癇. 屢效.

경간을 치료한다. 누차 효과를 보았다.

褐色生蝎 壹箇(連血細研).

갈색의 살아있는 전갈 1개(피를 빼지 않은 채 곱게 간다).

右入【朱砂末】并【麝】少許, 同研, 薄荷湯調作壹服, 數年顛癇亦作效. 盖癇疾皆心血虛滯, 【生蝎】可以官守其血, 繼是卽以【二陳湯】與之, 若無【生蝎】, 當取帶性【雄猪心血】代用, 入于【代赭石散】中亦作效.

여기에 주사 가루와 사향을 약간 넣고 한꺼번에 간 후 박하탕에 타서 한번 복용한다. 몇 년 된 전간에도 효과가 있다. 대체로 간질은 모두 심장의 혈이 허해지거나 막혀서 생긴다. 살아있는 전갈로 심장의 혈을 지킬 수 있다. 그다음 연달아서 이진탕을 먹여야 한다. 살아있는 전갈이 없거든 갓 잡은 수탉지 심장의 피를 대신 써서 대자석산에 넣어도 효과가 있다.

- 【代赭石散】

- 대자석산

陰陽癇通用.

음간과 양간에 통용한다.

代赭石(煨, 醋淬, 研爲末, 水飛過, 日乾).

대자석(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 한 후 갈아서 가루 내고 수비한 것을 벌레에 말려 쓴다).

右每服半錢, 以金銀煎湯, 和金銀箔調下, 連進貳服. 良久, 小兒脚脛上自有赤班, 卽邪氣發出, 其病隨瘥, 若無赤班則難治也.

이것을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 그릇에 달인 물에 금박과 은박을 타서 넘긴다. 연달아 2번 복용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의 다리나 정강이 피부에 점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즉시 사기가 방출되고 병세가 차차 좋아진다. 붉은 반점이 생기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 【日應丹】

• 일응단

治顛癇連年不瘥.

전간이 몇 년 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黑錫、琉黃、水銀(研)、鐵粉(研) 各半兩, 金銀箔 各參拾片.

흑석、유황、수은(간다)、철분(간다) 각 0.5냥, 금박、은박 각 30조각.

右【水銀】、【鐵粉】、【金銀箔】夾和壹處, 先將【黑錫】於銚內鎔開, 次入【硫黃】, 不住手就銚內研攪, 候【硫黃】煙氣欲息, 次入餘藥, 就火上同攪, 少頃時, 傾出在地壹宿, 出火毒, 再研細, 粳米飯圓, 麻子大, 【朱砂】衣, 每服參圓, 食後【人參】煎湯下.

이상에서 수은、철분、금박、은박을 한 곳에 잘 섞어 놓는다. 우선 흑석을 솥에 넣고 녹인다. 그다음 유황을 넣고 쉬지 않고 저으면서 섞는다. 유황 연기가 잦아들면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가열하면서 한꺼번에 섞는다. 조

금 후에 내용물을 땅바닥에 쏟은 채 하룻밤을 지내면서 화독을 뺀다. 이것을 한 번 더 곱게 갈아 멍쌀밥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에 3환씩 복용하되 식후에 인삼 달인 물로 넘긴다.

• 【地龍散】

• 지룡산

治諸癇發歇無時.

각종 간질이 아무 때나 발작했다가 잠잠해졌다가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乾地龍 半兩(焙), 虎睛 壹對(炙), 人參 壹分, 金銀箔 參拾片, 天竺黃、朱砂、代赭石(煨, 醋淬)、鐵粉 各壹分, 雄黃 壹錢半, 輕粉 半錢.

건지룡 0.5냥(겉불에 말린다), 호정 1쌍(굽는다), 인삼 1푼, 금박·은박 30조각, 천축황·주사·대자석(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한다)·철분 각 1푼, 옹황 1.5돈, 경분 0.5돈.

右爲末, 每服半錢, 紫蘇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0.5돈씩 복용하되 자소탕에 타서 넘긴다.

• 【定癇圓】

• 정간원

治小兒五癇.

소아의 오간을 치료한다.

赤蜈蚣 壹个(去頭足, 酒浸炙), 蝎梢、白附子(生)、烏蛇肉(酒炙)、大南星(末)
、圓白半夏(水用薑汁和壹宿) 各壹分, 熊膽、白礬(新瓦上煨枯) 各半分.

붉은 오공 1개(대가리와 발을 제거하고 술에 담갔다가 굽는다), 갈초、백부자(생것)、오사육(술에 축였다가 굽는다)、대남성(가루)、희고 둥근 반하(생강즙을 탄 물에 하룻밤 담가 놓는다) 각 1푼, 웅담、백반(사용하지 않은 기와에 놓고 불에 달궈 습기를 날린다) 각 0.5푼.

右爲末, 稀麵糊圓, 桐子大, 【朱砂】衣, 每服壹圓, 薄荷泡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묽은 밀가루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박하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全蝎五癇圓】
- 전갈오간원

赤蜈蚣 乙條(去頭足, 酒浸炙), 南星(炮熟) 二分半, 麝 壹字, 全蝎、防風、朱砂(研細)、遠志肉(薑汁浸炒)、白附子(生)、蘆薈、延胡索 各壹錢, 金銀箔 各參拾片.

붉은 오공 1개(대가리와 발을 제거하고 술에 담갔다가 굽는다), 남성(습지에 싸서 익힌다) 2.5푼, 사향 1자, 전갈、방풍、주사(곱게 간다)、원지과육(생강즙에 담갔다가 볶는다)、백부자(생것)、노회、현호색 각 1돈, 금박、은박 각 30조각.

右爲末, 入麝, 糕糊圓, 桐子大, 每服壹圓, 【昌蒲】、【紫蘇】煎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사향을 넣는다. 설기떡으로 쏜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창포와 자소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金朱丹】

- 금주단

定一切癇.

온갖 간질을 진정시킨다.

赤蜈蚣 大者壹條(去頭足, 酒浸炙), 烏蛇頭(酒浸炙, 取肉)、延胡索(生) 各壹錢半, 白附子、遠志(薑汁浸壹宿, 炒)、鐵粉、透明防風、全蝎(焙)、天麻 各壹錢, 金銀箔 各參拾片, 大南星 壹錢半(末, 薑浸壹宿).

붉은 오공 큰 것 1개(대가리와 발을 제거하고 술에 담갔다가 굽는다), 오사 머리(술에 담갔다가 구워서 살만 쓴다), 현호색(생것) 각 1.5돈, 백부자, 원지(생강즙에 하룻밤 담갔다가 볶는다), 철분, 투명한 방풍, 전갈(겉불에 말린다), 천마 각 1돈, 금박, 은박 각 30조각, 대남성 1.5돈(가루 내어 생강즙에 하룻밤 담가 놓는다).

右爲末, 以【圓白半夏】爲稠胡, 入【黃牛膽汁】并【腦】、【麝】少許, 和圓桐子大, 【朱砂】衣, 每服貳圓, 金銀器煎湯泡薄荷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희고 등근 반하로 묶은 풀을 썬고 황우의 담즙과 용뇌
· 사향을 약간 넣은 것과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빻은 후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에 2환씩 복용하되 금이나 은그릇에 달인 물에 박하를 데치
고 그 물에 타서 넘긴다.

- 【千金龍膽湯】
- 천금용담탕

治諸癇壯熱. [方見胎驚風門]

각종 간질로 고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처방은 태경풍문에 나온
다]

- 【星朱散】
- 성주산

定癇利痰.

간질을 진정시키고 담연을 배출한다.

南星(濕紙炮香熟) 壹兩, 朱砂 貳錢.

남성(습지에 싸서 냄새가 나도록 굽는다) 1냥, 주사 2돈.

右爲末, 用帶性猪心血爲圓, 桐子大, 每服壹圓, 煎防風湯調下.

이상을 가루 낸 후 갓 잡은 돼지 심장의 피와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빻
는다. 한 번에 1환씩 복용하되 방풍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 【猪膽南星散】
- 저담남성산

治癇後瘖不能言.

간질을 앓은 후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天南星(濕紙煨香).

큰 천남성(습지에 싸서 냄새가 날 때까지 굽는다).

右爲末, 每服壹字, 【雄猪膽汁】調下.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1자씩 복용하되 웅저담즙에 타서 넘긴다.

- 【肥兒圓】
- 비아원

治小兒心竅有惡血, 瘖不能言.

소아의 심장이 악혈로 막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木香】、【陳皮】、【甘草】煎湯, 吞【肥兒圓】. [方見中風門] 盖肥兒圓內有【黃連】, 能去惡血. [局方四床者是.]

목향·진피·감초 달인 물로 비아원 [처방은 중풍문에 나온다] 을 삼키게 한다. 비아원에는 황련이 들어 있어 악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제국방》의 산상(四床)⁴이 이런 경우이다.]

- 【驚啼方】
- 경제방

油髮燒灰存性, 每服壹字, 米湯調下.

유발(油髮)을 약성이 남도록 태워 재로 만든다. 한 번에 1자씩 복용하되 쌀 달인 물에 타서 넘긴다.

論髮除穴

발제혈에 대한 의견

小兒初誕, 收生者多於頭額前髮除中間灸之, 盖取其可以截風路也. 諸風篤證, 藥力不及, 昏迷沉絕, 嘿然無聲, 於此灼艾, 每有扶危之功, 然亦顧其善後之劑何如耳. 前集所載百會一穴, 在頂心端正旋毛間, 亦濟危困者以是哉.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마의 발제 중간에 뜸을 뜬다. 아마 풍사의 길목을 끊는다는 의미일 듯하다. 각종 풍증 중에 위독한 경우에는 약만으로는 효과를 얻지 못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축 늘어져 기절하거나 입을 움직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점에 뜸을 뜨면 늘 위태로움에서 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효과 있는 약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백회혈은 정수리 중앙의 가마에 있으니 이 혈도 위급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論腦麝銀粉巴硝等不可輕用

용뇌、사향、수은、경분、파두、망초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小兒急驚風, 古人以其內外熱熾, 風氣暴烈而無所泄, 故用【腦、麝、麻黃】以通氣關竅, 【銀、粉、巴、硝】以下其痰熱, 盖不得已而用之, 其實爲風熱盛實者設也. 世俗無見, 不權輕重, 每見發熱發搐, 輒用腦、麝、蟾酥、鉛霜、承銀⁵、輕粉、巴豆、芒硝等劑, 視之以爲常, 惟其不當用而輕用, 或當用而過用之, 是以急驚轉爲慢驚, 吐瀉胃虛, 荏苒時月, 驚風之所爲難療者, 正坐此也. 萬一發熱驚搐, 本爲傷風、傷寒、傷食、瘡豆而作, 誤藥至此, 其爲害豈淺淺哉! 以理觀之, 能用【細辛】、【羌活】、【青皮】、【乾薑】、【荊芥】之類, 以爲發散, 勝如腦麝, 能用【獨活】、【柴胡】、【山梔】、【枳殼】、【大黃】之類, 以爲通利, 勝如銀粉膏硝⁶. 設或當用而不可無之, 亦須酌量勿過可劑, 此幼幼書所謂【瀉青圓、導赤散】乃醫用之上藥者, 良以是歟, 故論此以爲輕用藥者勸.

옛 사람들은 소아의 급경풍에 대해 몸의 안팎에 열이 치성할 때 풍사가 갑자기 왕성해지면 새어나갈 곳이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뇌、사향、마황을 써서 막힌 기와 구규를 틔우고, 수은、경분、파두、망초를 써서 담열을 대변으로 빼냈다. 아마도 부득이할 때만 사용했겠지만 이는 분명히 풍열이 왕성한 실증 환자를 가정한 것이다. 요즘 세상에 식견 없는 의원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발열과 축닉을 보면 무조건 용뇌、사향、섬수(蟾酥)、연상(鉛霜)、수은、경분、파두、

망초 같은 약을 쓰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다. 합당히 쓸 상황이 아닌데도 함부로 쓰거나 합당히 쓸 상황에서 지나치게 쓰고 있다. 이렇게 급경풍을 만경풍으로 악화시키고 구토와 설사로 위기(胃氣)가 허약해진 채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경풍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 만일 열이 나면서 강직하는 증상이 본래 상풍이나 상한이나 상식이나 두창 때문에 생겼는데도 잘못된 약재를 써서 악화시킨다면 그 해악이 어찌 가볍겠는가. 원리로 따져보면 세신、강활、청피、건강、형개 같은 약재를 써서 열을 발산시키는 게 용뇌와 사향보다 낫고, 강활、시호、산치인、지각、대황 같은 약재를 써서 대변으로 빼내는 게 수은이나 경분이나 파두나 망초보다 낫다. 설사 합당히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약성이 강한 약을 뺄 수 없더라도 반드시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지나치지 않게 넣어야 한다. 이것이 《유유신서》에서 말한 '사청원과 도적산이야말로 의원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약이다.'라는 것이니 참으로 같은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함부로 약재를 쓰는 자들에게 이런 의견을 권한다.

論蜈蚣有毒

오공은 독성이 있다는 주장

蜈蚣有毒, 惟風氣暴烈者, 可以當之. 然其風氣暴烈, 非蜈蚣能截能擒, 亦不自止, 但用之貴乎藥病相當, 弗容固執. 或半字, 或壹字, 或桐子半圓, 或桐子壹圓, 尤在酌量而作劑也. 設或過焉, 當以【蚯蚓、桑皮】爲解.

오공은 독성이 있으므로 풍사가 갑자기 왕성해질 때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풍사가 갑자기 왕성해질 때 오공의 끊어내고 사로잡은 약효가 아니면 증세를 멈출 수 없다. 다만 약재와 병세가 합당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고집을 부리지 말라. 경우에 따라 0.5자, 1자, 오동자 절반, 오동자 크기로 사용하되 반드시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혹시 용량이 지나친 듯하면 구인이나 상백피로 해독시켜야 한다.

凡幼兒欲發驚風, 先神志不定, 恍惚懼人, 搭眼上視, 左顧右盼, 神手握拳, 悶鬱弩氣, 情態不若尋常, 如此者, 有驚即散驚, 有熱即退熱, 壅實即去壅實, 熱退則不生痰, 驚散則不生風, 壅滯通則氣得其平, 病無由作, 是固當以小劑治之. 若夫患在痰熱, 全未有風癇搐搦顛引之狀, 則只與退熱化痰, 如參蘇飲之類, 可也. 謹勿妄投通關利膈等劑, 惡或透其熱, 流入經絡, 反成風痰, 此又小兒無病不可服藥之戒.

대체로 소아에게 경풍이 발작하기 전에는 정신이 불안하거나,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눈을 치켜뜨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손을 편 채 주먹을 꼭 쥐거나, 답답해 하면서 성난 기색이거나 하는 등 정서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놀란 게 있으면 풀어주고, 열이 나면 내려주고, 몸속에 무언가 꼭 막혔으면 제거해주어야 한다. 열이 내리면 담연이 생기지 않고, 놀란 게 풀어지면 풍사가 생기지 않고, 꼭 막힌 게 뚫리면 기의 운행이 정상이 되니 더 생길 증상이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가벼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담열 증상이 있고 풍간이나 축닉이나 반장(反張) 증상이 전

혀 없다면 그저 열을 내리고 담연을 삭히는 삼소음 같은 약을 먹여야 한다. 관격을 뚫고 주리를 여는 약을 함부로 먹이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열사가 침투하여 경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리어 풍담(風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소아에게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다.

世俗玩習, 以爲小兒體熱, 或遇澡浴, 卽與久坐湯水之中, 風冷外傷, 水濕內滲, 頃刻間遽成風搐, 或惡叫頻吐, 或昏迷失音, 或洞泄不已, 勢如暴風疾雨, 難以支吾, 不可不戒.

요즘 세상에 이상한 풍조가 있다. 소아의 몸에 열이 날 때 목욕할 일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오래 앉혀 놓는다. 풍사나 냉기가 밖에서 손상시키고 습사가 몸속에 스며들면 잠깐 사이에 풍증과 축닉이 생긴다.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자주 토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멈추지 않고 죽죽 설사를 하면서 증세가 폭풍이나 소나기처럼 심해져 몸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니 꼭 조심해야 한다.

【附方】

【부방】

- 【獨活散】
- 독활산

治小兒風癇, 解表, 通裏內熱.

소아가 풍간을 치료한다. 표부를 해기시키고 몸속의 열을 뚫어 주는 약이다.

獨活、麻黃(去節)、川芎、天麻(煨)、防風(去芦叉)、細辛(去葉)、荊芥穗 各乙錢, 甘草(炙)、大黃(紙裹煨) 各五分.

독활、마황(마디를 제거한다)、천궁、천마(젓불에 굽는다)、방풍(노두와 곁뿌리를 제거한다)、세신(잎을 떼다)、형개수 각 1돈, 자감초、대황(습지에 싸서 젓불에 묻어 굽는다) 각 5푼.

右咬咀, 用【生薑】三片同煎, 食前服.

이상을 거칠게 잘라 생강 3조각과 함께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化風丹】
- 화풍단

治小兒風癇.

소아의 풍간을 치료한다.

天南星(牛膽製, 炒) 二錢, 天麻(煨)、羌活(去芦)、獨活、防風(去芦叉)、人參(去芦)、荊芥穗、川芎、甘草(炙) 各壹錢.

천남성(우담으로 법제하고 볶는다) 2돈, 천마(젓불에 굽는다)、강활(노두를 제거한다)、독활、방풍(노두와 곁뿌리를 제거한다)、인삼(노두를

제거한다) 、형개수 、천궁 、자감초 각 1돈.

右爲極細末, 煉【白蜜】丸, 如【芡實】大, 用【薄荷】煎湯研化, 或【紫蘇】煎湯, 食
遠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내고 졸인 백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박하 달인 물에 풀어서 복용하거나, 혹은 자소 달인 물로 공복에 복용한
다.

1. 蒸飯 : 蒸餅 ※문맥상 <

2. 혀를 깨무는 : 작설(嚼舌)의 의미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

3. 酒侵 : 酒浸 ※문맥상 <

4. 사상(四床) :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

5. 承銀 硃 水銀 ※문맥상 <

6. 銀粉膏硃 硃 銀粉巴硃 ※문맥상 <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三

신간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 권3



†疳

감질



諸疳方論

각종 감질에 대한 설명

熱氣未散, 復于他邪得之者, 又有病癖寒熱, 脇下痛硬, 或者不能漸與消磨, 遽以礪巴峻決, 津液暴傷得之者, 此非醫家輕藥壞病之過乎? 疳之爲候, 頭皮光急, 毛髮焦稀, 顴縮鼻乾, 口饒唇白, 兩眼昏爛, 揉鼻擗眉, 春聳体黃, 鬪牙咬甲, 焦渴自汗, 尿白瀉酸, 肚脹腸鳴, 癖結潮熱, 酷嗜瓜果、鹹酸、炭米、泥土, 而飲水占飲者, 皆其候也.

疳曰五疳, 病關五臟, 以臟別之. 【心疳】卽驚疳, 由乳食不調, 心臟受熱所致也. 蓋其血氣未定, 乳哺有傷, 易生壅滯, 內有滯熱, 未得疎通, 故心神驚鬱而作驚疳之候, 外證身體壯熱, 臉赤唇紅, 口舌生瘡, 胃膈煩悶, 小便赤澀, 五心皆熱, 盜汗發渴, 嚙齒虛驚, 夫是之謂心疳.

【肝疳】卽風疳, 由乳食不調, 肝臟受熱所致也. 若乳母寒暄不調, 滋味不節, 或外感風寒, 內傷喜怒, 邪氣未撤, 遽爾乳兒多成風疳. 肝者眼之候, 下膈伏熱, 痰涎壅滯, 以致肝風入眼, 赤腫翳生, 眵淚爛弦, 痛癢揉擦, 昏暗雀盲, 甚至經月眼合, 亦名疳眼. 外證, 搖頭揉目, 白膜遮睛, 眼青淚多, 頭焦髮直, 筋青腦熱, 甲癢筋攣, 燥渴汗多, 下痢瘡癰, 夫是之謂肝疳.

【腎疳】卽急疳, 由乳食不調, 臟腑伏熱所致也. 凡甘味入於脾而動虫, 虫動則侵蝕臟腑, 遂使孩提心下擾悶, 若上蝕齒齦, 則口瘡出血, 齒色紫黑, 下蝕腸胃, 則下痢肛爛, 溫癢生瘡, 療治不蚤, 精髓消耗, 難以有瘳. 虫者 也, 目爲溫, 多

疳傷. 久痢腸胃受溫得之, 狀如狐惑, 傷寒齒蝕之證, 或以走馬命名, 蓋齒屬腎, 腎主虛, 纔受熱邪, 疳氣直奔上焦, 故以走馬爲喻. 初作口氣名曰臭息, 次第齒黑名曰崩砂, 盛則斷爛名曰潰槽. 熱血迸出名曰宣露, 甚者齒皆脫落, 名曰腐根, 其根既腐, 縱得全活, 齒不復生. 外證, 腦熱肌削, 手足如水, 寒熱時來, 滑泄肚痛, 口臭乾渴, 齒斷生瘡, 爪黑面黧, 身多瘡疥, 夫是之謂腎疳.

【肺疳】卽氣疳, 由乳食不調, 壅熱傷肺所致也. 肺主乎氣, 鼻乃肺氣所通, 其氣不和, 則風溫乘虛, 客於皮毛, 入於血脉, 故鼻下兩傍, 赤癢瘡溫, 是爲鼻疳, 其瘡不通, 汁所流處, 隨即成瘡, 亦名疳. 外證, 咳嗽喘逆, 壯熱惡寒, 皮膚粟生, 鼻癢流涕, 咽喉不利, 頤爛唾紅, 氣脹毛焦, 泄利頻併, 夫是之謂肺疳.

【脾疳】卽食疳, 由乳食不節, 脾胃受傷所致也. 或乳母恣食生冷肥膩, 或乳兒過傷, 或飯後與乳, 致使吐乳多眠, 久則變爲乳癖, 腹脇結塊, 亦名疳. 外證, 面黃身黃, 肚大脚細, 吐逆中滿, 乏力酷啼, 水穀不消, 泄下酸臭, 合面困睡, 減食喫泥, 夫是之謂脾疳.

열기가 흠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기까지 겹치는 경우나, 벽적으로 오한발열이 나면서 옆구리 아래가 딱딱하고 아픈 경우에 흑자는 조금씩 사그라뜨리지 못한다면서 갑자기 망초와 파두를 써서 심하게 설사시키다가 결국 몸의 진액이 몹시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원들이 강한 약재를 함부로 써서 병을 물리치려는 방법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감질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두피가 당겨서 반짝거리거나, 터럭이 푸석하면서 듬성듬성해지거나, 숫구멍이 오그라들면서 코가 건조하거나, 입을 오물

여기면서 입술이 창백하거나, 두 눈에 생기가 없거나, 코와 눈썹 부근을 문지르거나, 봄에 귀가 먹으면서 몸이 누레지거나, 이빨을 부딪히면서 손톱을 씹거나, 몸이 바싹 마르면서 갈증과 자한이 있거나, 뿌연 오줌을 누고 시큼한 냄새 나는 설사를 하거나, 배가 똥똥하면서 꾸르륵거리거나, 벽적이 뭉치면서 주기적으로 열이 나거나, 오이나 과일이나 짜고 신 음식이나 술이나 생쌀이나 진흙을 계속 먹으려 하면서 물을 마실 때 독차지하여 마시는 경우이다.

감질에는 5가지가 있으니 증상이 오장과 관계되어 오장의 이름으로 구별한 것이다. 심감(心疳)은 경감(驚疳)이라고도 한다. 젖이나 음식이 지나칠 때 열사가 심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생긴다. 일반적으로 아이는 혈과 기가 안정되지 않아 젖을 배불리 먹으면 쉽게 뭉치게 되고, 몸속의 뭉친 곳에서 열이 나면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정신이 놀라고 마음이 답답해져서 경감이 된다. 경감의 외증은 몸에 고열이 나거나, 뺨과 입술이 붉어지거나, 입과 혀에 창이 생기거나, 흥격이 몹시 답답하거나, 소변이 붉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거나, 오심이 모두 뜨겁거나, 도한과 갈증이 나거나, 이를 갈면서 그냥 놀라는 것이다. 이런 병증을 심감이라고 한다.

간감(肝疳)은 풍감(風疳)이라고도 한다. 젖이나 음식이 지나칠 때 열사가 간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생긴다. 유모가 지내는 환경이 춥거나 젖거나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먹거나, 혹은 풍한에 감촉되거나 감정으로 내상이 생겼을 때 병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경솔하게 젖을 먹이면 대부분 풍

감이 생긴다. 간장의 상태는 눈으로 드러나는 법이니 아래의 격막에 숨은 열이 있거나 담연이 꼭 막혀서 간장의 풍사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빨갛게 붓고 예막이 생기거나, 눈꼽과 눈물이 많아져 짓무르고 흐리게 보이거나, 몹시 가려워 계속 비비거나, 시야가 어두워져 야맹증이 생긴다. 심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눈이 떠지지 않게 되면 감안(瘡眼)이라고 부른다. 풍감의 외증은 머리를 떨면서 눈을 비비거나, 흰 예막이 눈동자를 덮거나, 눈 주위가 파래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머리가 초췌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거나, 힘줄이 파래지면서 머릿에 열이 나거나, 손톱으로 여기저기 긁으면서 경련이 생기거나, 몸이 건조하고 갈증이 나지만 땀이 많이 나거나, 대변을 지리고 몸에 창이나 개선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병증을 간감이라고 한다.

신감(腎疳)은 급감(急疳)이라고도 한다. 젖이나 음식이 지나칠 때 오장육부에 잠복해 있던 열 때문에 생긴다. 대체로 단 맛은 비장으로 들어가 충을 움직이게 하니 충이 움직이면 오장육부를 갉아 먹어 마침내 아이의 명치 부근을 답답하게 만든다. 충이 위쪽으로 이빨이나 잇몸을 갉아먹으면 입에 창이 생겨서 피가 나면서 이빨이 자흑색으로 변하고, 아래쪽으로 위부나 대소장을 갉아먹으면 대변을 지리면서 항문이 짓물러 화끈거리고 간지러우면서 창이 생긴다.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정수가 고갈되어 회복하기 어렵다.

충은 갉아먹는다는 뜻이니 온닉(溫)이라고 하는 병증은 대부분 감질 때문에 생긴다. 온닉은 오래된 이질을 앓을 때 위부와 대소장이 따뜻한 음

식을 받아 생기는데 증상은 호흡증이나 상한으로 이빨이 좀먹는 증상과 비슷하다. 혹자는 온익을 주마감(走馬疳)이라고 부르니 이빨은 등줄기에 배속되고 신장을 허증을 주관하므로 열사가 침범하자마자 감질이 곧장 상초로 달려가기 때문에 달리는 말[走馬]에 비유한 것이다. 최초에는 입 냄새가 나니 취식(臭息)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저 이빨만 검어지는 증상을 붕사(崩砂)라고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잇몸이 짓무르니 궤조(潰槽)라고 하고, 발열과 출혈이 함께 생기면 선로(宣露)라고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빨이 모두 빠지는데 부근(腐根)이라고 한다. 이빨의 뿌리가 이미 썩어서 생명을 건지더라도 이빨이 다시 나지는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머리에 열이 나고 살이 바싹 마르거나, 손발이 얼음장 같거나, 오한과 발열이 자주 생기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면서 배가 아프거나, 입냄새가 나면서 입이 마르거나, 이빨이나 잇몸에 창이 생기거나, 손발톱과 얼굴이 까매지거나, 몸 여기저기에 창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병증을 신감이라고 한다.

폐감(肺疳)은 기감(氣疳)이라고도 한다. 젖이나 음식이 지나칠 때 뭉쳐있던 열사가 폐장을 침범하여 생긴다. 폐장은 숨을 주관하고 코는 폐장의 숨이 지나는 통로이다. 폐기(肺氣)가 안정되지 않으면 풍열이 그 틈을 타고 피부나 모발로 침입하여 혈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 아래 양쪽이 빨갛게 창이 생겨 가렵고 화끈거린다. 이것을 비감(鼻疳)이라고 한다. 창 때문에 숨이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하고 진물이 흐르는 곳에도 창이 생겨서 감닉(疳)이라고도 한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고열과 오한이 나거나, 피부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거나, 코가 가려우면서 콧물이 흐르거나, 목구멍이 깔깔하거나, 턱 부근이 짓무르면서 침이 붉게 되거나, 가슴이 부풀어오르면서 터럭이 푸석해지거나, 설사나 이질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병증을 폐감이라고 한다.

비감(脾疳)은 식감(食疳)이라고도 한다. 젖이나 음식이 지나쳐서 비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생긴다. 혹은 유모가 생략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유모가 식후에 젖을 물려 아이가 젖을 토하는데도 계속 자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손상된 상태가 오래되면 악화되어 유벽(乳癖)이 되니 배나 옆구리 부분에 멍울이 만져진다. 이것을 내감(妳疳)이라고도 부른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얼굴과 몸통이 누레지거나, 배는 뽕뽕한데 다리는 얇아지거나, 구토나 구역질을 하면서 뱃속이 답답하거나, 힘이 없으면서 심하게 울거나,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여 시큼한 설사를 하거나, 얼굴을 바닥에 댄 채 곤히 자거나, 음식을 적게 먹고 진흙을 먹는 것이다. 이런 병증을 비감이라고 한다.

五臟疳傷, 大抵然爾. 析而論之, 曰五疳出虫, 曰蛔疳, 曰脊疳, 曰腦疳, 曰乾疳, 曰疳渴, 曰疳瀉, 曰疳痢, 曰疳腫脹, 曰疳勞, 曰無辜疳, 曰丁奚, 曰哺露. 證狀非一, 可不舉宏撮要而條析之乎?

五疳出虫者, 疳傷之源, 雖起於乳哺不調, 然臟腑停積已久, 莫不化而爲虫. 其虫或如絲髮, 或如馬尾, 多出於頭項腹背之間, 黃白或赤者可醫, 青黑則難療也.

蛔疳者, 失乳飯早, 食肉太早, 或腸胃停蓄, 胝膩化爲蛔虫, 皺眉多啼, 嘔吐清沫, 腹中乍痛, 肚脹青筋, 唇口紫黑, 腸頭齒癢是也. [蛔雖食虫, 虫不可動, 從口鼻出者, 難治.]

脊疳者, 虫蝕脊膂, 身熱羸黃, 積中生熱, 煩溫下痢, 拍背如鼓鳴, 脊骨如鋸齒, 或十指皆瘡, 頻嚙爪甲是也.

腦疳者, 胎中素挾風熱, 生下乳哺越常, 頭皮光急, 滿頭餅瘡, 腦熱如火, 髮結如穗, 遍身多汗, 顙腫頗高是也. [臨產多慾亦然, 易損兒眼.]

乾疳者, 瘦悴少血, 舌乾多啼, 其病在心, 目不轉睛, 乾啼少淚, 其病在肝, 身熱尿乾, 手足清冷, 其病在腎, 聲焦皮燥, 大便乾結, 其病在肺, 搭口癡眠¹, 胃脘乾渴, 其病在脾, 總爲五乾疳是也.

疳渴者, 臟中夙有疳氣, 加之乳母恣食五辛酒麪炙燂, 使小兒心肺壅熱, 日則煩渴引水, 乳食不進, 夜則渴止是爾.

疳瀉者, 毛乾唇白, 額上青紋, 肚脹腸鳴, 泄下糟粕是爾. [總㉔㉔藥止之².]

疳痢者, 挾受風寒暑濕, 或冷熱不調, 或停積宿滯, 水穀不聚, 頻下惡物是爾.

疳腫脹者, 虛中有積, 其毒與氣交并, 故令腹肚緊張, 由是脾復受濕, 故令頭面脚手虛浮是爾. [㉔當磨積調氣]

疳勞者, 潮熱往來, 五心煩熱, 手足心及胃前熱而發倉³, 盜汗骨蒸, 嗽喘悴是爾. 或渴而復瀉, 飲水惡食, 肚硬如石, 面色如銀, 斷不可活.

無辜疳者, 腦後項边有核如彈, 按之轉動, 軟而不疼, 其間有虫如米粉, 不速破之, 則虫隨熱氣流散, 搖蝕臟腑, 以致肢躄癰瘡, 便利膿血, 壯熱羸瘦, 頭露骨高是爾. [針刺破, 膏藥貼.] 或澣濯兒衣, 露於簷下, 爲雌烏落羽所污, 兒着此衣,

虫入皮毛, 亦致無辜之疾, 兒衣已曬, 須微火烘之.

其若手足極細, 項小骨高, 尻削胛癢, 腹大臍突, 號哭胃陷, 或生穀癥, 是爲丁奚. 虛熱來往, 頭骨分開, 翻食吐虫, 煩渴嘔噦, 是爲哺露. 丁奚哺露, 皆因脾胃久虛, 不能化水穀以榮血氣, 故肌肉消鑠, 腎氣不足, 復爲風冷所傷, 使柴骨枯露, 亦有胎中受毒, 臟腑少血致之. 此皆無辜種類之疾, 病而至此, 不幾殆哉! 又有小兒久患腎疳, 內虛不食, 甚者天柱骨倒, 治法當用【錢氏地黃圓】加驅疳等劑, 仍與貼項強筋, 若不識證, 謂之㊦轉㊦也⁴. 天柱骨倒, 凡有三種, 有吐瀉日久, 羸弱成者, 有肝膽伏熱, 面赤唇紅, 忽變此者, 有傷寒不及發表成者, 是皆風邪入肝, 以致筋絡舒弛. 吐瀉者當調胃氣, 肝熱者隨輕重以涼肝, 並與強筋貼項, 惟傷寒天柱骨倒者難療, 故併及之.

오장에 따른 감질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다. 자세히 나누어 보자면 오감출충(五疳出虫), 회감(蛔疳), 척감(脊疳), 뇌감(腦疳), 건감(乾疳), 감갈(疳渴), 감사(疳瀉), 감리(疳痢), 감종창(疳腫脹), 감로(疳勞), 무고감(無辜疳), 정해(丁奚), 포로(哺露)가 있다. 증상이 같지 않으니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오감출충(五疳出虫)은 젖을 지나치게 먹여서 생기는 것이 감질의 원인이지만 그것이 오장육부에 적체된 채 오래 지나 충으로 변한 병증이다. 충은 실이나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말충 같기도 하다. 대부분 머리카락이나 배나 등 부근에서 나온다. 황색이나 백색이나 적색은 치료할 수 있으나, 청색이나 흑색은 치료하기 어렵다.

회감(蛔瘡)은 일찍 젖을 떼고 밥을 먹이거나 고기를 너무 어릴 때 먹여서 간혹 음식이 위부나 대소장에 쌓인 후 달거나 기름진 부분이 회충으로 변화한 병증이다. 미간을 찡그리면서 계속 울거나, 투명한 거품을 게우거나, 뱃속이 잠깐씩 아프거나, 배가 똥똥하면서 푸른 핏줄이 드러나거나, 입술 주변이 자흑색이 되거나, 항문 부근이 깨무는 듯 가려운 증상이 있다. [회충은 음식을 축내는 벌레지만 회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입이나 코로 나오는 경우에는 치료하기 어렵다.]

척감(脊瘡)은 충이 등줄기를 갉아 먹어 몸이 뜨거우면서 누렇게 여위거나, 적체된 음식에서 열이 생겨 등줄기가 몹시 화끈거리면서 대변을 지르는 병증이다. 등을 두드리면 북소리처럼 울리거나, 등뼈가 톱니처럼 되는 듯한 증상이 있고, 간혹 열 손가락에 모두 창이 생기면서 계속 손톱을 물어뜯기도 한다.

뇌감(腦瘡)은 뱃속에서부터 풍사나 열사에 감촉된 상태에서 태어난 후에 젖을 지나치게 먹어서 생기는 병증이다. 두피에 당기고 반짝거리거나, 머리에 병창(餅瘡)이 가득하거나, 머릿속이 불처럼 뜨겁거나, 머리카락이 떨어지거나, 온몸에 땀이 많이 나거나, 뺨이 붓고 숫구멍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있다.

건감(乾瘡)은 총 5가지가 있다. 초철헤지면서 핏기가 없고 혀가 마르며 계속 우는 경우는 병사가 심장에 있기 때문이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한 채 눈물이 거의 나지 않고 우는 경우는 병사가 간장에 있기 때문이며, 몸통이 뜨겁고 엉덩이가 건조하며 손발이 찬 경우는 병사가 신장에 있기 때

문이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피부가 건조하며 대변이 마른 채 나오지 않는 경우는 병사가 폐장에 있기 때문이며, 입을 벌린 채 눈이 멍하고 가슴 쪽이 건조하면서 갈증이 나는 경우는 병사가 비장에 있기 때문이다.

감갈(疳渴)은 오장에 어렸을 때부터 감질이 잠복해 있다가 유모가 오신 채나 술이나 국수나 전이나 산적을 마음대로 먹은 다음 젖을 먹여 아이의 심장이나 폐장에 열이 뭉치게 만들어 생긴다. 낮에는 몹시 갈증이 나면서 물을 찾지만 하고 젖이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다가, 밤이 되면 갈증이 멈추는 증상이다.

감사(疳瀉)는 머리카락이 푸석하면서 입술이 창백하고 이마에 푸른 핏줄이 나타나며 배가 똥똥해지면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병증이다. [약성이 뜨거운 약재를 써서 설사를 멎게 하지 말아야 한다.]

감리(疳痢)는 풍한서습의 사기가 침범하여 생기고, 혹은 주변 환경이 춥거나 더워서 생기거나 음식에 체하여 생기기도 한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지리거나 이상한 것이 대변으로 나오는 증상이 있다.

비기(脾氣)가 허할 때 적취가 생기면 독기와 비기가 병합되기 때문에 배가 당기면서 똥똥해진다. 이렇게 되면 비기가 한 번 더 습사에 손상되므로 머리 전체와 팔다리가 붓는다. 이것이 감종창(疳腫脹)이다.

감로(疳勞)는 주기적으로 열이 오르내리고 오심이 답답하고 뜨거우면서 창이 생기며 도한과 골증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초췌한 병증이다. 혹여나 갈증이 나면서 설사까지 겹치고 물만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배가 돌처럼 단단하고 낫빛이 은색인 경우는 결단코 살릴 수 없다.

무고감(無辜疳)은 뒷목 주변에 탄알만 한 멍울이 생기는 것으로 누르면 움직이고 말랑하면서 아프지도 않다. 멍울 속에는 쌀가루 같은 충이 있으니 속히 터뜨리지 않으면 충이 열기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자극을 받으면 오장육부를 갉아먹어서 사지와 몸에 창이 생기거나 피고름을 싸거나 고열이 나면서 바싹 마르거나 머리에 살이 빠져 뼈가 도드라지게 된다. [침으로 찔러 터뜨린 후 고약을 붙여야 한다.] 간혹 아이의 옷을 빨아서 처마 아래에 널어 놓은 후 암까마귀 깃털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아이에게 입히면 충이 피부나 모공으로 들어가서 무고감이 되기도 한다. 아이의 옷을 벌레에 말린 다음에 반드시 은근한 불에 말려야 한다.

팔다리가 매우 가늘고 목뼈가 튀어나오며 엉덩이 살이 없어지고 몸에 힘이 없으며 배가 커져서 배꼽이 튀어나오고 소리지르며 울면 가슴이 움푹해지고 간혹 곡징(穀癥)도 생기는 증상이 정해감(丁奚疳)이다. 허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두개골이 벌어지며 음식을 내뱉으면서 충을 토하고 번갈아 생기며 구토나 구역질을 하는 증상이 포로감(哺露疳)이다. 정해감과 포로감은 모두 비위가 오랫동안 허하여 음식을 소화시켜 혈과 기를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되거나, 신기(腎氣)가 부족하여 풍사나 냉기에 한 번 더 손상되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게 되거나, 뱃속에서 사기에 감촉되어 선천적으로 오장육부에 혈이 부족하여 생기기도 한다. 이 2가지는 모두 무고감과 같은 종류이니 병세가 이렇게 되면 거의 죽은

상태이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신감을 오래 앓은 아이가 위기(胃氣)가 허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심하면 천주골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전씨지황원에 감질을 몰아내는 약재를 더하여 쓰고 뺏뺏해진 목 뒤의 힘줄에 외용약을 붙여 주어야 한다. 증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연(五軟)이라고 한다면 틀렸다. 천주골이 쓰러지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다. 구토와 설사를 오랫동안 계속하여 바싹 마르고 허약해져 생기는 경우, 간장이나 담부에 잠복한 열로 얼굴과 입술이 붉다가 갑자기 이렇게 악화된 경우, 상한에 표부를 발산시키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치지 못해서 생긴 경우이다. 이 경우는 모두 풍사가 간장에 들어가서 힘줄이 늘어지게 된 것이다.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기를 고르게 해야 하고, 간장의 열사 때 문인 경우에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간장의 열을 식혀야 하며, 2가지 경우 모두 뺏뺏해진 힘줄이나 목 뒤에 외용약을 붙여주어야 한다. 상한으로 천주골이 쓰러진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이렇게 함께 언급한다.

雖然疳之爲說, 亦畧盡矣, 調治之法, 將何擇焉? 錢氏曰, 治疳當辨冷熱肥瘦, 初病爲肥熱疳, 久病爲瘦冷疳, 熱者涼之, 冷者溫之, 冷熱者溫涼之, 此其要也. 熱疳病多在外, 羊下⁵赤爛, 頭瘡溫癢, 五心煩熱, 掀衣氣龜, 渴引冷水, 煩躁臥地, 肚熱脚冷, 潮熱往來, 皆熱疳也. 冷疳病多在內, 利色無常, 其沫青白, 肢躄軟弱, 目腫面鰲, 又一證, 燥渴臥地, 似有熱狀, 惟飲食不進, 滑泄無已, 亦冷疳也. 其有瀉多膿血, 日加瘦弱, 此則謂之冷熱疳.

大抵疳之受病,皆虛使然,熱者虛中之熱,冷者虛中之冷,治熱不可妄表過涼,治冷不可峻溫驟補,故錢氏又曰,小兒易爲虛實,脾虛不受寒溫,腹寒則生冷,腹溫則生熱,當識此而勿誤,是果非幼幼之綱領乎?上醫處此,消積和胃,滋血調氣,隨順藥餌以扶之,淡薄飲食以養之,榮衛調和,臟腑自然充實,一或過焉,君子未保其往也。

取積之法,又當權衡.積者,疳之母,由積而虛,謂之疳極,諸有積者,無不肚熱脚冷,須酌量虛實而取之.若積而虛甚,則先與扶胃,使胃氣內充,然後爲之微積,若積朕乎虛⁶,則先與利導,纔得一泄,急以和胃之劑,爲之扶虛,然取積雖當踈利,如【白芫荂】、【蘿菔子】、【縮砂】、【蓬朮】消積等輩,亦不可無.脇間癖痛,亦虛中之積也,先寒後熱,飲水不食,或因飲水以致喘嗽.錢氏有癖爲潮熱之說,治法,解散寒熱,卽與下癖.合是而觀,發作不同,療治不一,又可無權度於此哉?

若夫諸疳惡證,心疳,飲水不已,食則驚啼,耳邊紋多,舌上黯黑者,不治.肝疳,左脇結硬,頻數吐涎,目睛青筋,眼角黑氣者,不治.腎疳,飲水好鹹,小便如乳,耳焦肩聳,牙黑骨枯者,不治.肺疳,欬逆氣促,頻瀉白沫,身上粟生,其色斑黑者,不治.脾疳,喫泥泄痢,水穀不消,唇白腹高,人中平滿者,不治.

其或滑泄不休,脫肛吃逆,抱起昏沉,手足垂軟,襖及脚心,全不知覺,項筋舒展,身軀變冷,是則爲五絕證也.㊸者胃陷喘噦,乳食直瀉,腫滿下痢,復腫脹皮㊸㊸㊸㊸㊸㊸光紫,與夫疳勞渴瀉,面槁色夭,骨露齒張,肚硬不食者,皆危篤矣⁷.抑有聞焉,石韞玉而山輝,水懷珠而川媚.人受父母之氣以生,精血不榮,胞胎有損,如草木萌芽之受傷,望其華實之不猥褻者,難矣.丁奚、哺露、腦疳

瘡爛, 非胎中已受之病乎? 不特此爾, 兒方週晬, 母復有孕, 乳汁成毒, 斂鬱小兒神氣, 亦致骨立羸羸, 是謂之魃病 [音奇], 凡此等類, 盧扁復生, 難施其巧, 余於終篇, 所以爲之推關啓鑰云.

감질의 설명은 대략 마쳤다. 그렇다면 감질을 치료하고 조리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전율이 말한 '감질을 치료할 때는 냉증인지 열증인지, 아이가 통통한지 말랐는지를 분간해야 한다. 초기에는 통통하고 열증인 감질이고, 오래되면 바싹 마르고 냉증인 감질이다. 열이 나면 식혀주고, 냉증이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고, 냉증과 열증이 모두 있으면 따뜻하게 하는 약재와 식히는 약재를 함께 써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열감(熱疳)은 대부분 증상이 겉에 드러난다. 코 아래가 빨갱게 짓무르거나, 두피에 창이 생겨 화끈거리면서 가렵거나, 오심에 번열이 나거나, 옷을 들척이면서 숨이 거칠어지거나, 갈증으로 냉수를 찾거나, 바닥에 누워 계속 움직이거나, 배는 뜨겁지만 다리는 차갑거나, 주기적으로 열이 오를락내릴락하는 증상은 열감의 증상이다. 냉감(冷疳)은 대부분 증상이 속에 있다. 대변의 색깔이 이상하거나 청색 혹은 백색의 거품이 섞여 있거나, 몸 전체에 힘이 없거나, 눈 주위가 붓고 낮빛이 까매지거나 하는 증상이다. 이외에도 바닥에 누운 채 번갈이 있어 마치 열증 같지만 음식을 넘기지 못하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설사하는 경우도 냉감이다. 설사에 피고름이 섞여 있고 날이 갈수록 더 바싹 마르는 경우도 있으니 이

런 증상을 냉열감(冷熱疳)이라고 한다.

대체로 감질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 위기(胃氣)가 허해졌기 때문이다. 열증도 위기가 허하여 생긴 열증이고, 냉증도 위기가 허하여 생긴 냉증이다. 열증을 치료할 때도 함부로 발산시켜 지나치게 식혀서는 안 되고, 냉증을 치료할 때도 강하게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갑작스레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율이 '소아는 쉽게 허증이 되거나 실증이 된다. 비기(脾氣)가 허하면 약성이 차거나 따뜻한 약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다. 배 부근이 차가우면 냉증이 생긴 것이고, 배 주변이 따뜻하면 열증이 생긴 것이다. 이 법칙을 잘 기억하여 실수하지 말라.'라고도 했으니 이 말이 과연 세상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여기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상급의 의원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적취를 사그라뜨리면서 위기(胃氣)를 안정시키고 혈과 기를 북돋으면서 상황에 따라 약재를 써서 돕고, 한편으로는 담박한 음식을 먹여 돌본다. 이렇게 하면서 기혈이 안정되면 오장육부가 자연히 튼실해진다. 하나라도 지나친 방법을 사용하면 성인군자라도 앞으로의 치료를 보전하지 못한다.

적취를 치료하는 방법은 특히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적취는 감질의 부모뻘이다. 적취 때문에 위기가 허해지면 감질이 극심해졌다고 말한다. 각종 적취가 있으면 배가 뜨거우면서 다리가 차갑게 되는 법이니 반드시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가늠하여 치료해야 한다. 적취에 허증이 심하면 우선 위기를 살려서 위기가 회복되면 그다음에 살짝 설사시켜서 치료해야 한다. 허증보다 적취가 훨씬 심하면 우선 하법을 써서 설사를 한 번 시킨 다음

재빨리 위기를 안정시키는 약을 써서 허증을 부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취를 치료할 때 대변으로 빼내는 하법을 쓰더라도 백두구·낙복자·축사·봉출처럼 적취를 사그라뜨리는 약재를 빼서는 안 된다. 옆구리 부근이 벽적(癖積)으로 아픈 경우도 위기가 허할 때 적취가 생긴 것이니 오한이 난 다음 열이 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며 간혹 물을 마시면 심한 기침을 하기도 한다. 전율은 벽적이 생기면 조열이 난다는 설명을 하면서, 치료법으로는 한사와 열사를 흘려 주어 벽적을 대변으로 배출한다고 하였다. 이 말에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발병 원인도 같지 않고 치료법도 같지 않으니 적취를 치료할 때 더욱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각종 감질의 역증은 다음과 같다. 심감일 때 물을 계속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 놀라 울고 귀에 핏줄이 많이 나타나며 혀가 까매지는 경우는 불치증이다. 간감일 때 왼쪽 옆구리에 딱딱한 멍울이 있고 담연을 자주 토하며 눈과 주위에 푸른 핏줄에 나타나고 눈 끝 부분이 어두워지는 경우는 불치증이다. 신감일 때 물을 계속 마시면서 짠 음식을 찾고 젖처럼 흰 오줌을 누며 귀가 까매지면서 어깨가 솟아오르고 이빨이 까매지면서 앙상하게 마르는 경우는 불치증이다. 폐감일 때 숨이 찰 정도로 기침을 하고 불투명한 흰 색의 거품을 자주 설사하며 몸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고 얼굴에 검버섯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는 불치증이다. 비감일 때 진흙을 먹고 설사를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입술이 창백하면서 배가 똥똥하며 인중 부분이 팽팽해지는 경우는 불치증이다.

혹여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설사하고 탈항되면서 심한 기침을 하

거나, 안아서 일으켜도 정신이 혼미하거나, 손발이 축 늘어지거나, 발과 발바닥에 전혀 감각이 없거나, 뒷목의 힘줄이 늘어지면서 몸 전체가 식는 증상은 5가지 죽음의 징조이다. 심한 경우는 가슴이 움푹해지면서 구역질을 하거나, 젖이나 음식을 먹자마자 설사하거나, 온몸이 붓는데도 대변을 지리지 않거나, 배와 옆구리 부분이 뻥뻥해지면서 아프거나, 피부에 보라색 창이 생기거나, 살이 보라색으로 빛나는 경우, 또는 감로로 갈증과 설사가 있으며 얼굴이 바싹 마르며 뼈가 튀어나오고 이빨이 벌어지며 배가 단단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모두 위독한 증상이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난다. '돌이 옥을 간직하고 있어 산 전체가 반짝이고, 물이 진주를 품고 있어 냇물 전체가 아름답네.'⁸ 사람이 부모에게 기운을 받아 태어날 때 부모의 정혈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뱃속에서 손상을 받는다는 건 식물이 싹틀 때 손상되는 경우와 같으니 그 꽃과 열매가 못나고 작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테다. 정해감·포로감·뇌감으로 창이 생기면서 짓무르는 증상은 뱃속에서 생긴 병이 아니겠는가. 이뿐 아니라 아이가 이제 막 돌인데 어머니가 다시 임신하면 젖에 독성이 생겨 젖먹이 아이의 기운을 억눌러 뼈가 앙상하면서 바싹 마르게 되니 이를 기병(魑病)이라고 부른다. 이런 병증들은 편작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치료를 하기 어렵다. 내가 마지막 편에서 '빳장을 빼고 자물쇠를 열었다'라고 말한 이유이다.

1. 癡眠 ㉠ 癡眼 ※문맥상 ←

2. 總㉠㉠藥止之 ㉠ 勿用熱藥止之 ※《보제방》, 《증치준승》 ←

3. 倉 ㉠ 瘡 ※문맥상 ←

4. 謂之㉠轉㉠也：謂之五軟，非也 ※《증치준승》 ←

5. 羊下 ㉠ 鼻下 ※《증치준승》 ←

6. 爲之微積，若積朕乎虛 ㉠ 微利，若積勝乎虛 ※《증치준승》 ←

7. 其或滑泄不休，脫肛吃逆，抱起昏沉，手足垂軟，襁及脚心，全不知覺，項筋舒展，身軀變冷，是則爲五絕證也. ㉠者胃陷喘噦，乳食直瀉，腫滿下痢，復腫脹皮㉠㉠㉠㉠㉠㉠光紫，與夫疳勞渴瀉，面槁色夭，骨露齒張，肚硬不食者，皆危篤矣 ㉠ 其或滑泄不休，脫肛咳逆，抱起昏沉，手足垂軟，足及脚心，全不知覺，項筋舒展，身體變冷，是則爲五絕證候. 甚者胸陷嘔噦，乳食直瀉，腫滿不痢，腹脅脹疼，皮發紫瘡，肌肉光紫，與夫疳勞渴瀉，面槁色瘦，骨露齒張，肚硬不食者，皆危篤矣 ※《보제방》 ←

8. 《문선文選》 권 17에 나오는 진(晉)나라 육기(陸機)의 〈문부文賦〉 구절이다. ←

諸疳證治

각종 감질의 증상과 치료법

- 【集聖圓】
- 집성원

諸疳通用.

각종 감질에 통용한다.

芦薈、北五靈脂、好夜明砂(焙)、縮砂、橘皮、青皮(去白)、蓬莪朮(煨)、木香、史君子(畧煨取肉) 各二錢, 鷹爪黃連(淨)、蝦蟆(日乾炙焦) 各參錢.

노회, 북오령지, 품질 좋은 야명사(겉불에 말린다), 축사, 굴피, 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봉아출(젓불에 굽는다), 목향, 사군자(젓불에 묻어 살짝 구운 후 살을 쓴다) 각 2돈, 응조황련(깨끗이 다듬는다), 하마(벌에 말렸다가 까맣게 굽는다) 각 3돈.

右末, 雄猪膽貳枚, 取汁和藥, 入糕糊圓麻子大, 每拾伍圓, 米飲下. 疳勞瘦弱, 本方加【當歸】一錢半, 【川芎】參錢.

이상을 가루 낸다. 응저담 2개를즙 내어 약과 섞고 설기떡으로 쏜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감로로 바싹 마른 경우에는 본방에 당귀 1.5돈과 천궁 3돈을 더한다.

- 【噯疳散】

- 체감산

芦薈、黃連 各一錢, 瓜蒂、猪牙皂角、蝦蟆灰 各半錢, 麝 少許.

노회、황련 각 1돈, 과체、저아조각、하마회 각 0.5돈, 사향 약간.

右末, 吹入鼻, 噯則可療.

이상을 가루 낸 후 코에 붙어 넣어 재채기를 하면 치료할 수 있다.

- 【黃連肥兒圓】

- 황련비아원

治一切疳, 及疳眼赤腫, 痛癢昏暗, 雀盲, 或經月合眼.

각종 감질을 치료한다. 또한 감질로 눈 주위가 빨갛게 붓고 가렵고 아프면서 눈이 깜깜해지거나 야맹증이 된 경우, 혹은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 눈이 붙어버린 경우를 치료한다.

鷹爪黃連(淨) 一兩, 蕪荑(焙)、麥芽(炒)、神麴(炒) 各半兩, 青皮(去白)、史君子肉(焙) 各貳錢半.

응조황련(깨끗이 다듬는다) 1냥, 무이(겉불에 말린다)、맥아(볶는다)、신국(볶는다) 각 0.5냥, 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사군자 과육(겉불에 말린다) 각 2.5돈.

右末, 獐猪膽汁浸糕圓, 麻子大, 每柒圓, 米湯下. 疳熱眼, 【山梔】仁煎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을 탄 물에 담갔던 설기떡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7환씩 쌀 끓인 물로 넘긴다. 감질에 열이 나고 눈병이 있을 때는 산치인 달인 물로 넘긴다.

- 【大蘆薈圓】

- 대노회원

治諸疳.

각종 감질을 치료한다.

蘆薈、燕薁、木香、青黛(乾)、檳榔、川黃連(淨) 各一分, 蟬殼 貳十一枚, 胡黃連 半兩, 麝 少許.

노회、무이、목향、청대(말린다)、빈랑、천황련(깨끗이 다듬는다) 각 1푼, 선각 21개, 호황련 0.5냥, 사향 약간.

右末, 猪膽貳箇, 取汁浸糕圓, 麻子大, 每貳拾圓,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 2개를 즙 내고, 그 즙을 탄 물에 담갔던 설기떡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 【脂連圓】

- 지련원

治五疳潮熱, 肚脹髮焦.

5가지 감질로 주기적으로 열이 나면서 배가 똥똥하고 머리카락이 푸석한 경우를 치료한다.

胡黃連 半兩, 香潤五靈脂 一兩.

호황련 0.5냥, 향이 나면서 윤기가 있는 오령지 1냥.

右末, 獐猪膽汁圓, 麻子大, 每服十五圓, 米飲下. 五疳潮熱, 謹勿用【大黃】、【黃芩】.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5가지 감질로 조열이 있을 때는 대황이나 황금을 쓰지 말아야 한다.

- 【五疳良方】
- 오감양방

川黃連(去鬚)、蕪荑(取仁)、神麴(炒)、麥蘖(炒)、橘紅、木香、蝦蟇(燒存性) 各一錢, 史君子 三十个(煨, 去殼), 肉豆蔻(生) 二个, 雞心檳榔 二个, 麝一字(別研).

천황련(잔뿌리를 제거한다)、무이(속씨를 쓴다)、신국(볶는다)、맥얼(볶는다)、굴홍、목향、하마(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각 1돈, 사군자 30개(갯불에 묻어 구운 후 껍질을 제거한다), 육두구(생것) 2개, 계심빈랑 2개, 사향 1자(따로 갈아 둔다).

右細末, 雄猪膽二枚取汁, 入好酒, 打清麪爲圓, 芥子大, 每服十伍圓,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웅저담 2개를 즙 내어 좋은 술에 넣고, 그 술로 깨끗한 밀가루와 약 가루를 반죽한 후 개자(芥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 복용할 때 1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 【胡黃連圓】

• 호황련원

治熱疳.

열감(熱疳)을 치료한다.

胡黃連、川黃連 各半兩, 朱砂 一錢半(另研).

호황련、천황련 각 0.5냥, 주사 1.5돈(따로 갈아 둔다).

右二連爲末, 和【朱砂】入猪膽內, 繫定虛懸於銚中, 煮一炊, 久取出研, 【蘆薈】、【青黛乾】各二錢半, 去足【蝦蟇灰】二錢, 【麝】少許, 粳米飯圓, 麻子大, 每七十圓, 食後米飲下.

이상에서 호황련과 천황련을 가루 낸다. 주사를 저담 속에 넣고 실로 묶어 고정한다. 다음 술 위에 매단 채 물을 한번 끓인다. 한참 후에 꺼내어 갈고, 노회·청대(말린다) 각 2.5돈과 다리를 떼 하마(태워서 재로 만든다) 2돈과 사향 약간을 섞은 후 멍쌀밥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70환씩 복용하되 식후에 미음으로 넘긴다.

- 【至聖圓】

- 지성원

治冷疳瀉.

냉감(冷疳)이나 감사(疳瀉)를 치료한다.

丁香、丁皮 各一錢, 木香、紫厚朴(製)、史君子肉(焙)、肉豆蔻(濕紙畧煨)、橘紅 各二錢.

정향、정향피 각 1돈, 목향、자후박(법제한다)、사군자 과육(겉불에 말린다)、육두구(습지에 싸고 잿불에 묻어 살짝 굽는다)、귤홍 각 2돈.

右末, 神麴糊圓, 麻子大, 每七圓, 食前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신국을 넣어 쏘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7환씩 복용하되 식전에 미음으로 넘긴다.

- 【通神圓】

- 통신원

治冷熱疳.

냉열감(冷熱疳)을 치료한다.

胡黃連、川黃連 各三錢, 木香、蕪荑(炒) 各二錢, 丁香、肉豆蔻(生)、史君子(焙肉) 各一錢, 大蝦蟇乾 一枚(剉碎, 水煮爛研膏).

호황련·천황련 각 3돈, 목향·무이(볶는다) 각 2돈, 정향·육두구(생것)
·사군자(겉불에 말려 과육을 쓴다) 각 1돈, 큰 하마 1개(말린 것을 썰어
서 빵고 물에 푹 달인 다음 갈아서 고약처럼 만든다).

右末, 膏和圓, 麻子大, 每十圓,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하마로 만든 고약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
다. 한 번에 1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 【伏神圓】

● 복신원

治心疳驚疳.

심감(경감)을 치료한다.

伏神、芦薈、琥珀、川黃連(淨)、赤伏苓 各三錢, 鈞藤皮、遠志肉(薑製, 焙
乾)、蝦蟇灰 各二錢, 細節石菖蒲 一錢, 麝 少許.

복신·노회·호박·천황련(깨끗이 다듬는다)·적복령 각 3돈, 조구등피
·원지 과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겉불에 말린다)·하마(태워 재로 만든
다) 각 2돈, 마디가 짧은 석창포 1돈, 사향 약간.

右末, 粟米糊圓, 麻子大, 每十圓, 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에 10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 【天麻圓】

- 천마원

治肝疳、風疳、疳眼.

간감(풍감)이나 감질로 생긴 눈병을 치료한다.

靑黛(乾)、川黃連、天麻、北五靈脂、夜明砂(微炒)、川芎、芦薈 各二錢, 龍膽草、防風、蟬殼(去足) 各一錢半, 全蝎 二枚(焙), 麝 少許, 乾蟾頭(炙焦) 三錢.

청대(말린다)、천황련、천마、북오령지、야명사(살짝 볶는다)、천궁、노회 각 2돈, 용담초、방풍、선각(다리를 뚫다) 각 1.5돈, 전갈 2개(겉불에 말린다), 사향 약간, 건섬두(까맣게 굽는다) 3돈.

右末, 猪膽汁浸糕圓, 麻子大, 每十圓, 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을 넣은 물에 담근 설기떡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
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0환씩 박하탕으로 넘긴다.

- 【生熟地黃湯】

- 생숙지황탕

治疳眼閉合不開, 內有朦霧.

감질로 생긴 눈병으로 눈이 붙어 뜨지 못하고 눈에 예막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生乾地黃、熟地黃 各半兩(淨), 川芎、半赤茯苓、枳殼(製)、杏仁(水浸, 去皮)、川黃連(淨)、半夏麴、天麻、地骨皮、甘草(炙) 各二錢半.

생건지황、숙지황 각 0.5냥(깨끗이 다듬는다), 천궁、반적복령、지각(법제한다)、행인(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한다)、천황련(깨끗이 다듬는다)、반하국、천마、지골피、자감초 각 2.5돈.

右剉, 每服二錢, 薑三片, 黑豆十伍粒, 水煎, 臨臥服.

이상을 썬다. 한 번에 2돈씩 복용하되 생강 3조각과 흑두 15알과 함께 물에 달여 자기 전에 복용한다.

- 【地黃圓】
- 지황원

治腎疢.

신감(腎疢)을 치료한다.

大熟地黃(淨) 四錢半, 赤茯苓、山茱萸(蒸取肉, 焙)、當歸、川芎、川練子肉(焙)、牡丹皮、山藥(焙)、史君子(畧煨取肉) 各二錢.

큰 숙지황(깨끗이 다듬는다) 4.5돈, 적복령、산수유(찢 후 과육만 발라서 곁불에 말린다)、당귀、천궁、천련자 과육(곁불에 말린다)、목단피、산약(곁불에 말린다)、사군자(젓불에 묻어 살짝 구운 후 과육을 쓴다) 각 2돈.

右末, 煉蜜圓, 桐子大, 每三圓, 空心溫湯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환씩 빈속에 복용하되 따뜻한 물에 녹여서 넘긴다.

• 【走馬疳方】

• 주마감 처방

治口齒出血臭氣.

입에서 피가 나면서 입냄새가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銅綠 半錢, 生蜘蛛 一枚.

동록 0.5돈, 살아 있는 지주 1개.

右研細, 入麝少許, 夾和, 擦齒, 如無蜘蛛, 即用殼¹二箇.

이상을 곱게 갈고 사향을 약간 넣고 잘 섞은 후 이빨에 비빈다. 지주가 없으면 지주의 허물 2개를 쓴다.

• 【清肺飲】

• 청폐음

治肺熱疳, 蝕爲穿孔, 汁臭, 或生息肉.

폐장의 열사 때문에 생긴 감닉(疳) 으로 코에 구멍이 나서 냄새 나는 진물이 흐르며 혹은 식육(息肉)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桑白皮(炒) 半兩, 紫蘇、北前胡、黃芩、當歸、天門冬(去心)、連翹、防風、赤茯苓、北梗、生乾地黃、甘草(炙) 各一分.

상백피(볶는다) 0.5냥, 자소、북전호、황금、당귀、천문동(심을 제거한 다)、연교、방풍、적복령、북길경、생견지황、자감초 각 1푼.

右剉, 每服二錢, 井水煎, 食後服. 次用【化 圓】.

이상을 썬다. 한 번에 2돈씩 복용하되 우물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그 다음 아래의 화낙원을 썬다.

- 【化 圓】
- 화낙원

蕪荑、蘆薈、青黛(乾)、川芎、白芷梢、胡黃連、川黃連、蝦蟇灰 等分.

무이、노회、청대(말린다)、천궁、백지(끝 부분)、호황련、천황련、하마(재로 만든다) 각각 같은 양.

右末, 猪膽汁浸糕糊圓, 麻子大, 每服貳拾圓, 食後臨臥【杏仁】煎湯下. 其鼻常用【熊膽】泡湯, 小筆蘸洗, 俟前藥各進數服, 却用【青黛】、【當歸】、【赤小豆】、【瓜蒂】、【地榆】、【黃連】、【芦薈】等分, 【雄黃】少許細末, 入鼻斂瘡.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을 넣은 물에 담근 설기떡으로 썬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을 복용하되 식후 자기 전에 행인 달인 물로 넘긴다. 코의 진물은 항상 응담 데친 물을 작은 붓에 찍어

씻어 준다. 앞의 약들을 각각 여러 번 복용한 후에는 청대、당귀、적소두、과체、지유、황련、노회 각각 같은 양과 옹황(곱게 가루 낸다)을 약간 섞어 코에 넣으면 창이 아문다.

• 【靈脂圓】

• 영지원

治脾疳食疳.

비감(식감)을 치료한다.

北五靈脂、縮砂仁、白豆蔻仁、麥牙(炒)、蓬朮(煨)、青皮(去白)、橘紅、史君子肉(焙) 各貳錢, 蝦蟇(炙焦) 參錢.

북오령지、축사인、백두구인、맥아(볶는다)、봉출(젓불에 굽는다)、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귤홍、사군자 과육(겉불에 말린다) 각 2돈, 하마(까맣게 굽는다) 3돈.

右末, 米糊圓, 麻子大, 每拾圓, 米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쌀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0환씩 쌀 끓인 물로 넘긴다.

• 【下虫圓】

• 하충원

治疳蛔諸虫.

회감(蛔疔)으로 생긴 각종 충을 치료한다.

新白苦練根皮(酒浸焙)、綠色貫衆、木香、桃仁(浸去皮, 焙)、蕪荑(焙)、雞心檳榔 各貳錢, 鶴虱(炒) 一錢, 輕粉 半錢, 乾蝦蟇(炙焦) 參錢, 史君子(晷煨取肉) 五十兩.

새로 채취한 흰 고련근피(술에 담갔다가 결불에 말린다)、녹색인 관중、목향、도인(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하고 결불에 말린다)、무이(결불에 말린다)、계심빈랑 각 2돈, 학슬(볶는다) 1돈, 경분 0.5돈, 말린 하마(까맣게 굽는다) 3돈, 사군자(갯불에 묻어 살짝 구운 후 살을 쓴다) 50냥.

右末, 飛麪糊圓, 麻子大, 每貳拾圓, 天明清肉汁下, 內加【當歸】、【川黃連】各貳錢半, 治脊疔兼疔勞, 方可擇用.

이상을 가루 낸 후 고운 밀가루로 쏘 푼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씩 날씨 좋을 때 고기국물로 넘긴다. 당귀、천황련 각 2.5돈을 더하여 쓰면 척감(脊疔)에 감로(疔勞)가 겹친 증상을 치료하니 처방을 선택하여 쓴다.

- 【龍膽圓】
- 용담원

治腦疔腦熱餅瘡.

뇌감으로 머리에 열이 나면서 두피에 병창(餅瘡)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龍膽草、川升麻、苦練根皮(焙)、防風、赤伏神、芦薈、油髮灰 各二錢, 青黛(乾)、黃連(淨) 各參錢.

용담초、천승마、고련근피(겉불에 말린다)、방풍、적복신、노회、유발(재로 만든다) 각 2돈, 청대(말린다)、황련(깨끗이 다듬는다) 각 3돈.

右末, 猪膽汁浸糕糊圓, 麻子大, 每貳拾圓, 薄荷紫蘇泡湯下, 食後, 仍以【芦薈末】入鼻.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을 넣은 물에 담근 설기떡으로 쏜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씩 식후에 박하와 자소 데친 물로 넘긴다. 복용 후에는 노회 가루를 콧속에 붙여 넣는다.

- 【黃連圓】

- 황련원

治疳渴.

감갈을 치료한다.

黃連 半兩(淨猪膽汁浸一夜, 曬乾), 瓜萆根、烏梅肉(焙乾)、杏仁(浸去皮, 焙)、石蓮肉 各二錢.

황련 0.5냥(깨끗하게 씻어 저담즙에 하루밤 담갔다가別に 말린다), 과루근·오매육(결불에 말린다)·행인(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하고 결불에 말린다)·석련육 각 2돈.

右末, 牛膽汁浸糕爲糊圓, 麻子大, 每拾伍圓, 煎烏梅·薑·蜜湯下. 又療虫後附【消渴方論】內貳藥, 可治疢渴及五乾疢.

이상을 가루 낸 후 우담즙을 넣은 물에 담갔던 설기떡으로 쏜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5환씩 오매와 생강과 꿀 달인 물로 넘긴다. 이 약 이외에 《인재직지방》 채충(療虫) 뒤에 있는 소갈방론(消渴方論)의 2가지 약²도 감갈과 건감을 치료한다.

- 【香薷圓】

- 향구원

治疢瀉.

감사를 치료한다.

黃連 參錢(炒), 肉豆蔻(生)·木香·訶子(煨)·縮砂仁·伏苓 各乙錢.

황련 3돈(볶는다), 육두구(생것)·목향·가자(갯불에 굽는다)·축사인·복령 각 1돈.

右末, 粳飯圓, 麻子大, 每十五圓, 食前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멍쌀밥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5환씩 식전에 미음으로 넘긴다.

- 【木香圓】
- 목향원

治痞痢.

감리를 치료한다.

黃連(條) 三錢, 木香、紫厚朴(製)、縮砂仁、夜明砂(隔紙炒) 各二錢, 訶子肉(炒) 乙錢.

황련(절단하지 않은 뿌리줄기 상태로 사용한다) 3돈, 목향·자후박(법제한다)·축사인·야명사(종이를 깔고 볶는다) 각 2돈, 가자육(볶는다) 1돈.

右末, 粳飯圓, 麻子大, 每十五圓, 乾艾葉、生薑煎湯, 食前溫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멍쌀밥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5환씩 말린 애엽과 생강 달인 물로 식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褐圓子】
- 갈원자

治痞腫脹.

감종창을 치료한다.

蘿菴子 乙兩(微炒), 陳皮、青皮(去白)、好檳榔、黑牽牛(取仁, 乙半炒, 乙半生)、北五靈脂、赤茯苓、蓬莪朮(煨) 各半兩, 木香 二錢半.

나복자 1냥(살짝 볶는다), 진피、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품질 좋은 빈랑、흑견우(속씨만 남겨 절반은 볶고 절반을 생째 쓴다)、복오령지、적복령、봉아출(불에 달군다) 각 0.5냥, 목향 2.5돈.

右末, 飛麪糊圓, 菉豆大, 每十五圓, 【紫蘇】、【桑白皮】煎湯下. 又【大異香散】
[方見服滿門³], 加【五靈脂】末, 煎紫蘇湯調下, 少吞【紫霜圓】, 治疳脹肚皮
緊.

이상을 가루 낸 후 고운 밀가루로 썬 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5환씩 자소와 상백피 달인 물로 넘긴다. 이외에 대이향산 [처방
은 창만문에 나온다] 에 오령지 가루를 더하여 자소 달인 물에 타서 넘기
고, 자상원을 약간 먹이면 감종창으로 배가 팽팽한 증상을 치료한다.

- 【黃耆湯】
- 황기탕

治疳勞.

감로를 치료한다.

黃耆(蜜炙)、當歸、川芎、白芍藥、生乾地黃、蝦蟇(去足, 炙焦)、鱉甲(醋炙焦) 各三錢, 人參、白茯苓、橘皮、半夏(麴)、柴胡、史君子(畧煨)、甘草(炙) 各二錢.

황기(꿀을 묻혀 굽는다)、당귀、천궁、백작약、생건지황、하마(다리를 떼고 까맣게 굽는다)、별갑(식초에 축여 까맣게 굽는다) 각 3돈, 인삼、백복령、굴피、반하(누룩으로 만들어 쓴다)、시호、사군자(젓불에 묻어 살짝 굽는다)、자감초 각 1돈.

右龜末, 每二錢, 薑棗煎, 食前服之.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2돈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물에 달여 식전에 먹인다.

• 【鱉血煎】

• 별혈전

治疢勞.

감로를 치료한다.

人參 半兩, 川芎、蕪荑、柴胡 各二兩, 史君子 二十一个, 胡黃連、川黃連 各二兩.

인삼 0.5냥, 천궁、무이、시호 각 1냥, 사군자 21개, 호황련、천황련 각 2냥.

右用【鱉血】壹盞,【吳茱萸】壹兩,拌和二【黃連】,淹一宿,次早炒,乾透,去【茱萸】并血,只用二連,夾餘藥杵末,粟米粉糊圓,麻子大,每二拾圓,食前熟水下.

이상 중에서 자라의 피 1잔에 오수유 1냥과 2가지 황련을 넣고 잘 섞어 하루 밤 재운다. 다음 날 새벽에 이것을 볶으면서 오수유와 자라의 피를 날리고 2가지 황련만 사용한다. 나머지 약재를 황련과 합쳐 절구질을 하여 가루 낸 후 좁쌀 가루로 쏜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씩 식전에 끓인 물로 넘긴다.

- 【㊦㊦圓⁴】

- 가파원

治無辜疳、諸疳,壹服虛熱退,二服煩渴止,參服瀉痢住.

무고감과 각종 감질을 치료한다. 1번 복용하면 허열이 떨어지고, 2번 복용하면 번갈이 멎으며, 3번 복용하면 설사나 이질이 멈춘다.

蟾蜍 乙枚(夏月溝渠中取,腹不吽不鳴者⁵,其身多癩).

섬여 1개(여름철에 도랑에서 잡는다. 배가 크면서 뛰지도 울지도 않는 섬여는 몸통에 독이 많다).

右取【糞虫】壹杓,置桶中,以尿浸之,桶上要乾,不與虫走,却將【蟾蜍】打殺,頓在虫中,恁與虫食壹日夜,次以新布作袋,盡包繫定,置之急流壹宿,取出瓦上焙爲末,入【麝】壹字,粳飯揉圓,麻子大,每二參拾圓,米飲下.

구더기 1국자를 구하여 통 속에 넣고 오줌을 채운다. 통 겉부분이 말라있어야 구더기가 도망가지 못한다. 섬여를 때려 죽여 구더기에 던져서 구더기가 하룻밤 동안 충분히 먹게 한다. 다음 날 사용하지 않은 천으로 자루를 만들어 통 전체를 넣고 묶어서 급류에 하룻밤 동안 둔다. 다음 날 내용물을 꺼내어 기와 위에 놓고 겉불에 말린 후 가루 낸다. 가루에 사향 1자를 넣고 멍쌀밥과 짓이겨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 【又方】
- 다른 처방

治無辜瘡.

무고감을 치료한다.

夜明砂炒爲末, 入諸飲食中與之.

야명사를 볶아서 가루 낸 후 음식에 넣어서 먹인다.

- 【十全丹】
- 십전단

治丁奚哺露.

정해감과 포로감을 치료한다.

靑皮、陳皮(各去白) 一^⑥, 蓬朮、川芎、北五靈脂、白豆蔻仁、雞心檳榔、
芦薈 各半兩, 木香、史君子肉(焙)、蝦蟇灰 各二錢.

청피、진피(둘 다 흰 부분을 제거한다) 1돈, 봉출、천궁、북오령지、백
두구인、계심빈랑、노회 각 0.5냥, 목향、사군자 과육(겉불에 말린다)、
하마(재로 만든다) 각 2돈.

右末, 猪膽汁浸糕糊圓, 麻子大, 每二十圓, 米飲下, 有熱則薄荷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을 넣은 물에 담근 설기떡으로 쏜 풀에 개어 마
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열이 나
면 박하탕으로 넘긴다.

- 【五珍圓】
- 오진원

治疳傷肚大.

감질로 배가 똥똥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 【挨癖圓】
- 애벽원

治疳積. [方並見積類]

감질에 적취까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처방은 모두 적류(積類)에 나
온다]

- 【和劑方小黃連阿膠圓】
- 화제국방의 소황련아교원

最治小兒諸疳、疳熱、疳瀉. 每服二十圓, 米飲下.

소아의 각종 감질과 감열 및 감사를 가장 잘 치료한다. 한 번에 20환씩 복용하되 미음으로 넘긴다.

- 【疳啞不能發聲方】
- 감질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쓰는 처방

前【黃連肥兒圓】, 每服十五圓, 用【蘇合香圓】一粒, 入【朱砂】、【五靈脂】末各少許, 以【石菖蒲】煎湯, 乘熱調開送下.

앞의 황련비아원을 한 번 복용할 때 15환씩 복용하되, 소합향원 1알에 주사와 오령지 가루를 각각 조금씩 넣고 석창포 달인 물로 따듯할 때 녹여서 넘긴다.

- 【龍膽湯】
- 용담탕

治魃病.

기병을 치료한다.

龍膽草(微炒)、釣藤皮、柴胡、北梗、芍藥、川芎、伏苓、甘草(炙) 各二錢, 人參 乙錢, 大黃 二錢半(濕紙裏煨).

용담초(살짝 볶는다)、조구등피、시호、북길경、작약、천궁、복령、
자감초 각 2돈, 인삼 1돈, 대황 2.5돈(습지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右剉散, 每二錢, 井水煎服, 仍以紅紗袋【夜明沙】與兒帶.

이상을 썰어서 가루 낸다. 한 번에 2돈씩 우물물에 달여 복용하고 나서 불
은 비단주머니에 야명사를 넣어서 아이가 지니게 한다.

【附方】

【부방】

- 【秘傳保安丸】
- 비전보안환

治小兒五疳. 又痢, 吐瀉, 肚大青筋, 面黃肌瘦, 疳積等証, 神效.

소아의 5가지 감질을 치료한다. 또한 이질, 토사, 배가 똥똥하면서 푸른
핏줄이 드러난 경우, 얼굴이 누레지면서 살이 바싹 마르는 경우, 감병에
적취까지 생긴 경우에도 신표하다.

白朮(泔浸土炒) 三兩, 神麴(炒)、木香、檳榔、茯苓、三稜、使君子、厚朴
(姜制)、亭齊、甘草(炙) 各乙錢, 茅山蒼朮 二錢, 陳皮(去白)、枳實(去穰, 麩
炒)、人參(去芦)、莪朮 各乙兩五錢, 砂仁(炒)、黃連(豬膽汁制過)、麥芽(炒)
、益智(炒)、肉荳蔻(製去油)、藿香、白荳蔻 各伍錢.

백출(쌀뜨물에 담갔다가 흙과 함께 볶는다) 3냥, 신국(볶는다)·목향·빈랑·복령·삼릉·사군자·후박(생강즙으로 법제한다)·발제·자감초 각 1돈, 모산창출 2돈, 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지실(속을 파내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인삼(노두를 제거한다)·아출 각 1.5냥, 사인(볶는다)·황련(저담즙에 법제한다)·맥아(볶는다)·익지인(볶는다)·육두구(법제하고 기름기를 제거한다)·곽향·백두구 각 5돈.

右爲極細末, 煉【蜜】爲圓, 如龍眼大, 每服一圓, 用【清米飲】磨化送下, 嘔吐, 【姜湯】下. 肉積, 加【山楂】一兩, 喘, 加【蘿菔子】一兩, 瀉, 加【猪苓】·【澤瀉】各一兩, 如無他證, 只服本方, 神效.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용안육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번에 1환씩 복용하되 묽은 미음에 씹어서 넘기게 한다. 구토에는 생강탕으로 넘기게 한다. 육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는 산사 1냥을 더하고, 숨을 헐떡일 때는 나복자 1냥을 더하고, 설사에는 저령과 택사 각 1냥을 더한다. 다른 증상이 없으면 본방대로 복용한다. 신표하다.

- 【布袋圓】
- 포대원

治諸疢疾, 面黃腹大, 飲食不潤肌膚.

각종 감질로 얼굴이 누레지고 배가 똥똥하며 음식을 먹어도 피부에 윤기가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夜明砂(揀淨)、蕪荑(炒去皮)、史君子(肥白者) 各二兩, 甘草、白茯苓(去皮)、白朮(無油者, 去芦)、人參(去芦)、蘆薈(細研) 各半兩.

야명사(흠이 있는 것들을 골라 낸다)、무이(볶은 후 껍질을 제거한다)、사군자(통통하고 흰 것) 각 2냥, 감초、백복령(껍질을 제거한다)、백출(기름기가 없는 것을 골라 노두를 제거한다)、인삼(노두를 제거한다)、노회(곱게 간다) 각 0.5냥.

右爲細末, 【湯浸蒸餅】和圓, 如彈子大, 每用一圓, 以【生絹袋】盛之, 次用【精猪肉】二兩, 同藥一處煮, 候【肉】熟爛提起藥, 於當風處懸掛, 將所煮【肉】并【汁】令小兒食之, 所懸之藥第二日仍依前發煮食, 只待藥盡爲度.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뜨거운 물에 담갔던 증병과 섞어 탄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사용하지 않은 비단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질한 돼지고기 2냥과 약을 한 곳에 넣고 끓인다. 돼지고기가 푹 익으면 약을 건져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걸어 놓는다. 삶은 돼지고기와 국물을 아이에게 먹인다. 걸어 놓았던 약을 이틀 쯤 다시 물에 넣고 삶아서 먹는다. 약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 【五疳保童圓】
- 오감보동원

治小兒五種疳疾.

소아의 5가지 감질을 치료한다.

青黛、五倍子(生用)、蘆薈(另研)、夜明砂(布裹, 洗去砂土)、黃連(去鬚)、龍膽草(生用)、熊膽、苦練根皮、麝香(另研)、蕪荑仁、蟬殼(去土) 各等分.

청대、오배자(생것)、노회(따로 갈아 둔다)、야명사(천에 싸서 모래나 흙을 씻어 낸다)、황련(잔뿌리를 제거한다)、용담초(생것)、웅담、고련근피、사향(따로 갈아 둔다)、무이인、선각(흙을 제거한다)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 用【粟米粉】打糊爲圓, 如麻子大, 一歲小兒服一十圓, 用【米飲湯】送下, 不拘時服, 量兒大小加減.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속미 반죽으로 썬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 기준으로 10환씩 복용하되 따뜻한 미음으로 넘긴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하고,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한다.

● 【子丑散】

● 자축산

治小兒疳證.

소아의 감질을 치료한다.

鼠糞、黑牽牛 各等分.

서분、흑견우 각각 같은 양.

右爲細末, 三歲兒每服一錢, 用【橘皮湯】調, 不拘時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3세 아이 기준으로 한 번에 1돈씩 복용하되 굴피
탕에 타서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1. 卽用殼 : 用蝸殼 ※《보제방》↩

2. 2가지 약 : 소갈방론의 끝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듯하다. '治法
總要, 當服眞料參苓白朮散, 可以養脾, 自生津液, 兼用好粳米煮粥, 以膂
肉碎細, 入鹽醋油酒, 葱椒茴香調和, 少頃粥熟而後入, 以此養腎, 則水有
所司, 又用淨黃連濕剉, 入雄豬肚中密紮, 於鬪米上蒸爛, 添些蒸飯, 臼中
杵粘, 圓如桐子. 每服百粒, 食後米飲下, 可以清心止渴.'↩

3. 服滿門 ⇨ 脹滿門 ※《인재직지방》↩

4. ㉠㉠圓 ⇨ 蚬蛸圓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필사본(善本書號 12794)↩

5. 腹不跳不鳴者 ⇨ 腹大者不跳不鳴者 ※문맥상↩

6. ㉠ ⇨ 錢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필사본(善本書號 12794)↩

疳瘡方論

감창에 대한 설명

凡人自孩提以至弱冠, 潮熱發瘡, 只是疳氣使然. 盖疳虫耗其精髓, 蝕其肌膚, 軀虛膚空, 疳熱流注, 遂致遍身熱瘡發歇無已. 須用【猪肚黃連圓】主治, 仍以【大腹皮】、【苦參】、【白芷】煎湯浴之, 【蘆薈圓】、【肥兒圓】二藥夾和佐之可也.

사람이 갓난아이부터 약관까지 주기적으로 열이 나면서 창이 생기는 경우는 감질 때문이다. 아마도 감질의 충이 정수를 소모시키고 피부를 갉아 먹으면 몸이 허해지고 피부에 공간이 생겨 감질의 열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온몸에 화끈거리는 창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다. 반드시 저두황련원을 위주로 치료한 다음 대복피, 고삼, 백지 달인 물로 목욕을 시키고 노회원, 비아원 2가지 약을 섞어서 보조로 사용해야 한다.

疳瘡證治

감창의 증상과 치료법

- 【猪肚黃連圓】
- 저두황련원

雄猪肚 壹具(洗淨), 鷹爪黃連(去鬚, 淨) 柒兩.

웅저두 1개(물에 깨끗이 씻는다), 응조황련(잔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닦는다) 7냥.

右剉作小截, 少水和濕, 納猪肚中, 用線縫密, 頓在伍升粳米上, 蒸十分爛, 取放臼中, 入些蒸飯, 搗千餘杵, 粘實得所, 衆手捏圓如小桐子, 每服貳拾圓, 米飲下. 童子倍之, 冠者又倍之, 仍以【川芎】、【生地黄】、【伏苓】、【伏神】與之調血清心, 熱多者間服【和劑生犀散】. 貳拾歲以上潮熱發瘡, 是爲虛勞, 皆一種病也, 用藥同前. 凡兒童諸病, 不出於疳則出於熱, 熱則生痰, 常須識此矣.

황련을 작게 썰고 물을 약간 넣어 불린 후 웅저두 속에 넣고 실로 봉합한다. 이것을 멍쌀 5되로 짓는 밥 위에 올려 완전히 푹 익도록 찐 후 꺼내어 절구에 넣고 밥을 약간 넣은 다음 천여 번을 짓짤는다. 찧기가 적당해지면 여러 사람이 작은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동자는 2배, 약관은 4배를 복용한다. 복용한 다음에는

천궁、생지황、복령、복신을 먹여 혈을 잘 운행하게 하고 심열을 내려야 한다. 열이 많은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화제국방의 생서산을 복용시킨다. 20세 이상이 주기적으로 열이 나면서 창이 생긴 경우는 허로 때문이니 모두 같은 병이다. 위와 같은 약을 쓴다. 아이의 각종 병은 감질 때문에 생기거나 열 때문에 생기는 법이니 열이 나면 담연이 생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 積

적취



積滯方論

적취에 대한 설명

小兒有積, 面目黃種, 肚熱脹痛, 覆睡多困, 酷啼不食, 或大腸閉澀, 小便如油, 或便利無禁, 糞白而酸, 此等皆積證也. 然有【乳積】, 有【食積】, 有【氣積】, 要當明辨. 吐乳, 瀉乳, 其氣酸臭, 此由啼叫未已, 以乳與兒, 停滯不化得之, 是爲乳積. 肚硬帶熱, 渴瀉或嘔, 此由飲食無度, 多餐過飽, 飽後即睡得之, 是爲食積. 腹痛啼叫, 利如蠟渤, 此由觸忤其氣, 榮衛不和, 淹¹日久得之, 是爲氣積. 合用【木香圓】主之, 雖然積有虛有實, 虛積渾身微熱, 不思飲食, 昏昧神緩, 抱起如睡, 實積肚熱糞閉, 額腫喉塞, 壅盛涎鳴, 熱毒發瘡, 推此可見【木香圓】, 虛者少與之, 實者倍用之, 亦有傷乳傷食而身體熱者, 惟腹肚之熱爲甚. 人知傷積肚熱, 糞酸極臭, 而夜間有熱, 傷積之明驗, 人所未識也. 其或變證, 面黑瀉黑, 久瀉不止, 腹肚脹滿, 氣出龐大, 手心生瘡, 瘦弱柔軟, 皆不可療. ○小兒消積, 多用【青皮】, 然【青皮】最能發汗, 有汗者勿與之.

아이에게 적취가 생기면 얼굴과 눈이 누렇게 붓거나, 배가 뜨겁고 똥똥하면서 아프거나, 잘 때 뒤척이면서 계속 피곤해 하거나, 심하게 울면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간혹 대장이 막혀서 대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이 기름처럼 나오거나, 대변을 수시로 지리거나, 똥이 흰색으로 나오면서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것이 모두 적취의 증상이다. 그런데 유적(乳

積)도 있고 식적(食積)도 있고 기적(氣積)도 있으니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젖을 토하거나 젖이 뭉친 것 같은 설사를 하고 숨에서 신 냄새가 나는 경우는 울음이 그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젖이 막힌 채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이것이 소아의 식적이다. 복통으로 소리지르며 울고 게거품 같이 대변을 지리는 경우는 무언가에 놀라서 기혈의 균형이 깨졌다가 치료하지 않은 채 시일을 끌기 때문에 생긴다. 이것이 소아의 기적이다. 모두 목향원으로 치료한다. 하지만 적취에는 허증과 실증이 있으니 허증은 온몸에 살짝 열이 나거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거나 정신이 혼미하면서 반응이 느려지거나 안아서 일으켜도 잠을 자는 듯하고, 실증은 배가 뜨거우면서 똥을 누지 못하거나 뺨이 붓고 목구멍이 막히거나 가래가 많아져 소리가 나거나 열독으로 창이 생기는 증상을 보인다. 이 증상으로 미루어 본다면 목향원을 쓸 때 허증에는 약간만 먹이고 실증에는 2배로 먹여야 한다. 젖이나 음식에 손상되어 몸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때는 배만 몹시 뜨겁다. 사람들은 소아의 적취 증상이 배가 뜨겁고 똥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건 알지만, 밤에 열이 나는 게 적취의 분명한 현상이라는 건 모른다. 혹여나 악화되어 얼굴이 까매지면서 검은 설사를 하거나, 오랫동안 설사가 멎지 않거나, 배가 똥똥해지거나, 숨이 거칠어지거나, 손바닥에 창이 생기거나, 바싹 마르면서 사지에 힘이 없는 경우는 모두 치료하지 못한다. ○소아의 적취를 사그라뜨릴 때 대부분 청피를 사용하지만 청피는 발한 작용이 강하므로 땀이 나고 있는 경우에는 먹이지 말아야 한다.

1. 淹涎  淹延 ※문맥상 



積滯證治

적취의 증상과 치료법

- 【木香圓】

- 목향원

治乳積、食積、氣積.

소아의 유적、식적、기적을 치료한다.

木香、蓬莪朮、縮砂仁、青皮(去白)、朱砂(研細)、代赭石(研) 各貳錢, 大丁香 壹錢, 川巴豆肉(研壓去油) 壹錢.

목향、봉아출、축사인、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주사(곱게 간다)、대자석(간다) 각 2돈, 큰 정향 1돈, 천파두육(간 다음 꼭 눌러서 기름기를 제거한다) 1돈.

右細末和勻, 飛白麪糊圓, 麻子大, 風乾, 每服貳參圓, 乳傷乳汁下, 食傷米飲下. 後與【大異香散】[方見脹滿門], 或【和劑異香散】亦得. 氣積橘皮煎湯下, 下後與【和劑流氣飲】[並見脹滿門].

이상을 곱게 가루 내고 잘 섞은 후 아주 곱고 흰 밀가루로 쏜 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고 바람에 말린다. 한 번 복용할 때 2 - 3환씩 복용하되, 젖에 손상되었으면 젖으로 넘기고, 음식에 손상되었으면 미음으

로 넘긴다. 복용 후에는 대이향산 [처방은 창만문에 나온다] 을 먹이거나, 혹은 《화제국방》의 이향산도 좋다. 기적에는 굴피 달인 물로 넘기고, 복용 후에는 《화제국방》의 유기음 [모두 창만문에 나온다] 을 먹인다.

• 【下積圓】

• 하적원

治乳食傷積, 心腹脹滿, 氣麤壯熱, 或瀉或嘔.

젖이나 음식에 손상되어 생긴 적취로 명치 부근이 뻥뻥하면서 숨이 거칠고 고열이 나며 간혹 설사나 구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丁香、縮砂仁 各拾貳箇, 史君子 五个(焙), 烏梅肉(焙)、川巴豆肉 各參箇(不去油).

정향、축사인 각 12개, 사군자 5개(겉불에 말린다), 오매육(겉불에 말린다)、천파두육(기름기를 제거하지 않는다) 각 3개.

右末, 研細和勻, 爛飯圓, 麻子大, 每參圓, 橘皮煎湯下.

이상을 가루 내고 곱게 갈아 골고루 섞은 후 짓이긴 밥과 섞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원씩 굴피 달인 물로 넘긴다.

• 【五珍圓】

• 오진원

治酒食積通用.

술이나 음식으로 생긴 적취에 통용한다.

靑皮(不去白, 炒焦黃)、乾薑(燒帶生存性)、北五靈脂、蓬莪朮 各壹兩.

청피(흰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누렇게 볶는다)、건강(익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약성이 남을 정도로 태운다)、복오령지、봉아출 각 1냥.

右爲末夾和, 秤藥末壹兩, 用【肥巴豆肉】以石壓准去半油, 秤壹錢, 研細, 拌和, 粳米飯圓麻子大, 每服參伍圓, 米湯下, 不飢飽時服.

이상을 가루 낸 후 잘 섞는다. 약가루 1냥과 통통한 파두육(돌로 눌러 기름기를 절반 정도 뺀다) 1돈을 곱게 갈고 잘 섞은 후 멍쌀밥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 - 5환씩 쌀 달인 물로 복용하되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을 때 복용한다.

- 【挨癰圓】

- 애벽원

治疳積. [方見癰積]

감적을 치료한다. [처방은 벽적에 나온다]

- 【辰砂膏】

- 진사고

疎利驚積. [方見風噤門]

경적을 배출시킨다. [처방은 풍금문에 나온다]

- 【靑龍圓】

- 청룡원

治驚積有熱. [方見驚積門]

경적으로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처방은 경적문에 나온다]

- 【朱銀圓】

- 주은원

治驚積. [方見胎驚門]

경적을 치료한다. [처방은 태경문에 나온다]

痞結證治

비결의 증상과 치료법

痞者塞也, 結者實也, 熱氣蘊於胃膈之間, 留飲聚於腹脇之內, 於是榮衛不得流行, 腑臟不得宣通, 由脹滿而至痞結, 勢使然耳. 此熱實之證也, 時或發爲壯熱, 【聖惠甘遂散】主之.

비(痞)는 막혔다는 뜻이고, 결(結)은 덩어리라는 뜻이다. 열기가 흉격에 쌓이거나 담음이 배나 옆구리 내부에 뭉쳐서 혈기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소통되지 못하면 배가 똥똥해지다가 비결이 되는 법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열증이며 실증이니 간혹 발작하여 고열이 나면 《성혜방》의 감수산으로 치료해야 한다.

- 【聖惠甘遂散】
- 【《성혜방》의 감수산】

甘遂 壹分(煨令微黃), 青皮(浸去白, 焙)、黃芩、川大黃(剉碎, 微炒) 各半兩.

감수 1푼(갯불에 묻어 약간 누렇게 되도록 굽는다), 청피(물에 담갔다가 흰 부분을 제거하고 겉불에 말린다)、황금、천대황(썰고 뺀 후 살짝 볶는다) 각 0.5냥.

右麤末, 每服壹錢, 水小盞煎去滓, 溫和服, 量大小増減用, 得通利則止後服, 利後以糜粥放冷補之.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복용하되 물 1소잔(小盞)에 넣고 달여 건더기를 빼고 따뜻할 때 복용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용량을 증감한다. 약을 먹고 대변을 보면 복용을 멈춘 후 식힌 죽으로 조리시킨다.



癖氣證治

벽적의 증상과 치료법

癖者, 血膜包水僻側於脇傍, 時時而作痛也. 惟癖爲能發潮熱, 惟癖爲能生寒熱, 故瘡家中脘多蓄黃水, 日久而後結癖, 寒熱之不已者以此, 小兒臟腑和平, 榮衛調暢, 則津液自然流通, 縱使多飲水漿, 不能爲病. 惟夫乳哺失調, 三焦關隔, 以致水漿停滯, 腸胃不能宣行, 冷氣搏之, 於是結聚而成癖. 輕者用積滯類【木香圓】, 重者用【取癖圓】.

벽적은 혈막(血膜)으로 둘러싸인 물 덩어리가 옆구리쪽으로 치우쳐서 가끔씩 아픈 병증이다. 소아의 병에서는 오직 벽적이 조열을 발작하게 만들고 한열왕래를 생기게 만든다. 그래서 학질 환자는 대부분 중완에 수기(水氣)를 축적하고 있다가 오래되면 벽적이 되니 한열왕래가 낫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소아의 오장육부가 안정되고 혈기가 제대로 운행되면 진액이 자연히 잘 흘러서 물이나 국물을 많이 먹더라도 벽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젖을 먹일 때 정도를 지나치면 삼초가 막혀 물이나 국물이 정체되면서 위부와 대소장이 소통되지 못한다. 이때 냉기가 침범하면 수기와 뭉쳐서 벽적이 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적취 부분에 나오는 목향원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취벽원을 쓴다.

- 【取癖圓】

- 취벽원

甘遂(微炒)、芫花(炒)、牽牛(半炒半生, 碾篩取肉)、辣桂、蓬朮、青皮(去白)、木香、桃仁(浸去皮炒)、五靈脂 各貳錢.

감수(살짝 볶는다)、원화(볶는다)、견우(절반은 볶고 절반은 생채로 쓴다. 갈고 체에 걸러 과육만 쓴다)、날계、봉출、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목향、도인(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하고 볶는다)、오령지 각 2돈.

右細末, 入去油巴豆壹錢, 研和十分細, 飛麪糊圓麻子大, 固乾, 每服壹貳圓, 薑蜜煎湯灌下, 泄後冷粥補, 仍和胃.

이상을 곱게 가루 내고 기름을 제거한 파두 1돈을 넣어 아주 곱게 간다. 고운 밀가루로 썬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딱딱하게 말린다. 한번 복용할 때 1 - 2환씩 생강과 꿀 달인 물로 흘려 넣어 삼키게 한다. 설사를 하면 식힌 죽으로 조리시켜 위기(胃氣)를 안정시킨다.

- 【挨癖圓】

- 애벽원

治乳癖穀癥, 腹中塊痛.

젖을 먹고 생긴 벽적이나 밥을 먹고 생긴 징가로 뱃속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아파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代赭石(火煨醋淬, 至^①淬, 研拾分細)、青皮(去白)、木香、蓬朮、五靈脂、北大黃 各參錢, 巴豆(壓去油盡) 壹錢.

대자석(불에 달궈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번 반복한 후 완전히 곱게 간다)、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목향、봉출、오령지、북대황 각 3돈, 파두(꼭 눌러서 기름기를 완전히 뺀다) 1돈.

右末, 醋麪糊圓麻子大, 每服貳圓, 食後擦薑泡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식초를 넣고 쏘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환씩 복용하되 식후에 간 생강을 데친 물로 넘긴다.

- 【代赭圓】
- 대자원

治小兒腹中結癖塊痛.

소아의 뱃속에 벽적이 있어 아파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代赭石(研細)、川大黃 各半兩, 木香、五靈脂、朱砂、鱉甲(醋炙黃)、桃仁(浸去皮, 焙)、辣桂 各壹分, 巴豆肉(去油) 半分.

대자석(곱게 간다)、천대황 각 0.5냥, 목향、오령지、주사、별갑(식초에 축여 누렇게 굽는다)、도인(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하고 곱불에 말린다)、날계 각 1푼, 파두육(기름기를 제거한다) 0.5푼.

右細末, 糕糊圓麻子大, 風乾, 每服伍圓, 薑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설기떡으로 쏜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바람에 말린다. 한 번에 5환씩 복용하되 생강탕으로 넘긴다.

1. ㉠ ㉡ ㉢ 七 ※일반적인 포제법 ㉣



附方

부방

- 【快膈消食圓】
- 쾌격소식원

消食積.

식적을 치료한다.

縮砂仁、橘皮、京三稜、莪朮、神麴、麥芽 各半兩, 香附子 壹兩(畧炒).

축사인、귤피、경삼릉、아출、신곡、맥아 각 0.5냥, 향부자 1냥(살짝 볶는다).

右爲末, 麵糊圓如麻子大, 食後【白湯】下, 隨大小加減.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로 쏘 푼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식후에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용량을 가감한다.

- 【香稜圓】
- 향릉원

治五積, 破痰癖, 消癥塊, 及冷熱積聚.

5가지 적취를 치료한다. 또한 담연이나 벽적이나 징가를 사그라뜨리고,
허증이나 실증인 적취를 치료한다.

木香(不見火)、丁香 各半兩, 京三稜(酒浸壹宿)、枳殼(去穰, 麩炒)、青皮(去
白)、川練子(剉炒)、茴香(炒) 各壹兩, 蓬朮 壹兩(細剉去殼, 巴豆參拾粒, 同炒
黃色, 去巴豆不用).

목향(화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정향 각 0.5냥, 경삼릉(술에 하룻밤 담
근다)、지각(속을 파내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청피(흰 부분을 제거
한다)、천련자(썰어서 볶는다)、회향(볶는다) 각 1냥, 봉출 1냥(잘게 썰
고 껍데기를 제거한다. 파두 30알과 함께 누렇게 볶은 후 파두를 제거하
고 쓴다).

右爲細末, 【醋】煮【麵糊】爲圓如麻子大, 【硃砂】爲衣, 每服二十圓, 炒【生姜】湯
下, 【溫酒】亦可, 不拘時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식초를 넣어 쏘 밀가루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
을 빚은 다음 주사를 곁에 입힌다. 한 번 복용할 때 20환씩 생강(볶는다)
과 소금 달인 물로 넘긴다. 따뜻한 술로 넘겨도 좋다. 시간에 상관없이 복
용한다.

- 【消積圓】
- 소적원

治嬰孩小兒中脘宿食不消, 吞酸惡心, 口吐清水, 心腹刺痛, 殘泄如痢.

갓난아이가 중완에 숙식이 막힌 채 소화되지 않아서 신물이 올라오면서
메스거리고 입에서 투명한 물 같은 것을 토하며 명치가 찌르는 듯 아프고
이질처럼 설사를 지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烏梅(去核) 柒箇, 百草霜 參錢, 巴豆(去皮心油) 貳箇, 杏仁(去皮尖, 炒) 貳拾壹
个, 半夏(去臍, 湯浸柒次) 玖箇, 縮砂(去殼) 貳拾壹箇, 史君子(去殼) 伍个.

오매(씨를 제거한다) 7개, 백초상 3돈, 파두(껍질과 심과 기름기를 제거한
다) 2개, 행인(껍질과 뽀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 21개, 반하(배꼽
부분을 제거한다, 뜨거운 물에 담그기를 7차례 한다) 9개, 축사(껍질을 제
거한다) 21개, 사군자(껍질을 제거한다) 5개.

右爲極細末, 煮【麵糊】圓如【黍米】大, 每服三伍七十圓, 用【生薑】煎湯, 食前
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3~10환씩 생강 달인 물로 식전에 복용한다.

- 【三稜圓】
- 삼릉원

治嬰孩小兒癖積, 消積進食.

갓난아이의 벽적을 치료한다. 벽적을 사그라뜨려 음식을 넘길 수 있게 한
다.

三稜(炮)、蓬莪朮(炮)、神麴(炒)、麥蘖(炒)、青皮(去穢, 炒)、陳皮(去白) 各壹錢.

삼릉(습지에 싸서 굽는다)、봉아출(습지에 싸서 굽는다)、신국(볶는다)
、맥얼(볶는다)、청피(속을 파내고 볶는다)、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각 1돈.

右爲極細末, 煮麵糊圓如黍米大, 用米飲食遠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공복에 미음으로 복용한다.

- 【秘傳保安圓】
- 비전보안원

治小兒五疳八痢吐瀉, 肚大青筋, 面黃肌瘦, 疳積等証神效. [方見疳門]

소아가 5가지 감병이나 8가지 이질로 구토와 설사를 하고 배가 똥똥하면
서 푸른 핏줄이 드러나며 얼굴이 누레지면서 살이 바싹 마르는 증상을 치
료한다. 감적 증상에 신표하다. [처방은 감문에 나온다]

- 【三稜莪朮圓】
- 삼릉아출원

治積滯痞塊乳癖.

적취나 비괴나 유벽을 치료한다.

蓬朮 壹兩(巴豆參拾粒, 同炒黃色, 去巴豆), 川練子、茴香、三稜(酒浸壹宿)、
枳殼 各半兩, 木香 參錢, 丁香、青皮 各半兩.

봉출 1냥(파두 30알과 함께 누렇게 볶은 후 파두를 제거하고 쓴다), 천련
자、회향、삼릉(술에 하룻밤 담근다)、지각 각 0.5냥, 목향 3돈, 정향、
청피 각 0.5냥.

右末, 【醋糊】圓【菉豆】大, 每服三丸, 【淡姜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식초를 넣어 썬 밀가루 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
는다. 한 번에 3환씩 복용하되 묽은 생강탕으로 넘긴다.

十熱

열



諸熱方論

각종 열에 대한 설명

小兒有病, 惟熱居多. 夫熱有虛有實, 實則面赤濃黃, 氣龜口熱, 燥渴唇腫, 大小便難, 掀揭露衣, 煩啼暴叫, 虛則面色青白, 恍惚神緩, 口中清冷, 噓氣軟弱, 泄瀉多尿, 夜出虛汗, 其或乍清乍溫, 怫鬱悸惕, 上盛下泄, 水穀不分, 此則冷熱不調之證, 虛熱【惺惺散】[方見癰疹門], 實熱【四順清涼飲】加柴胡 [方見積熱門], 冷熱不調, 則【敗毒散】[方見寒類], 加【木香】、當歸, 若夫升降陰陽, 則【來復丹】參圓, 薄荷湯研下. ○小兒表裏俱熱, 面黃頰赤, 唇燥¹口乾, 小便赤澀, 大便焦黃, 先以【四順清涼飲】爲之疎利, 其熱即去. 既去而復熱者, 裏已消而表未解也, 當用【惺惺散】少加【去節麻黃】, 以取微汗, 則表熱盡除. 其或表裏已解而熱又時來, 此則表裏俱虛, 氣不歸元而陽浮於外, 不可再用涼藥再與解表, 當爲和其胃氣, 使陽斂而歸內, 身體自涼, 【參苓白朮散】[方見虛勞門], 薑棗略煎服.

소아가 아프면 대부분 열이 난다. 열은 허열과 실열이 있다. 실열이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셋노래지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입속도 뜨거우며 건조하면서 갈증이 나고 입술이 부으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옷을 들추거나 벗으려 하며 답답해 하면서 울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허열이 있으면 낯빛이 창백하고 정신이 몽롱하면서 반응이 느리며 입속

이 뜨겁지 않고 호흡이 약하며 설사를 하면서 오줌도 잦고 잘 때 식은땀이 난다. 간혹 열이 났다 내렸다 하면서 답답하거나 깜짝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설사를 하며 대소변이 섞이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냉증과 열증이 섞인 증상이다. 허열에는 성성산 [처방은 은진문에 나온다] 을 쓰고, 실열에는 사순청량음 [처방은 적열문에 나온다] 에 시호를 더하여 쓰고, 냉증과 열증이 섞인 증상에는 패독산 [처방은 한류(寒類)에 나온다] 에 목향과 당귀를 더하여 쓰고, 음양을 오르내리게 하려면 내복단 3환을 박하탕에 갈아서 넘기게 한다. ○소아의 표부와 이부가 모두 열이 나면 얼굴이 누레지면서 뺨이 붉어지고 입술과 입술이 마르며 소변이 붉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이 누렇게 말라서 나온다. 이 때는 우선 사순청량음을 써서 대변으로 빼내면 열이 즉시 떨어질 것이다.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나는 이유는 이부의 열은 없어졌지만 표부의 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성산에 마황(마디를 제거한다)을 약간 더하여 살짝 땀을 내면 표부의 열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간혹 표부와 이부의 열이 없어졌는데도 열이 다시 가끔씩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표부와 이부가 모두 허하여 기가 단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양기가 겉으로 뜨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서늘한 약성의 약재를 쓰거나 표부의 열을 풀어주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위기(胃氣)를 안정시켜서 양기가 단전으로 수렴되도록 만들면 몸이 자연히 식는다. 삼령백출산 [처방은 허로문에 나온다] 에 생강과 대조를 넣고 살짝 달여서 복용하게 한다.

1. 唇噪 唇燥 ※문맥상



諸熱證治

각종 열의 증상과 치료법

- 【加味清涼飲】
- 가미청량음

治小兒頭熱身熱, 口中熱氣, 大便黃赤.

아이가 머리와 몸통에 열이 나면서 입속이 뜨겁고 대변이 누렇거나 붉은 증상을 치료한다.

【清涼飲】[方見積熱門] 加【川芎】、【柴胡】最妙.

청량음 [처방은 적열문에 나온다] 에 천궁과 시호를 더하여 쓰면 아주 효과가 좋다.

- 【人參芎歸散】
- 인삼궁귀산

治兒童虛勞, 閑熱¹, 潮熱, 或遍身瘡.

아이가 허약하여 몸속에 열이 나고 주기적으로 열이 나며 간혹 온몸에 창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北參、當歸、遠志(侵取肉², 薑製焙)、北前胡、柴胡、地骨皮、防風、北梗、枳殼(製)、半夏麴 各壹錢半, 川芎、伏苓、赤芍藥、麥門冬(去心) 各貳錢, 甘草 參錢(焙).

북인삼、당귀、원지(물에 담갔다가 과육을 제거한 후 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북전호、시호、지골피、방풍、북길경、지각(법제한다)、반하국 각 1.5돈, 천궁、복령、적작약、맥문동(심을 제거한다) 각 2돈, 감초 3돈(곁불에 말린다).

右剉細, 每服貳錢, 水小盞, 薑參片, 紫蘇參肆葉, 煎服. 發瘡者兼服【猪肚黃連圓】[方見疳類], 別作小圓. 不惟治瘡、治渴, 其發潮熱而肚脹者, 米飲常服貳拾圓.

이상을 잘게 썬다. 한 번에 2돈씩 복용하되 물 1소잔(小盞)에 생강 3조각과 자소3~4잎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창이 생긴 경우에는 저두황련원 [처방은 감류에 나온다] 을 따로 작게 환으로 만들어 함께 복용한다. 창이나 갈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조열이 발작하면서 배가 똥똥해지는 경우에도 미음으로 20환씩 자주 복용한다.

- 【猪膽圓】
- 저담원

治小兒每日早饑後發熱, 夜則身凉, 此血熱也.

아이가 매일 아침밥 후에 열이 나고 밤에는 열이 내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혈에 열사가 있기 때문이다.

胡黃連 貳錢半, 宣黃連、赤芍藥 各半兩.

호황련 2.5돈, 선주산 황련、적작약 각 0.5냥.

右末, 獐猪膽汁和成劑, 入膽皮中虛掛, 以漿水煮熟, 取藥研圓麻子大, 每貳拾圓, 米飲常服.

이상을 가루 내고 저담즙과 섞어서 쓸개 속에 넣는다. 이것을 공중에 매단 채 장수(漿水)를 끓여 김으로 익힌다. 속에 있는 약만 꺼내어 곱게 간 후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환씩 미음으로 자주 복용한다.

- 【龍膽草圓】
- 용담초원

治疳熱.

감열을 치료한다.

龍膽草、黃連、史君子肉、青皮 等分.

용담초、황련、사군자 과육、청피 각각 같은 양.

右末, 猪膽汁圓麻子大, 每拾圓, 食後熟水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0환씩 식후에 끓인 물로 넘긴다.

- 【清解散】
- 청해산

治感風發熱頭疼, 鼻塞涕流, 及溫壯悉主之.

풍사에 감촉되어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코가 시리면서 콧물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온병이나 고열도 모두 치료한다.

北參、防風、大麻、北前胡、伏苓、北梗、枳殼(剉)、甘草 各貳錢, 細辛、柴胡 各壹錢半, 川芎 參錢.

북인삼、방풍、대마、북전호、북령、북길경、지각(썬다)、감초 각 2돈, 세신、시호 각 1.5돈, 천궁 3돈.

右末, 每壹錢, 水小盞, 薄荷乾參葉, 略煎溫和服.

이상을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물 1소잔(小盞)에 말린 박하 3잎과 함께 넣어 살짝 달인 후 따뜻할 때 복용한다.

1. 関熱 ㉞ 內熱 ※《증치준승》↩

2. 侵取肉 ㉞ 浸去肉 ※《보제방》↩



附方

부방

- 【辰砂湯】
- 진사탕

除壯熱, 和胃進飲食, 去心驚邪熱.

고열을 없애고 위기(胃氣)를 안정시켜 음식을 넘기게 만들며 깜짝 놀라서 생긴 열사를 제거한다.

白芍藥、人參、甘草(炙) 各壹錢, 茯苓 壹錢半, 硃砂 伍分, 石蓮肉 伍錢.

백작약、인삼、자감초 각 1돈, 복령 1.5돈, 주사 5푼, 석련육 5돈.

- 【大連翹飲】
- 대연교음

治小兒諸熱.

소아의 각종 열을 치료한다.

連翹、瞿麥穗、滑石、車前子、牛蒡子(炒)、紅芍藥 各壹兩, 山梔子、木通、當歸、防風 各半兩, 黃芩(去心) 壹兩半, 柴胡(去芦)、甘草(炙) 各壹兩, 荊芥穗 壹兩伍錢, 蟬脫(去土脚).

연교、구맥(이삭 부분)、활석、차전자、우방자(볶는다)、홍작약 각 1
냥, 산치자、목통、당귀、방풍 각 0.5냥, 황금(심을 제거한다) 1.5냥, 시
호(노두를 제거한다)、자감초 각 1냥, 형개수 1.5냥, 선태(흙과 다리를 제
거한다).

右剉一十五味, 咬咀, 每服一大錢, 水一盞煎服, 湯使於後.

이상의 15가지 약재를 썬 후 거칠게 자른다. 한 번 복용할 때 1대잔(大錢)
씩 물 1잔에 넣고 달여 복용하되 어떤 탕으로 복용하는지는 아래에 적는
다.

○如風熱、痰熱、變蒸熱、肝熱、大腸熱、癰疹熱者, 宜加【麥門冬】去心同
煎.

○풍열、담열、변증열、간열、대장열、은진열에는 맥문동(심을 제거한
다)을 넣고 달인 물로 복용한다.

○如丹熱、實熱、血熱、三焦熱、小腸熱、龍帶熱, 宜加【大黃、燈心】同煎.

○단독열、실열、혈열、삼초열、소장열、용대열¹에는 대황과 등심을
넣고 달인 물로 복용한다.

○瘡疹熱、麻子熱、溫氣熱, 已出未出證熱, 宜加【紫草茸】、【川當歸】同煎.

○창진、마진、온병으로 수포가 돋았거나 돋지 않았거나 열이 나는 경우
에는 자초용과 천당귀를 넣고 달인 물로 복용한다.

○如餘毒熱、胎熱、肺熱, 傷寒後、瘡疹後餘毒發熱, 宜加【薄荷葉】同煎.

○여독열, 태열, 폐열이나 상한, 창진 후의 여독열이 있을 때는 박하엽을 넣고 달인 물로 복용한다.

○如項上生核作熱, 作顛熱, 癰癰毒熱, 宜加【大黃】、【朴硝】同煎.

○뒷목에 멍울이 생기면서 열이 나거나 뺨에 열이 나거나 옹저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대황과 박초를 넣고 달인 물로 복용한다.

- 【梨漿飲】

- 이장음

治小兒潮熱積熱, 瘧邪寒熱.

소아가 주기적으로 열이 나거나 적취로 열이 나거나 학질로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青蒿(取花頭, 用童子小便浸一二次, 日乾爲度)、柴胡(去芦)、人蔘、黃芩(去心)、前胡、秦艽(去上芦)、甘草(炙).

청호(꽃봉오리를 모아 동변에 1 - 2번 담근 후에 별에 말려서 쓴다)、시호(노두를 제거한다)、인삼、황금(심을 제거한다)、전호、진교(노두를 제거한다)、자감초.

右等分, 咬咀, 每服一歲兒半錢, 兩歲一錢匕, 水小小盞, 入【生藕・生梨】[如無【生梨】, 【梨條】亦可], 薄荷二葉, 生【地黃】一寸同煎, 至半盞, 去滓通口空心食前服.

이상 각각 같은 분량을 거칠게 자른다. 한 번 복용할 때 1살 아이는 0.5돈술, 2살 아이는 1돈술을 물 1소소잔(小小盞)에 익히지 않은 연뿌리와 배(배가 없으면 배나무의 가지도 좋다)와 박하 2잎과 생지황 1치를 넣고 함께 달이다가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건더기를 뺀다. 식전에 입을 통해 먹인다.

新刊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卷之三 [終]

신간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 권3 [마침]

1. 용대열 :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

해제

개요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은 남송(南宋)의 인재(仁齋) 양사영(楊士瀛)이 저술한 소아과 전문서적이다.

서지사항 및 판본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은 초간본을 구하지 못하여 명대 주송정(朱崇正)이 본인의 처방을 추가하여 간행한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을 저본으로 삼았다. (일본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야09 00183 7) 저본에 누락되거나 탈락된 경우 또는 내용상의 오탈자는 교감기를 달고 번역에 반영하였다.

흔히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또는 《직지直指》라고 통칭하는 양사영의 저서는 4종이 있고, 《인재직지소아방론》은 그 중 하나이다.

- 《상한유서활인총괄傷寒類書活人總括》: 《인재상한유서仁齋傷寒類書》, 《활인총괄活人總括

》이라고도 한다. 총 7권. 간행년 미상(1260년 이전). 《상한론》과 《유증활인서》에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만든 책이다.

-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 《영아지요嬰兒指要》, 《인재소아방론仁齋小兒方論》이라고도 한다. 남송 경정(景定) 원년인 1260년에 간행하였다. 총 5권이며, 12개 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맥진경醫脉眞經》: 《맥서脉書》, 《의학진경醫學眞經》, 《인재직지방론의맥진경仁齋直指方論醫脉眞經》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1권이나 주송정이 본인의 의견을 추가하여 2권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남송 경정 3년인 1262년에 간행하였다. 송대 이전의 맥학의 오류를 빼고 핵심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 《인재직지仁齋直指》,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이라고도 한다. 총 26권. 양사영의 저서 4종 중에 대표작이라 할 수 있고, 조선에서도 간행한 적이 있다.

양사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은 초간본이 다만 고궁박물관에 선본으로 남아 있고 영인도 되었으나, 본 책은 소장처를 찾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초간본을 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일본 와세다대학에 소장된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을 저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송정이 추가한 부분에는 모두 '附'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양사영의 초간본 부분과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사항

양사영의 자는 등보(登父)이고, 인재(仁齋)는 그의 호(號)이다. 그는 복주(福州) 회안(懷安) 사람이다. 《복건통지福建通志》나 《고금의통古今醫統》에 이름이 보이지만 자세한 생애에 관해서는 고찰할 방법이 없다. 《인재직지방론》 앞머리에 수록된 자서(自序)에는 '경정갑자(景定甲子)', 즉 '경정 연간(1260~1264)의 갑자년'이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는 경정 5년(1264)이고, 그 이듬해는 도종(度宗)이 즉위한 함순(咸淳) 원년(1265)이니, 그는 송대 말기의 인물이다.

주송정의 자는 종유(宗儒), 호는 혜재(惠齋)이며, 휘주(徽州) 출신이다.

구성 및 내용

본서는 총 1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의 병증별로는 대개 방론(方論, 설명) - 증치(證治, 증상별 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송정이 추가한 부분은 대부분 암기를 위한 가결(歌訣) 형태와 부방(附方, 추가한 처방)이다.

- 권1: 初生, 變蒸, 驚
- 권2: 驚(권1과 이어짐), 中風
- 권3: 疳, 積, 熱

- 권4: 傷寒, 痰涎, 脾胃, 丹毒, 雜證
- 권5: 瘡疹

의의 및 특징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 또는 《직지直指》라고 통칭하는 양사영의 저서는 대부분 의서의 인용서목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본서는 현재도 책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양사영의 저서 4종 중 대부분은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을 가리키지만 처방의 출처 일부는 본서를 가리키기도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양사영의 저서를 400회 이상 인용하면서 '直指'와 '直指小兒'로 표기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양사영의 저서가 종류에 관계 없이 조선에서 많이 읽었고 그 결과 의과 취재 과목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양사영의 저서 4종은 각각의 책으로도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통칭하여 《인재직지방》 또는 《직지방》이라고 할 수 있다. 저본으로 사용한 와세다대학 소장본 역시 4종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편철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 참고자료

中醫古籍珍本集成 方書卷《仁齋直指方論》해제

사고전서 총목제요 권103 (한의학고전DB. 양휘웅 번역)

고금도서집성 의부전록 권508 (한의학고전DB. 김혜일 번역)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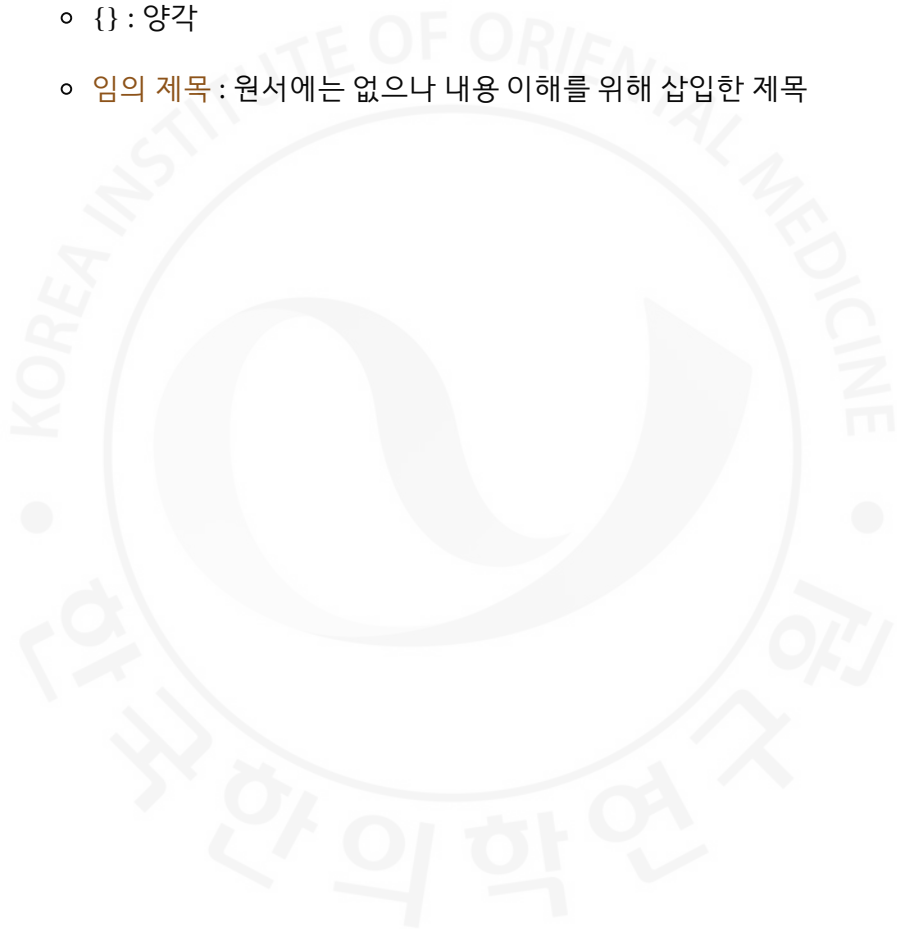
판본 및 구성

- 이 책은 인재직지의서 4종인 《상한유서활인총괄傷寒類書活人總括》,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 《의맥진경醫脉眞經》, 《인재직지방론仁齋直指方論》 중 《인재직지소아방론》을 번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재직지소아방론仁齋直指小兒方論》은 초간본을 구하지 못하여 명대 주송정(朱崇正)이 본인의 처방을 추가하여 간행한 《인재직지소아부유방론仁齋直指小兒附遺方論》을 저본으로 삼았다. (일본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Y09 00183 7)
- 주송정이 추가한 부분은 모두 원문에 '附'라고 표시되어 있으니(附方 포함), 양사영의 초간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하시길 바란다.
- 원본에 글자가 빠진 부분이나 빈칸으로 처리된 부분은 최대한 인용한 서적에서 교감하려 했으나, 책이 현존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후대의 책인 《보제방》이나 《증치준승》에서 교감하였다.

표기법

- 처방의 구성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약간 변형하였으나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괄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寸/촌, 字/자, 圓/환 등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 인명이 아닌 龜의 독음은 구흉(龜胸)과 같이 '구'로 표기하였다.
- 두음법칙에 따라 尿, 衄, 泥 등이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 등으로 처리하였다.
- 목단(모란), 목과(모과), 앵도(앵두) 등 현대 한글과 발음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은 오동자 크기·속미 크기처럼 풀었다.
- 원본의 음각은 원문과 번역문에 각각 다르게 표시하였다. 원문에는 가능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였고, 번역문에는 가독성을 위하여 음각을 대부분 표시하지 않았다.
- 천황련(川黃連)처럼 약재 앞에 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독음으로 번역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원본에서 각 문(門)의 제목은 꾸밈 무늬(목판 판심의 화문어미와 비슷하다)와 함께 큰 글자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본문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서적의 작은 글씨
 - 【】 : 음각
 - {} : 양각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인재직지소아방론 2 / 仁齋直指小兒方論 2

원저자 : 양사영(楊士瀛)

국 역 : 이정현

해 제 : 이정현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
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
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 ISBN 978-89-5970-600-6 (PDF)
- ISBN 978-89-5970-612-9(세트)